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 석사학위논문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ater-concentrated Daehakro
District, Seoul
: Focusing on Theaters and Their Environment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한 구 영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경 진

이 논문을 조경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 경 조 경 학 과

한 구 영

한구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한기원

(인)

부 위 원 장

김기호

(인)

위 원

조경진

(인)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한 구 영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2월

위 원 장

한구영

(인)

부 위 원 장

김기호

(인)

위 원

조경진

(인)

초빙심사위원

임희지

(인)

국 문 초 록

서울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한 구 영
지도교수 조 경 진

대학로 지역은 공공의 문화정책이 도시공간에 지속적으로 투영되어 온 장소이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이 지역의 공연장의 개수는 150개가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로 지역의 공연예술 인프라는 비교적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입장에서 대학로는 단순히 공연관람 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활동들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 시작 전에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거나, 공연 후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공연장이 입지한 주변 도시공간에서 행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로 도시공간은 이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본 논문은 공연장 주변 환경에 대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질적 향상을 무작정 논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로 지역의 기초적인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도시 공간 변천사를 도시형태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도시형태적 관점이란 도시에 누적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재 도시공간에 독특한 형태로 취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공연예술 활동의 매개체인 공연장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의 모습은 도시형태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떠고 있었다. 도시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여건인 가로패턴의 경우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입지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필지의 변화는 상업화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필지는 합필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합필된 필지에는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등장이 이 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건축물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동숭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더 활발히 변해 온 양상의 띄고 있는데, 그 원인은 상업화에 따른 개발 수요 그리고 공연장의 입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용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학로 지역이 상업화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공연장의 밀집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공연장들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규모의 다양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입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형태요소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체감할 수 있는 공연장과 그 주변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도시형태와 공연장 유형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분석의 대상을 분류하고, 세밀하게 공간, 용도,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역별로 물리적인 환경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객들의 행동패턴도 이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 특히 관객편의시설 제공의 관점에서는, 작은 필지에 입지하고 좁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장이 큰 필지에 넓은 공지를 가진 대규모 공연장에 비해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관람과 연관된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의 용도는 구역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로 상권이 반경 500m 내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약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로 지역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양한 도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구역 별로 그 특성에 적합한 계획에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도시형태의 물리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공연장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가 유입되어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조성된 도시형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의 비물리적 요소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연장이라는 대학로 지역의 특수한 용도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추후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 및 의견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대학로, 공연장, 도시형태, 공연장의 입지, 소극장

학번: 2011-22357

빈 페이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설정	4
(2) 시간적 범위	8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0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대학로와 공연장 밀집지역	13
1.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위상	13
2. 공연장의 개념 및 공간적 특성	16
(1) 도시공간에서 공연장의 의미	16
(2) 공연장에 관한 고찰	18
제2절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21
1. 도시형태의 개념 및 의미	21
(1) 도시형태의 개념	21
(2) 도시형태 연구의 방향	23
2. 도시형태의 구성요소	23
(1) 토지이용	23
(2) 건축물	24
(3) 필지 유형	24
(4) 가로패턴	24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26
1.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26
2.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한 선행연구	2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3장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형성 과정

제1절 공연장의 밀집 및 성장과정	31
1. 대학로 지역 공연장 현황 및 성장	31
(1) 공연장 개수 추이	31
(2) 공연장 개관 건수 추이	34
2.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형성 요인	36
3. 대학로 지역 공연장들의 성장 특성	37
(1) 입지 변화 특성	37
(2) 규모 변화 및 공연장 규모 별 입지 현황	39
(3) 시대별 공연장 입지 특성	41
제2절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45
1. 대학로 지역 가로패턴의 변화과정	45
(1) 간선도로망의 형성	47
(2) 동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
2. 대학로 지역 필지 유형의 변화과정	55
3. 대학로 지역 건축물의 변화과정	62
(1)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분석	62
(2) 1985년과 2010년 건축물 형태 비교	64
(3) 대학로 지역 멸실 건축물	68
4. 토지이용의 변화과정	68
(1) 대학로 지역 용도지역/지구 현황	68
(2) 대학로 지역의 상업화	71
(3) 상업화의 성격	73
제3절 대학로 지역 공연장과 도시형태와의 관계	76
1. 공연장의 입지와 도시형태와의 관계	76
(1) 공연장의 입지와 가로의 특성과의 관계	76
(2) 공연장의 입지와 필지 유형과의 관계	78
2. 공연장 특성과 도시형태와의 관계	79
(1) 공연장의 유형과 건축물과의 관계	79
제4절 소결	80

제4장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의 공간적 특성

제1절 공간적 특성 분석의 관점 및 대상	83
1. 관객의 행태	83
(1) 관객의 규모	83
(2) 관객의 동선	84
(3) 유동인구 집중 지점	85
2. 보행거점과 공연장의 입지와의 관계	87
3. 분석을 위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권역 분류	90
제2절 공연장 밀집구역 유형 별 공간적 특성 및 관객 행태 ...	92
1. 구역A: 명륜2가 상권 이면도로 일대	92
2. 구역B: 혜화역 2번 출구 일대	96
3. 구역C: 동숭길 소극장 밀집지역 일대	99
4. 구역D: 대학부속기관 및 복합공연장 밀집지역 일대	102
5. 구역E: 혜화로 주변 일대	105
제3절 소결	108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111
1. 연구의 요약	111
2. 연구의 결론	11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3

■ 참고문헌	114
■ 부록	120
■ Abstract	123

〈표 차례〉

- [표 2-1] 공연시설의 종류
- [표 2-2] 객석 수와 공연양식과의 전형적 관계
- [표 2-3] 콘젠(Conzen)이 주장한 도시형태의 구성요소와 요소 별 특성
- [표 2-3] 대학로 지역의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구분
- [표 3-1] 1997년 경 대학로 지역 공연장 현황과 현재 사용 용도 비교
- [표 3-2] 대학로 지역 주요 공연장들의 시기별 개관
- [표 3-3] 대학로 지역 주요 공연장들의 시기별 개관
- [표 3-4] 대학로지역 일대 행정동 및 자치구
- [표 3-5] 아남아파트 건축년 도 및 세대수
- [표 3-6] 이화동과 동숭동의 주민등록 인구 및 증감율 추이
- [표 3-7] 혜화역 점포평균 임대시세
- [표 3-8] 이화동 점포평균 임대시세
- [표 3-9] 혜화동 점포평균 임대시세
- [표 3-10] 건축물 내에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율
- [표 4-1] 공연장 이용자의 분류 및 인원수
- [표 4-2] 대학로 지역을 방문한 관객들의 필연적 이용행태 및 행태 별 분석
요소
- [표 4-3] 혜화역 1번 출구 유동인구(종로구 동숭동 1-34: 맥도날드 앞)
- [표 4-4] 혜화역 3,4번 출구 사이 대학로11길 유동인구(종로구 명륜4가 91-1)

〈도표 차례〉

- [도표 2-1] 서울시와 종로구 공연장 누적 추이
- [도표 2-2] 대학로(좌)와 서울시(우) 공연장 규모별 비율
- [도표 3-1] 대학로 지역 연도별 공연장 개관 건수
- [도표 3-2] 대학로 지역 연도별 공연장 개관 건수
- [도표 3-3] 1990-2012년 동숭지구 주요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의
공시지가(원/m²) 추이
- [도표 3-4]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개관년도 별 객석수 산점도
- [도표 3-5] 서울시내 주요상권 지하철역 하차인원 추이(2006-2007)
- [도표 3-6] 대학로 지역 행정동 인구 추이
- [도표 3-7] 명륜4가 연구대상지 업종 별 추이
- [도표 3-8] 동숭지구 연구대상지 업종 별 추이
- [도표 3-9] 명륜4가 음식업 세분류
- [도표 3-10] 동숭지구 음식업 세분류
- [도표 3-11] 도로별로 접해 있는 공연장(필지 기준) 개수
- [도표 3-12] 대학로 공연장의 접도 유형
- [도표 3-13] 대학로 공연장들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규모
- [도표 3-14]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규모별 빈도수
- [도표 3-15] 공연장이 입주한 건축물의 층수
- [도표 3-16]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규모와 객석수 사이의 산점도
- [도표 4-1] 공연장 입지 건축물 수 기준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비율
- [도표 4-2] 공연장 수 기준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비율
- [도표 4-3] 지하철 역부터 보행거리에 있는 공연장 빈도
- [도표 4-4] 보행거점과 공연장 특성(객석수) 및 도시형태(필지 규모)와의 관계

〈그림 차례〉

- [그림 1-1] 루나아트홀(종로구 동숭동 1-150) 앞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관람객들
- [그림 1-2] 공연장의 분포와 구별, 행정동별 경계
- [그림 1-3] 대학로 문화지구계획구역경계와 공연장 분포
- [그림 1-4]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공연장 입주건축물 분포
- [그림 1-5]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로의 영역과 명칭
- [그림 1-6] 2012년 6월 대학로 공연장 안내도
- [그림 1-7] 종로구 대학로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 1972-2007
- [그림 1-8] 연구의 흐름도
- [그림 2-1] 서울시 상업지역과 공연장 분포도
- [그림 2-2] 문화예술활동의 매개체로서 공연시설
- [그림 2-3]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공연장 주변 지원시설
- [그림 2-4] 대학로 소극장 이랑씨어터 공연사진
- [그림 3-1] 창경궁로 북쪽의 공연장들
- [그림 3-2] 대학로 공연장의 공간적 확산(1997년과 2012년 비교)
- [그림 3-3] 객석수 별 공연장 입지
- [그림 3-4] 공연장 규모 및 보유 공연장 수
- [그림 3-5] 1981 - 1990년 공연장 입지
- [그림 3-6] 1991 - 1999년 공연장 입지
- [그림 3-7] 2000 - 2005년 공연장 입지
- [그림 3-8] 2006 - 2012년 공연장 입지
- [그림 3-9] 한성의 가로도로망
- [그림 3-10] 한성의 가로패턴(1930)
- [그림 3-11] 수선전도(首善全圖)의 일부분, 1861
- [그림 3-12] 좌. 경성부명세신지도(京城府明細新地圖) 일부분, 1914 / 우. 가로망,
하천, 시구개수예정도로계획선 재구성
- [그림 3-13] 좌.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일부분, 1927 / 우.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일부분, 1933
- [그림 3-14]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로선도(1912. 11. 6.)

[그림 3-15] 도서관의 집이 옮겨지면서 반세기의 긴격량의 막을 내린 동숭동
서울대 캠퍼스

[그림 3-16]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

[그림 3-17]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

[그림 3-18] 구 서울대자리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현장

[그림 3-19] 대학로 지역 동숭동 일대 동숭지구 1972년, 2012년 위성 사진 비교

[그림 3-20] 1914년 2012년 대학로 지역 가로패턴 변화 분석

[그림 3-21] 필지 유형의 변화 권역별 구역도

[그림 3-22]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명륜4가동 일대)

[그림 3-23]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명륜4가동 일대)

[그림 3-24]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혜화로 주변 일대)

[그림 3-25]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혜화로 주변 일대)

[그림 3-26]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그림 3-27]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그림 3-28] 1987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그림 3-29]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그림 3-30]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이화동 일대)

[그림 3-31]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이화동 일대)

[그림 3-32] 구역별 합필된 필지의 유형 비교

[그림 3-33]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그림 3-34]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이분할)

[그림 3-35] 1985년 명륜4가동 건축물 배치

[그림 3-36] 2010년 명륜4가동 건축물 배치

[그림 3-37] 1985년 대학로 주변 건축물 배치

[그림 3-38] 2010년 대학로 주변 건축물 배치

[그림 3-39] 1987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그림 3-40] 2010년 대학로 지역 건축물 및 가로망(동숭지구 일대)

[그림 3-41] 종로구와 중구 일대 토지이용계획 및 공연장 분포도

[그림 3-42]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그림 3-43] 대학로 상권거래 가격 변화

[그림 3-44] 서울 소재 행정구역별 상가 평균 매매가격

[그림 3-45] 공연장과 관련한 소비업종과 공연장의 입지

[그림 3-46]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그림 3-47]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규모별)

[그림 4-1] 대학로 지역 주요 지점 별 유동인구

[그림 4-2] 지하철역 출구를 별 공연장 접근 가능 영역(최단거리 기준)

[그림 4-3] 구역별 공연장 및 입지 특성

[그림 4-4] 공연장 특성과 도시형태에 따른 권역 분류

[그림 4-5] 구역A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그림 4-6] 구역A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그림 4-7] 구역A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그림 4-8] 구역B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그림 4-9] 구역B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그림 4-10] 구역B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그림 4-11] 구역C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그림 4-12] 구역C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그림 4-13] 구역C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그림 4-14] 구역D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그림 4-15] 구역D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그림 4-16] 구역D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그림 4-17] 구역E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그림 4-18] 구역E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그림 4-19] 구역E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그림 4-20] 분석 구역별 공간적 특성 종합

[그림 4-21] 관객 행태 비교1(좌. 아르코예술극장, 우. 컬트홀)

[그림 4-22] 관객 행태 비교2(좌. 동숭아트센터, 우. 삼형제소극장)

[그림 4-23] 관객 행태 비교3(좌. 동숭아트센터, 우. 배고파씨어터)

빈 페이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가능성과 과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지역 일대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공연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한 지역이다. 1975년 서울대학교 동숭캠퍼스가 관악캠퍼스로 이전이 결정되고, 1978년 새로이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동숭지구는 본래 단독주택지로 조성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는 공연예술활동을 위한 시설인 공연장이 다수 밀집해 있다. 1981년 대학로 지역 내에 최초로 건립된 문예회관(현 아르코예술극장)을 필두로 2012년 현재까지 수많은 공연장이 개관과 폐관을 반복하였고,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대학로에는 155개¹⁾의 공연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2006년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당시 공연장의 개수가 57개²⁾였다는 점에 비하면, 지난 6년 사이 공연장의 절대적인 숫자가 약 3배 가까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울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 주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구역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공연장이 밀집한 지역의 부가가치는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극장지구(Theater District)는 매력적인 도심의 다양한 기능들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극장지구의 핵심적인 시설인 공연장은 지역의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욕의 극장주제작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브로드웨이는 2005~2006년 시즌에 1,200만명 관람객에 약 8,600억원

1) 2012년 11월 대학로문화지도(서울연극센터 냄)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셈.

2) 서울시(2006), 대학로제1종지구단위계획(제정비) 시행지침, p. 63.

을 벌어들였고, 뉴욕시에 기여한 경제 파급 효과는 약 4조 8,000억원이었다.³⁾ 대학로 지역 역시 종로구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도심의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서울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도약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2012년 7월)

[그림 1-1] 루나아트홀(종로구 동숭동 1-150) 앞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관람객들

(2) 도시형태학적인 접근의 필요성

공연장의 최대 수요자는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관객일 것이다. 이들은 공연산업의 소비자이자, 대학로 지역 차원에서는 해당 도시공간의 이용자이다. 이들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대학로 지역이라는 도시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공공과 대학로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공연 관람객들을 위한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대학로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강구하기에 앞서, 공연장이 밀집한 대학로 지역의 도시공간 고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지역의 기능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도시를 관리한다면,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계획을 수립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 이연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공연예술산업,”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신동호 외 8인 (공편),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9), p. 155.

4) 이희정·김광중(2003)은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출처: 이희정·김광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및 개선방향 연구』(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3), p. vii.

도시형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형태발생학(morphogenetics)이 추구하는 것은 도시형성의 과정을 중시하여,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도시의 물리적 형상을 재건하는 것이다.⁵⁾ 대학로 지역은 역사적으로 장소적 특성이 ‘정치, 교육과 문화→교육과 문화, 주거→문화와 교육, 상업’으로 변했고⁶⁾,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연장의 증가로 인해 공연예술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로 지역의 건조 환경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안점이다.

2. 연구의 목적

도시조직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므로, 도시조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공시적, 통시적 관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⁷⁾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로 지역의 건조환경의 변화와 공연장의 성장을 비교하는 것이다(통시적 고찰). 도시형태 요소의 체계를 바탕으로 대학로 지역의 도시형태의 변화를 고찰한다. 그리고 대학로 지역이 ‘교육+주거’의 기능에서 ‘상업+문화’의 기능으로 변화하게 된 가장 주요한 시설인 공연장의 성장을 고찰한다. 도시형태의 변화 패턴과 공연장의 입지 및 속성의 변화 패턴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시간 순에 따라 나열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대학로 지역 건조환경의 공간적 특성과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공시적 고찰). 특히 도시형태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대학로 지역의 유형을 나누어서 구역별로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공간의 미시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5) 한기정, 손세관. 앞에 든 논문, p. 222.

6) 이석환, 도시 가로의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1998, p. 230.

7) 한기정, 손세관. “도시조직에 대한 형태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15(1), 1995, p. 221.

대학로 지역의 외부공간을 계획 및 관리하는 데에 구체적인 현안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설정

1)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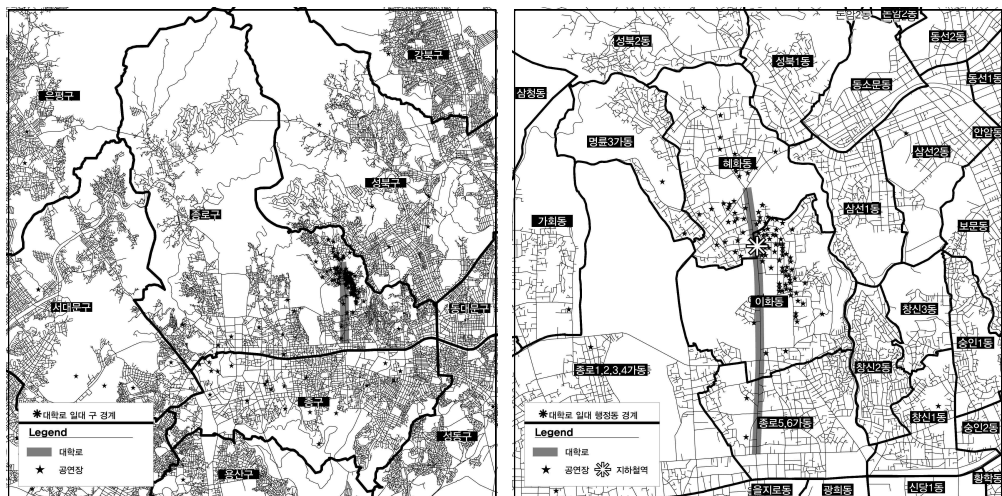
연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은 연구의 대상인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리적 경계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연장들의 입지를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서, 도면상에서는 혜화동 로터리와 이화사거리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외에 이르는 지역이다. (그림 1-2 참고) 사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대중적으로 ‘대학로’ 혹은 ‘대학로 상권’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였다.

2) 대학로의 공간적 범위

대학로는 도로명 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79-1번지 종로5가 사거리에서 혜화동 132번지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가로로 길이 1.55km, 너비 25~40m이다. 대학로라는 명칭은 서울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려지다가 1985년 서울시의 가로명 제정심의회에서 확정되었다.⁸⁾ [그림 1-2]의 좌측 도면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학로와 공연장의 분포를 나타낸 도면이다. 대학로는 서울시의 도심부라 할 수 있는 종로구의 동쪽 경계에 위치하며, 서울시의

8) 김재관. “대학로에서 평등 찾기,” 『국토』, 220, p. 103.

중심 가로라 할 수 있는 종로와 교차한다. 또한 서울 성곽 안쪽에 위치하며, 도심 부의 여러 업무지구, 쇼핑지구 등과 함께, 도시의 다양성 증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림1-2]의 우측 도면은 대학로 주변의 행정동 경계와 공연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로는 행정동 상 혜화동과 이화동 그리고 종로5,6가동을 관통하고 있으며, 대학로와 혜화동과 이화동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있다. 공연장의 분포는 이화동과 그리고 혜화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이라 하면, 종로5,6가동을 제외한 혜화동 로터리에서 이화사거리에 이르는 대학로 구간의 양옆으로 이해 할 수 있다.



Box size: 5km×5km North to the Top Box size: 3km×3km North to the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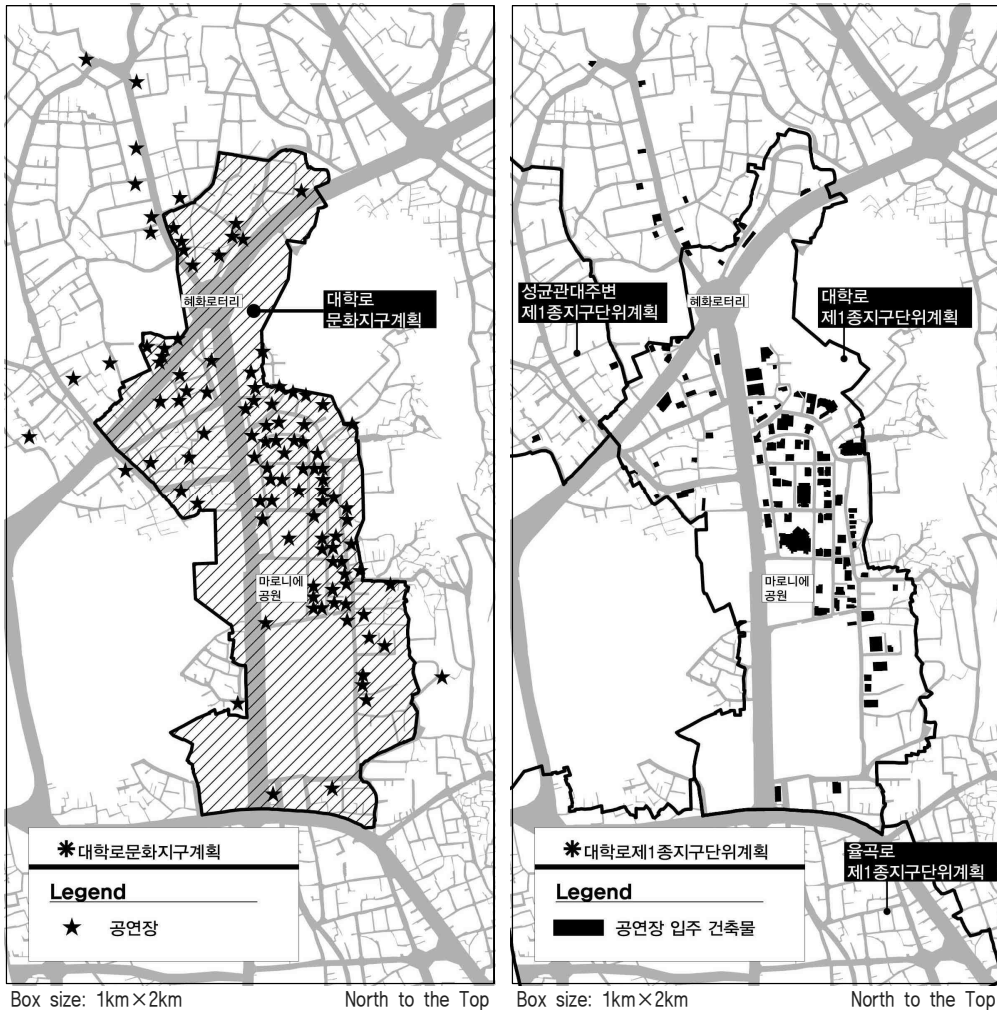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GIS(구별, 행정동별 경계,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 분포)

[그림 1-2] 공연장의 분포와 구별, 행정동별 경계

[그림 1-3]과 [그림 1-4]은 대학로 지역 일대에 수립된 주요한 공공계획인 대학로문화지구계획(2004)과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2006)의 구역경계와 공연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수립된 이들 공공 계획의 구역경계는 혜화로터리 북쪽 일대에 공연장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연진 (2011)은 문화지구 지정 이후 대학로의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혜화동 북쪽 문화지구 경계 밖으로 극단형 소규모 공연장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⁹⁾ 따

9) 김연진,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 101.

라서 현재 공공에서 수립한 계획구역은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경계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자료: 대학로문화지구계획 자료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3] 대학로 문화지구계획구역경계와 공연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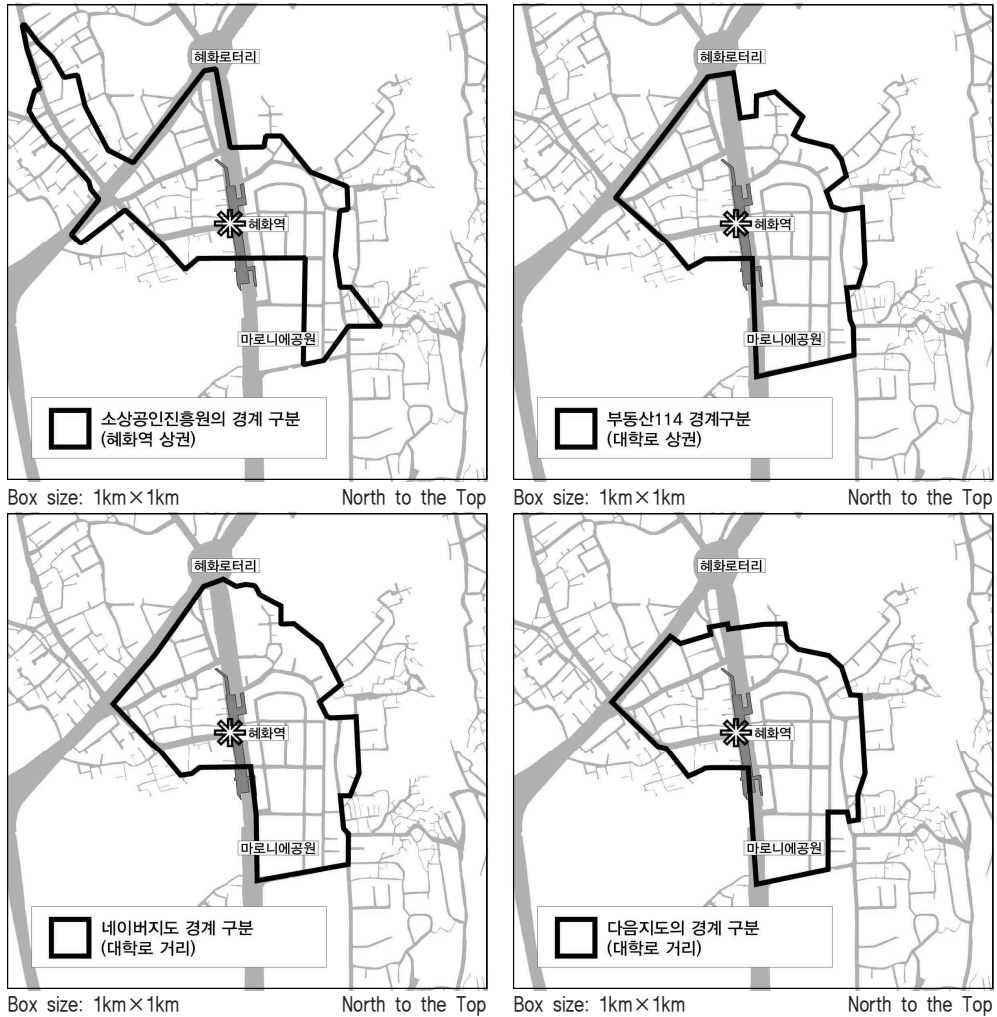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자료: 대학로지구단위계획 자료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1-4]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공연장 입주건축물 분포

[그림 1-5]은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로 지역의 영역과 명칭이다. 이들은 대학로의 영역을 공연장의 분포가 아닌, 해화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역세권을 비롯한 상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1-5]의 첫 번째 도면 같은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밝힌 해화역 상권의 경계도이다. 서북쪽에 성균관로 일대를 해화역 상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성균관로가 성균관대의 주요 통

학길로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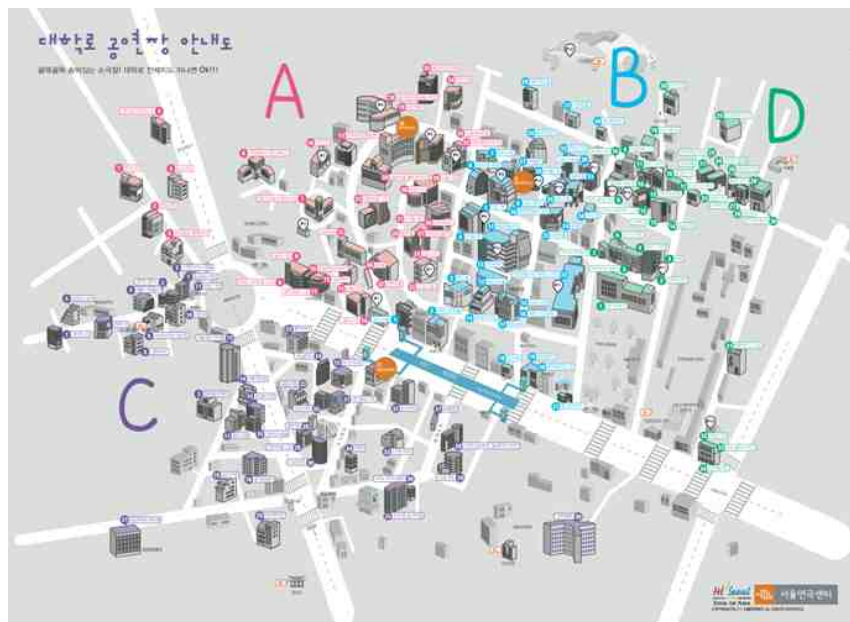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부동산114, 네이버지도, 다음지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5] 각종 공공/민간 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로의 영역과 명칭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이지만,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공식적인 경계는 사실상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연극센터에서는 공연관람을 위해 대학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객들을 위해 매달 ‘대학로 공연장 안내도([그림 1-6])¹⁰⁾’를 발행하고 있는데, 비교적 포괄적인 범위에서 대학로 지역 일대 공연장들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

10) 서울연극센터에서는 2007년 11월부터 매달 ‘대학로 문화지도’라는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연극센터웹사이트(www.e-stc.or.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에 소개된 공연장들의 위치를 참고하면, 대략적으로 현재 대학로 공연장 지역의 범위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연장들의 입지를 아우를 수 있는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도면상에서는 혜화동 로터리와 이화사거리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외에 이르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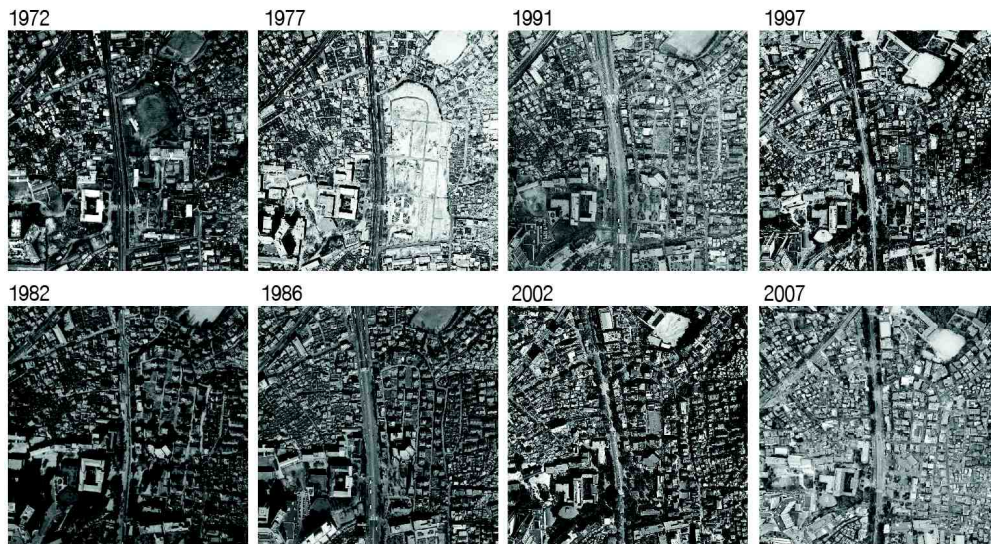
자료: 서울연극센터(e-stc.or.kr)

[그림 1-6] 2012년 6월 대학로 공연장 안내도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통시적 고찰과 공시적 고찰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뉜다. 통시적 고찰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도시형태 변화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도시형태의 요소들이 조성되기 시작한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부터, 대규모로 도시형태가 변화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도시형태 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1978년 동숭동 일대에 시행된 동숭동 주택지조성사업을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7 참고) 공시적 고찰을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2년 가을, 현재 대학로의 건조 환경과 운영되고 있는 공연장들을 대상으로 한

다. 대학로의 공연장들은 2000년대 중반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¹¹⁾ 현재 시점이 대학로 공연장들이 포화된 상태라고 미루어 짐작 하도록 한다.



자료: 서울시GIS 포털

[그림1-7] 종로구 대학로 일대 연도별 항공사진 1972-2007

11) 라도삼(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한해 공연장이 2개소 증가에 불과했으며, 이는 2006~2007년에 26개소가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최근 공연장의 입지속도가 둔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라도삼,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p. 105.)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 관련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동향 파악

제2장 제1절에서는 예비적 고찰의 과정으로서, 먼저 공연장 밀집지역으로서 대학로의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공연장이 도시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연장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해한다. 특히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연장 유형인 소극장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공연장의 특성과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대학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는 도시형태학과 관련한 이론과 도시형태의 구성요소 그리고, 연구 방법을 파악하도록 한다.

제3절에서는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행해진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독립적인 연구로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유사한 연구를 통하여 더 발전적인 연구 모델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한 고찰

제3장에서는 대학로 공연장 밀집 지역의 공간 변화를 공연장의 변화 및 성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1절에서는 대학로에 공연장이 입지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 및 요인을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정리한다. 이와 같은 통시적 고찰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대학로 공연장들이 변화하고 성장한 주요한 특징들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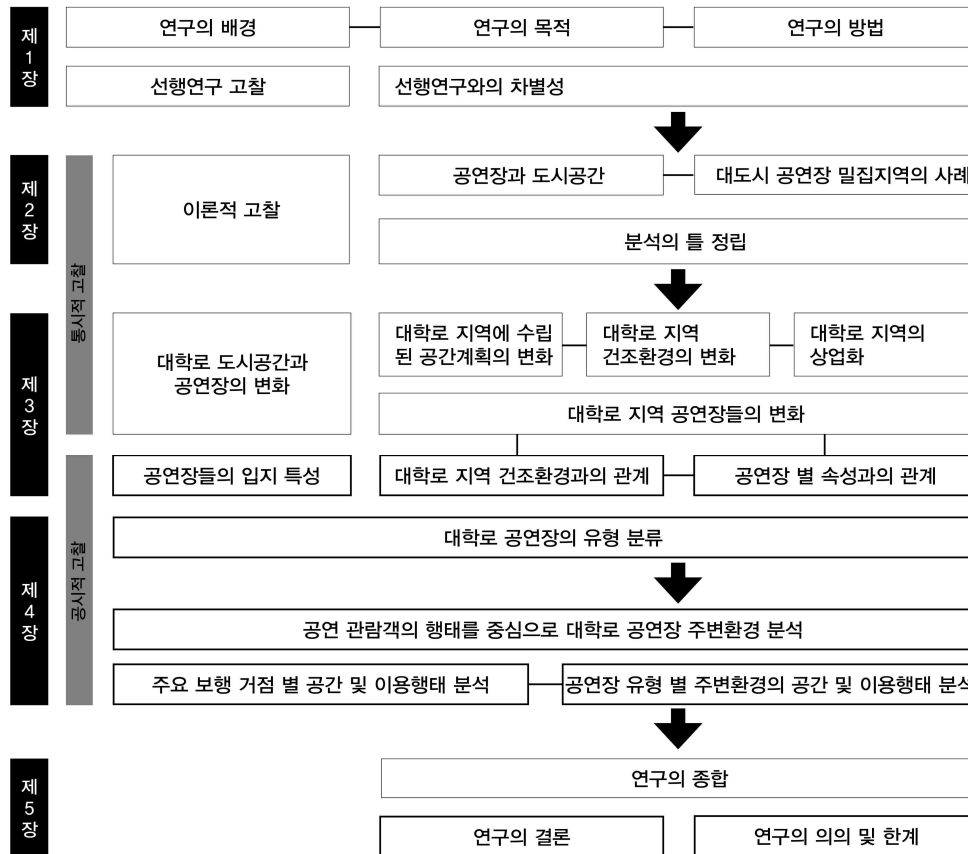
제2절에서는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및 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과거 도면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재구성한 도면을 통해 도시형태의 변화 및 공연장의 성장을 표현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이것에 영향을 끼친 사회·경제·제도적 요인을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파악한 공연장의 입지 및 특성과 제3절에서 밝혀낸 도시형태의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3) 미시적 차원에서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 고찰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대학로 지역의 도시형태 적 특성과 공연장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띠는 구역들을 유형화 한다. 그리고 유형화 한 구역 별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수치지도 자료를 바탕으로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한다. 표현되는 주요 속성은, 공연장과 가로 사이의 현황, 주변 건축물의 저층부 용도 현황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사진으로 표현하여, 공간의 미시적인 특성과 이용행태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 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설명한 본 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면 아래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예비적 고찰

제1절 대학로와 공연장 밀집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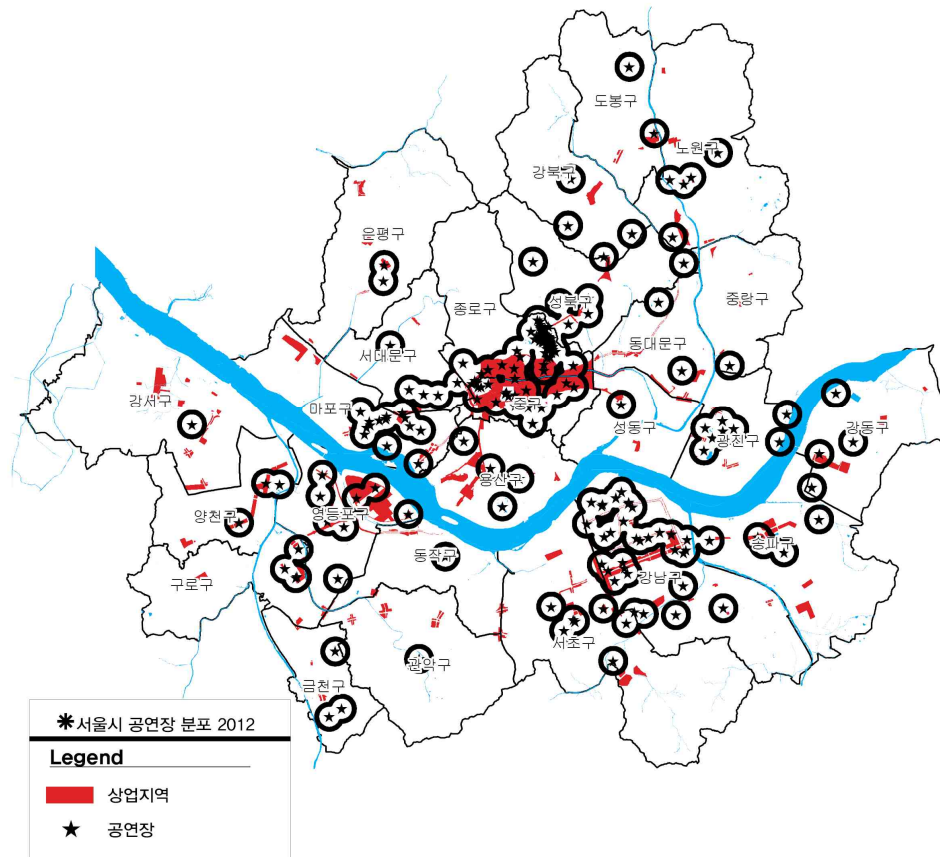
1.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위상

대학로에 공연장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대학로 공연장의 밀집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 공연장이 대학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그림 2-1]은 2010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자료¹²⁾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공연장의 입지를 도면에 표현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총 189개의 등록공연장이 있으며, 대학로 지역이 속한 종로구에는 총 78개의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다.¹³⁾ 공연장의 속성을 공공공연장과 민간 공연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진다. 공연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의 규모는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이 다수 입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대학로 공연장 지역에는 다수의 소공연장이 입지해 있으며, 운영주체의 구분에 따르면 다수의 공연장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기준 공연예술실태조사 주소록』,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2).

13) 문화통계포털의 전국등록공연장 현황 자료는 등록공연장만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로 지역의 실제 공연장 개수와는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비등록공연장을 포함한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 개수에 대한 현황은 제3장을 참고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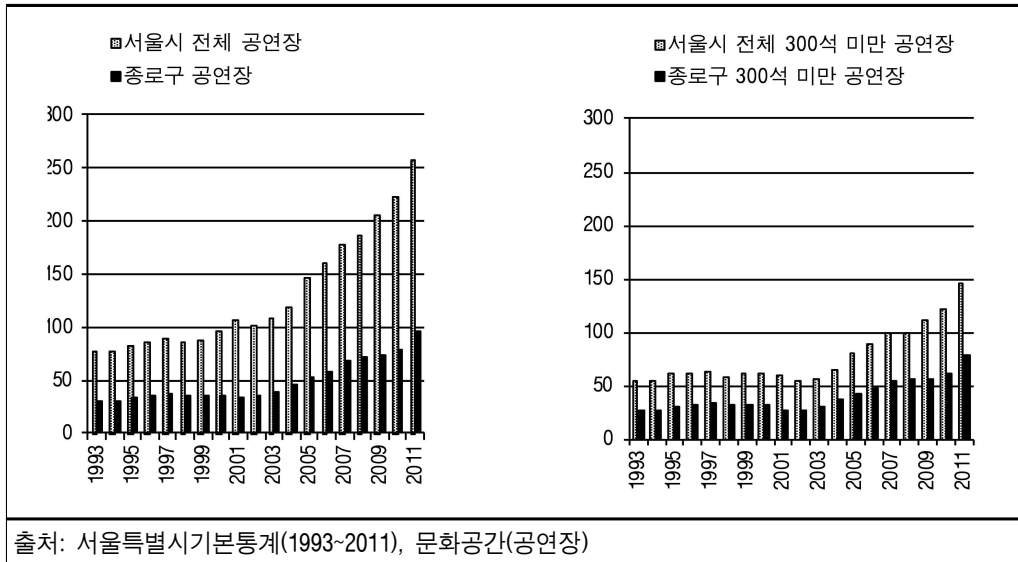


출처: 문화통계포털의 2010년도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1] 서울시 상업지역과 공연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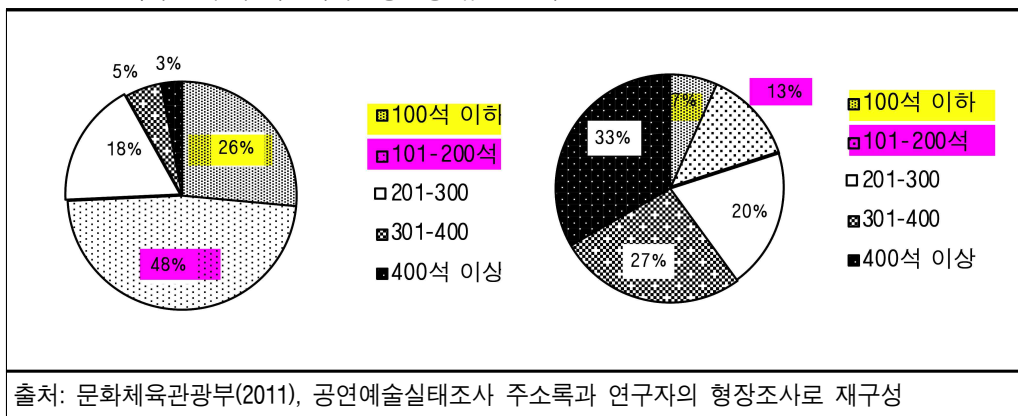
[표 1-1]은 서울시 전체와 대학로 지역의 행정구인 종로구의 공연장의 누적 추이이다. 종로구는 서울시의 중심지답게, 서울시 전체 대비 다수의 공연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의 경우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표 2-1] 서울시와 종로구 공연장 누적 추이



따라서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표 1-2]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은 약 67%이지만 대학로 지역 공연장 중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은 92%에 이른다. 따라서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의 특징 중 하나는 소공연장들이 다수 입지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다.

[도표 2-2] 대학로(좌)와 서울시(우) 공연장 규모별 비율



2. 공연장의 개념 및 공간적 특성

(1) 도시공간에서 공연장의 의미

도시는 시장(market)과 문화(culture)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¹⁴⁾ 왜냐하면, 도시에는 문화의 생산자와 문화의 소비자가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문화시설을 매개로하여 이루어진다. 화가, 작가 혹은 극작가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산다. 하지만, 라이브 공연(live performance), 미술관 전시(gallery exhibition), 박물관 관람(museum display)과 같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활동들은 배타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난다.¹⁵⁾ 왜냐하면, 문화예술 서비스는 다른 곳에 있는 소비자에게 실어 나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¹⁶⁾ 문화예술 활동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시설들은 그 안에서 생산되는 예술 활동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집단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도시 내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문화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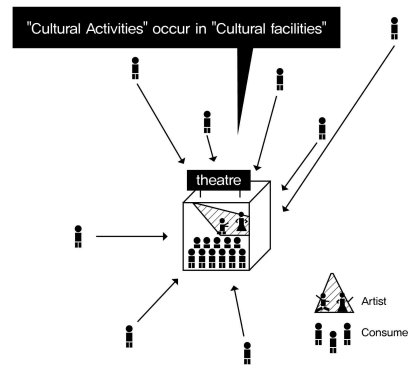
공연 예술(performing art)의 경우 ‘공연장’이란 시설을 매개로 하여 공연예술의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공연예술 활동은 나머지 다른 문화시설에서의 경제활동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은 본질적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연장에서는 ‘사람’이 예술의 생산자이자 공급자이다. 대부분의 문화시설들은 문화예술의 감상자, 즉 소비자만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그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공연예술의 생산/공급자와 공연예술을 감상하는 관객(소비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어딘

14) Edward Glaeser, *Triumph of the City*, 이진원 (역), 『도시의 승리』 (서울: 해냄, 2011), p. 23.

15) James Heilbrun, “Art and Culture as Central Place Functions,” *Urban Studies*, 29(2). 1992, p. 205.

16) James Heilbrun, *ibid.* p.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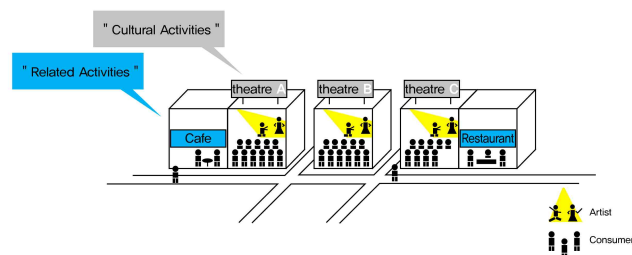
가에서 통행(trip)활동을 통해 공연장을 방문한다. 공연장은 다른 문화시설과는 달리 그 입지 특성상 특수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참고)



자료: 연구자

[그림 2-2] 문화예술활동의 매개체로서 공연시설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모인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연예술 활동 이외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질문하게 된다. 공연장에서 문화활동(Cultural Activities)으로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지, 기타 다른 소비활동과 같은 연관한 활동(Related Activities)¹⁷⁾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연장의 입지가 주변 환경에 공연장과 관련한 일종의 지원시설들을 들어서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림 2-3 참고)



자료: 연구자

[그림 2-3]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활동을 지원하는 공연장 주변 지원시설

17) 2001년 영국의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출간된 창의산업 보고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s)에 의하면, 공연예술(Performing Art)을 핵심활동(core activities), 연관활동(related activities) 그리고 연관산업(related industries)로 분류하고 있고, 연관된 활동에는 술집, 음식점, 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rt,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London: DCMS, 2001).

(2) 공연장에 관한 고찰

1) 공연장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공연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정의된 문화시설¹⁸⁾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공연장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으로서 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그리고 소공연장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1]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연시설의 종류를 보여준다.

[표 2-1] 공연시설의 종류

	제목	정의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 제외)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출처: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시설 분류		

대학로의 공연장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극장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분류상 소공연장과 혼용하여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소극장 역시 300석 이하의 객석을 가진 작은 규모의 극장을 일컫는다.¹⁹⁾ 따라서 공연장 중 물리적인 규모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2) 소극장의 공간적 특성

소극장 연극의 공연예술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면, 소극장이 왜 물리적으로 작은 규모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소극장 연극은

18)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시설의 종류 6가지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로 분류 된다.

19) 정호순, 『한국의 소극장과 연극운동』 (서울: 연극과인간, 2002), p. 9.

실험적인 공연예술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태동되었다. 그것의 시발점은 서구의 사실주의적 작품과 무대를 통한 사실주의 연극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19세기말 서구의 근대극운동이었다. 소극장이란 작은 공간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 인생이라는 환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엄격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소극장 연극은 공연예술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소극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규모는 공연양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표 2-2]는 공연장의 규모의 척도인 객석수와 공연양식의 전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2] 객석 수와 공연양식과의 전형적 관계

150-300석	지역 극단의 연극제작 / 지역 음학회(recital) 소규모 순회 음악회 / 순회 독창 또는 독주회 소규모의 현대무용공연 / 영화 / 강연회 / 회의
450-850석	지역 연극제작 / 순회 연극제작 / 소규모의 음악회와 콘서트 중간 규모로 문대를 꾸민 콘서트 오페라 소규모의 현대무용 공연 / 영화 / 강연회 / 회의
900-1300석	지역 뮤지컬 연극제작 규모가 있는 순회연극과 뮤지컬 연극 제작 지역적인 오케스트라 콘서트 / 순회음악회 현대 무용공연(규모가 큰 순회 모용단을 제외) 중간 규모로 무대장치를 한 오페라 공연 / 영화 / 강연회 소규모 회담(conference)
1500-1900석	지역 뮤지컬 연극제작 / 순회 연극 및 뮤지컬 연극 제작 오케스트라 콘서트 및 음악공연 / 그랜드 오페라 공연 현대무용공연(대규모 순회 무용단) / 지방 및 순회 발레 공연 버라이어티(대중음악) / 락 콘서트(light and soft rock) 영화 / 회담: 소규모 집회(conventions) / 회의
출처: Brian Amott, 『A Facility Design Workbook』, 한규용(1999)에서 재인용	

3) 공연장과 도시공간간의 관계

공연장의 일반적인 분류가 그것의 물리적인 규모라는 사실은, 공연장이 도시 공간에 입지하였을 때, 공연장의 규모가 결국 공연장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가 있

20) 정호순, 앞에 든 책, p. 15.

을 것이고, 이는 곧 도시형태의 기초적 요소인 건축물과 필지유형(규모) 등과의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극장 같은 경우 도시 공간에 입지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필지와 건축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로 지역의 소극장들이 다른 여느 극장과 달리 대부분의 소극장들이 극장전용 건물이 아닌, 일반 상가나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극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또한 소극장은 타 업종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건물 지하층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그림 2-4]은 대학로 지역에 위치한 소극장 내부의 공연 사진이다. 지하층에 만들어졌고, 극장을 엮두해두고 설계 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객석 사이사이에 기둥이 들어서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 정육규 “연극 ‘밧줄’, 사형수 통해 본 신앙 반추,” 『연세중앙교회 교회신문 218호』 (2010년 11월 20일)

<http://news.yonsei.or.kr/webzine/view.asp?widx=3641&bcate=1&wcate=53&keyword=>

[그림 2-4] 대학로 소극장 이랑씨어터(160석) 공연사진

제2절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

도시는 오랫동안 문화적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문화적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²¹⁾ 도시 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사실 도시지리학의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분야 중 하나이다.²²⁾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적 특성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태학이라는 분야의 관점으로 접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시형태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구성 요소 그리고 연구방법을 이해하여,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1. 도시형태의 개념 및 의미

(1) 도시형태의 개념

도시형태(urban form)이란 한 국가 또는 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집단적개별적으로 다루어 그 도시들이 입지와 평면구성, 건축의 형태와 건축양식, 건물과 토지이용, 그리고 사회집단, 경제활동, 공공기관 등과 같은 요소들이 공간적 패턴(pattern) 또는 배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³⁾ 좁은 의미로 도시외형에 대한 가시적 형태를 의미하는 도시형태(urban form, urban shape)에 한정 할 수 있으나, 넓게는 도시의 물리적·비물리적 요소의 입지와 배치상태 및 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포괄적 개념인 도시패턴(urban pattern)과, 도시내부 및 도시들의 장소간 기능적 상호연계와 작용을 의미하는 도시구조(urban structure, urban network), 나아가 생물학과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조직과 물적 형태 및 외관을 정의하는 도시경관(urban morphology, urban landscape)까지 확장하여 정의 할 수 있다.²⁴⁾

21) Knox, Paul et al.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박경환 등4인 (공역).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2), p. 69.

22) 같은 책, p. 70.

23) 이주형, 『도시형태론』 (서울: 보성각, 2001), p. 16.

24) 같은 책, p. 16.

도시형태 이론의 범주는 크게 계획이론, 기능이론, 그리고 규범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능이론 이하 역사적 연구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도시는 독특하고 누적되어 가는 역사적인 사건과 유적의 범주, 문화, 기후, 경제적·역사적 구조 등의 광범위한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가정 하에, 오랜 시간동안의 사건을 겪으면서 현재의 독특한 형태를 취해 왔다고 보는 관점이다. 모든 도시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사를 통하여 설명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도시형태학이란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urban form)를 대상으로 형태의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며,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도시의 생성 발달 및 생활상등 제반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비 물리적인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분야이다.²⁶⁾ 따라서 도시형태학은 도시의 형태와 형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은 도시설계가가 다루는 대상지역의 개발 패턴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²⁷⁾

도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힘의 영향을 받는다.²⁸⁾ 모든 도시의 성장은 외연적 확대와 도시 내부이 재조직화라는 두 가지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²⁹⁾ 도시가 발달하더라도 계속 잔존하려는 형태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 교회, 대학가, 도로, 공원, 공유지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새롭게 개발되거나 재개발된 근린지구 내에서도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³⁰⁾

25) 이주형, 앞에 든 책, p. 26.

26) 양승우, “독일의 도시형태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5(3), 2000, p. 8.

27) Carmona, Matthew et al, *Public Places - Urban Spaces*, 강홍빈 등7인 (공역).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울: 도서출판 대가, 2009), p. 119.

28) Knox, Paul et al, 앞에 든 책, p. 70.

29) 같은 책, p. 70.

30) 같은 책, p. 71.

(2) 도시형태 연구의 방향

김광중(2012)은 한국의 도시형태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³¹⁾ 한국의 도시형태 연구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양(shape), 규모(size), 패턴(pattern), 레이아웃(layout) 구조 등 형태의 필수적인 요소들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역사-문화 지리학자들이 도시형태에 관심이 있지만, 형태학(morphology)보다는 역사(history)에 관심을 둔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로부터 남겨진 건물이 많이 없다. 20세기 후반 급격한 근대화는 전통적인 도시의 유산(legacy)에 관심을 적게 두었다. 둘째, 형태와 관련한 자료가 부족하다. 도시형태학은 형태(form)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조사 단지 간에 질 좋은 그래픽 표현(graphical representations)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은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공연장 및 주변 환경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재구성한 다수의 도면을 설명의 도구로서 활용할 것이다.

2. 도시형태의 구성요소³²⁾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대학로 역시 도시형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 도시초창기 도시형태학에서 콘젠(Conzen)은 도시 형태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토지 이용, 건축물, 필지 패턴 그리고 가로 패턴을 제시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네 가지 요소의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순서는 건물과 그 건물에 담기는 용도, 필지 패턴 그리고 가로 패턴이다.

(1) 토지 이용

토지이용의 변화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는 토지 이용의 개념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혹은 건축물 대장

31) Kim, Kwang-Joong, "The Study of urban form in South Korea," *Urban Morphology*, 16(2), 2012, pp. 158-159.

32) Carmona, Matthew et al, *Public Places - Urban Spaces*, 강홍빈 등7인 (공역).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울: 도서출판 대가, 2009), pp. 118-128.

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건축물을 이용하는 용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로의 핵심적인 시설인 공연장의 기능과 가로면의 저층부 용도에 한정하였다.

(2) 건축물

교회 성당 등의 공공건물은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오래 보존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건물들은 설계와 건설 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이 건물은 특별한 의미를 주고 도시의 상징으로서도 작용한다. 강건성(robustness)이 높은 오래 존속하는 건물은 다양한 용도를 수반한다. 대학로 지역에 있는 건물 중 이러한 성격의 건물이 바로 아르코예술극장(전 문예회관)과 같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건물이다.

(3) 필지 유형

블록(urban blocks)이라 불리기도 하는 지적 단위(cadastral units)는 필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등을 서로 맞댄(back to back)’ 필지 분할 방식으로, 필지 앞부분은 가로에, 필지 뒷부분은 다른 필지의 뒤쪽에 접하도록 하는 형태다. 필지 앞면은 큰 길에 접하고 뒷면은 블록 뒤쪽의 서비스용 골목에 접하는 분할방식도 있다. 드물지만 필지 양쪽 끝이 큰 길로 열리는, ‘관통형 필지(through plots)’도 있다. 필지 분할 보다는 합병이 훨씬 흔하다. 따라서 필지와 같은 시대의 건물은 별로 없다. 대학로 지역의 구획은 1980년대 이전에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지의 규모가 비교적 작다. 따라서 그 이후 필지의 변화는 분필보다는 합필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4) 가로패턴

가로패턴(cadastral pattern)이란 도시블록의 배치 형태, 그리고 블록 사이의 공공공간 및 이동경로 혹은 공공공간망의 배치형태를 말한다. 블록은 도시공간을

규정하고 역으로 도시공간은 블록을 규정한다. 옛 가로망을 무시하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20세기 도로로 인해 오랜 역사의 도시경관이 조각나버리기도 한다. 보통 가로와 도시공간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기에 도시 평면에서 형성 시기가 다른 패턴의 단편과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작은 블록으로 가로패턴이 구성되었을 때, 이를 도시입자(urban grain)가 ‘작다’ 또는 ‘미세하다’고 말한다. 반대로 큰 블록으로 가로패턴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도시입자가 ‘크고 거칠다’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도시형태 구성 요소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콘젠(Conzen)이 주장한 도시형태의 구성요소와 요소 별 특성

도시형태의 구성 요소	변화 속도	특성	소유 형태(주로)
건물의 용도(토지이용)	제일 쉽고 빨리 변함	재개발, 재건축 필지유형 변화 및 가로 패턴의 변화 초래	사유재산
건축물	제일 쉽고 빨리 변함	토지이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때에만 존속	사유재산
필지 유형	건물 용도와 건축물에 비하면 안정적	필지의 합병과 분할	사유재산
가로 패턴	가장 변하지 않음	전쟁, 자연재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	공공
자료: Carmona et al, 강홍빈 등 7인 (공역)(2009), p. 119.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제3절 선행연구의 동향

1.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990년 중반 대학로가 서울시 내 주요상권의 대열이 서게 되고, 공연장이 밀집하게 되면서,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크게 (1)대학로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2)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3)대학로 문화지구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1) 대학로 지역의 형성 요인 및 공연장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로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9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입지하게 된 요인에 관한 연구로 정리할 수 있다.

강재훈(1998)³³⁾은 소공연장들의 대학로 유입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대학로에 공연장이 입지한 이유를 장소의 상징성, 수요자 접근성 그리고 적당한 지가 및 임대료로 파악하였다.

허윤주(1999)³⁴⁾는 대학로내 소극장들의 미시적인 이해관계와 상호작용, 이들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의 방향이 종합계획(master plan)식 접근에서 탈피하고, 규범적인 이론보다는 현상의 이해와 제반문제에서 출발한 현상이론적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은정(1999)³⁵⁾은 대학로 지역에 수립된 문화전략을 장소마케팅으로 이해하고, 대학로 지역의 공간특성 변화로서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라도삼(2010)³⁶⁾은 서울시내 여러 문화특화지역들의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33) 강재훈, 공연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연극 소극장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8.

34) 허윤주, 대학로내 문화시설 특화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9, p. 100.

35) 심은정, 대학로지구 공간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문화전략의 공간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9, pp. 1-99.

36) 라도삼,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연구에서 대학로 지역은 성숙기를 지나 진화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2) 대학로 지역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대학로 지역이 문화의 중심지로 오랫동안 그 위치를 유지해오면서, 대학로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로를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고, 도시공간과 공연·상업시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소성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석환(1998)³⁷⁾은 대학로 지역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대학로의 장소성은 ‘정치, 교육과 문화→교육과 문화, 주거→문화와 교육, 상업’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시적 측면에서 바라본 대학로의 장소성은 마로니에공원, 혜화역 북쪽 출입구 주변(1,4번 출구) 그리고, 대명길과 같이 가로와 연계된 광장과 같은 공간이나 위요된 곳이 장소성을 풍부하게 한다고 했다.

최막중·김미옥(2001)³⁸⁾은 대학로의 장소성의 형성 요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로는 젊음, 문화의 이미지(연극 공연, 마로니에공원, 거리 행사, 대학생·젊은층)가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냈고, 이러한 요소들은 목적지로 선택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홍경구·김도년(2001·2005)³⁹⁾은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된 다양한 문화정책 및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학로의 토지이용 변화가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지 물리적 측면에서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인 시사점으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예술성과 상업성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37) 이석환, 앞에 든 논문.

38) 최막중, 김미옥.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2001, p. 161.

39) 홍경구, 김도년, “대학로지역특화정책이 건축물 용도변화에 미친 영향,” 『국토계획』, 40(7), 2005, pp. 87-99.

김미영(2007)⁴⁰⁾은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대학로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성격을 기초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 간 대학로의 장소성의 변화에 대한 인식차이, 장소성 상실에 대한 의미와 인식 차이, 문화지구에 대한 의미와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시사점으로는 문화지원전략 수립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사한 연구들 사이에서 한 가지 주목 할 점은, 해를 지날수록 대학로 지역의 방문 목적이 공연관람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대학로 문화지구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한 선행연구

2004년 대학로 지역 일대에 수립된 대학로 문화지구계획은 공연장의 양적증가를 야기 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계획은 대학로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상업화 물결 속에서 문화적인 요소로서 공연장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적 지원 및 공연장 입주 건축물에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도적인 성격의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지구라는 공공의 구체적인 선언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하고 대학로의 상업화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대학로 문화지구계획에 대하여, 제도적 효용성을 논하는 연구가 2000년대 말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보희(2008)⁴¹⁾는 대학로 내 문화관련 시설과 정책적 지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로의 실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고, 상업시설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상업시설 쿼터제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애(2008)⁴²⁾는 정책 지원이 실질적인 보호업종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조세감면, 융자지원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며 용도관리나 환경개선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률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40) 김미영,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7, pp. 1-101.

41) 이보희,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8, pp. 1-102.

42) 김경애, 서울시 문화지구정책의 효과성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의 비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8, pp. 1-144.

에 의문을 가졌다.

허정(2010)⁴³⁾은 대학로는 상업화에 따른 지가 상승과 임대료 및 대관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규모 공연기획사만이 살 수 있는 공연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였다.

김지환(2008)⁴⁴⁾은 수도권 공연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시설의 속성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행태연구를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로서 단일시설 내에 공연장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객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른바 상영관이 많은 영화관에서 나타나는 멀티플렉스 효과가 공연장에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한 선행 연구

진영호·안건혁(2009)⁴⁵⁾은 서울 도심부의 종로와 율곡로, 세종로와 종묘 사이 종로 1, 2, 3가동 일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1912년 작성된 지적원도를 원형으로 하여 2007년까지 도시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길과 필지 그리고 건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지 일대 도시형태 변화유형을 8개로 나누고, 개별 유형에 대한 변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질적인 변화 양상을 소개하며, 역사적 도시형태의 길, 필지, 건물의 구성체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명지선(2005)⁴⁶⁾은, 귀금속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순라길 주변 도시형태의 변화와 귀금속 산업 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귀금속 보석 산업의 공정 작업방식과 한옥의 활용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였고, 귀금속 산업의 공정 네트워크 도시 공간 상에서 가로를 활용하여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밝히려는

43) 허정,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공연예술시장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10, pp. 1-77.

44) 김지환, 공연문화시설의 속성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행태연구: 수도권 공연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8, pp. 1-34.

45) 진영호, 안건혁,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유형과 특성,” 『도시설계』, 10(1), 2009, pp. 103-120.

46) 명지선, 서울시 귀금속 산업의 도시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4, pp. 1-101.

시도를 하였다. 도시형태로서 공간과 귀금속산업이라는 특수한 용도의 행태와의 관계를 심도 있는 현장분석을 통해 묘사한 것이 돋보인다.

권수연(1999)⁴⁷⁾은 대학로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의 용도와 형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1978년 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동숭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내부 평면과 마당 그리고 가로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한계에서 밝혔듯이 대학로 지역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고찰이 부족한 점으로 나타났다.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대학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현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연구와 현상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공연장 밀집지역의 형성요인 및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전자이고, 문화지구의 제도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후자이다. 하지만, 대학로 지역의 문제점의 논의의 범주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부분이므로, 현상에 대한 해석과 문제 해결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로의 공연장들의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되도록 구체화를 시켜, 현상의 기술과 현상의 문제점의 접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 대학로 지역 내에서 공연장의 양적 증가 및 입지 변화를 감안하여, 연구의 경계를 동숭지구 주변 지역으로 확장한 것도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려는 차원에서 본 논문은 도시형태의 구성요소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인 공연장의 특성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역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47) 권수연, 대학로 지역 단독 주택의 변화 연구: 용도와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1-75.

제3장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형성 과정

제1절 공연장의 밀집 및 성장과정

1. 대학로 지역 공연장 현황 및 성장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시에는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약 34.22%의 공연장이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다. 공연장의 유형을 공공 공연장과 민간공연장으로 구분하면, 서울시의 민간공연장의 경우 특정 지역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 중 98%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의 공연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로구 대학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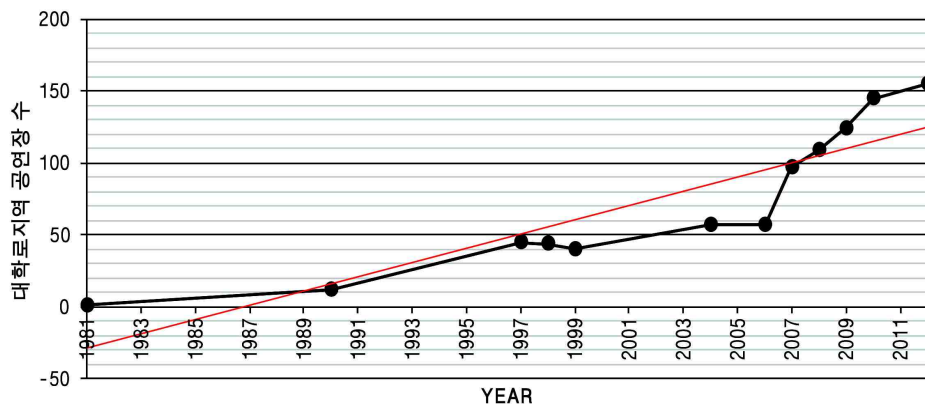
(1) 공연장 개수 추이

지난 30년간 대학로 지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공연장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1981년 당시 대학로 최초로 ‘문예회관’이 개관하였고, 1984년 ‘샘터파랑새극장’이 민간공연장 중 최초로 개관하였다. 이후 1985년 4호선 혜화역이 개통되자, 신촌 지역 일대 공연장들이 대학로 지역으로 대학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⁴⁸⁾ 왜냐하면, 임대료가 싸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공연장들은 짧은 주기를 갖고, 개관과 폐관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연도별 공연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1980년대에는 서울시 내 타 지역의 공연장들이 이주하여 개관하는 경향을 띄고 있고, 이 후에는 새로 개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2012년 11월 기준 현재 대학로에는 155개의 공연장이 존재한다. [표 3-1]은 선행연구자와 공공기관 및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년도 별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 수를 추이로 나타낸 것이다. (공연장의 개수가 미상인 년도는 동그라미 표시가 없

48) 이정훈, “비싸진 대학로 소극장 떠나간다,” 『한겨레』 (2007년 9월 14일).

다.) 1990년대 말 공연장의 수가 50개에 못 미친 채 잠시 감소했다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연장 설치 시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공연장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지구지정 이후 공연장의 수가 약 3배 증가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 공연장이 급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55개소에서 2008년 109개로 93.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자료: 선행 연구 자료와 현장 조사로 연구자가 재구성

[도표 3-1] 대학로 지역 연도별 공연장 개관 건수

[표 3-1]은 15년 전 공연장으로 쓰이던 용도가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비교 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용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공연장의 이름이 바뀐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로의 대부분의 공연장이 소공연장⁵⁰⁾이고, 그러한 공연장들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건물의 1개 층을 임대하여 공간을 개조하여 공연장으로 쓰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공연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49) 라도삼, 앞에 든 보고서, p. 102.

50) 300석 이하의 공연장을 소공연장이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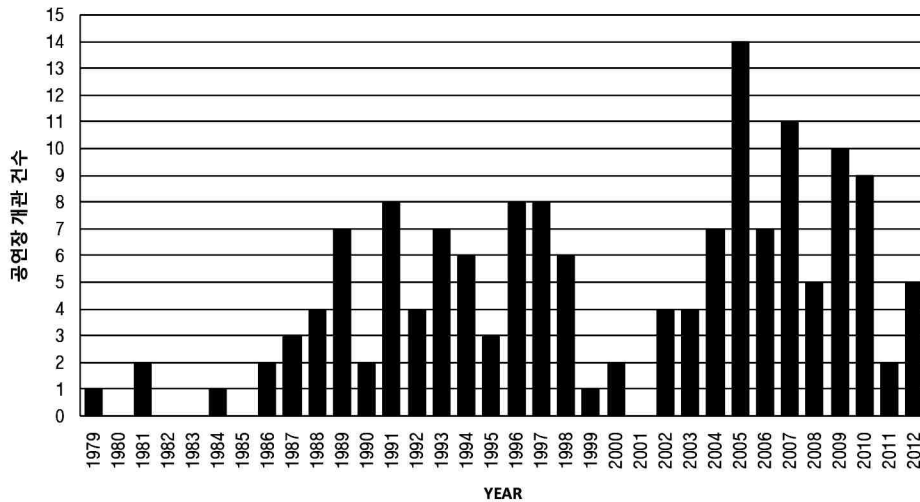
[표 3-1] 1997년 경 대학로 지역 공연장 현황과 현재 사용 용도 비교

(●: 같은 공연장, ○: 공연장 용도만 유지, ×: 타업종으로 용도 변경 혹은 기타 재건축 중)

주소	1997년 대학로 공연장 현황	2012년 사용 용도	
종로구 동숭동 1-5	동숭아트센터	동숭아트센터	●
종로구 동숭동 1-8	학전그린소극장	학전그린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1-10	인간소극장	-	×
종로구 동숭동 1-42	소극장 강강술래	상상아트홀	○
종로구 동숭동 1-54	대학로성좌소극장	두레홀4관	○
종로구 동숭동 1-60	바탕골소극장	바탕골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1-75	라이브극장	대학로문화공간필링	○
종로구 동숭동 1-79	학전블루	학전블루	●
종로구 동숭동 1-81	정보소극장	정보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1-89	까망소극장	까망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1-94	라이브극장	재건축	×
종로구 동숭동 1-97	곤이랑아트소극장	컬트홀	○
종로구 동숭동 1-100	뚜레박소극장	갈갈이홀	○
종로구 동숭동 1-111	문예회관	아르코예술극장	●
종로구 동숭동 1-115	샘터파랑새극장	샘터파랑새극장	●
종로구 동숭동 1-141	하늘땅소극장	하늘땅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1-153	아리랑소극장	아리랑소극장	●
종로구 동숭동 50-20	울타리소극장	탑아트홀	○
종로구 동숭동 50-24	창조소극장	미아트홀	○
종로구 동숭동 50-44	미르아트홀	형씨어터	○
종로구 동숭동 128-16	미리내 소극장	배고파씨어터	○
종로구 동숭동 187-12	은행나무극장	이랑씨어터	○
종로구 명륜2가 41-4	인켈아트홀 대극장	한성아트홀 대극장	○
종로구 명륜4가 69-1	한우리소극장	소극장 피카소	○
종로구 명륜4가 111-2	오늘소극장	소극장 축제	○
종로구 혜화동 164	문화예술관서울두레	소울소극장	○
종로구 혜화동 180	연가속극장	스튜디오76	○
종로구 혜화동 185	동숭시네마텍	한양레퍼토리씨어터	○
종로구 혜화동 194	연극극장왕과시	베스트극장	○
종로구 혜화동 201	파우어1관	한국언어문화원	×
종로구 혜화동 53-9	연우소극장	연우소극장	●
종로구 혜화동 88-1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
종로구 동숭동 130-47	마로니에소극장	마로니에소극장	●
종로구 연건동 178-1	대학로극장	대학로극장	●
종로구 연지동 270	연강홀	두산아트센터스페이스111	○
1997년 현황: 이석환(1998)과 한준상(1998)의 자료를 조합 / 2012년 11월 현황: 연구자 구축 자료			

(2) 공연장 개관 건수 추이

대학로 공연장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실은 개관과 폐관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도표 3-2]는 연도 별 공연장 개관 건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선행 연구 자료와 현장 조사로 연구자가 재구성

[도표 3-2] 대학로 지역 연도별 공연장 개관 건수

[표 3-2]는 연도별로 어떤 공연장이 개관하였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공공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아르코예술극장(구. 문예회관, 1981년 개관)이나 샘터 파랑새극장이나, 정보소극장, 학전소극장 등 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을 제외하고, 공연예술단체나, 일반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공연장들은 같은 공연장명으로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공연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파악 할 수 있다.

[표 3-3] 대학로 지역 주요 공연장들의 시기별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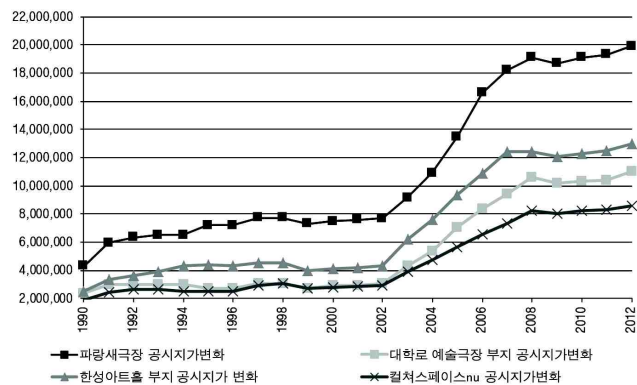
개관 년도	그해 개관한 공연장 명(괄호 안은 공연장의 이전 이름)
198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구. 문예회관 대·소극장)
1984	샘터파랑새극장(대학로 최초 민간극장)
1986	바탕골소극장, 하나방소극장
1987	대학로 극장, 마로니에극장(민예), 연우무대 이전
1988	한마당 소극장, 연가소극장, 뚜레박소극장, 황정순소극장
1989	코메디아트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동숭아트센터소극장, 메르나니소극장, 성좌소극장, 예술마당 금강, 서울아카데미재개관
1990	인켈아트홀, 충돌극장 목화, 민중소극장 이전
1991	학전블루, 충돌극장2, J아트홀, 세미예술극장, 하나방소극장2, 열음무대, 미리내(메르나니), 상상아트홀 블루관
1992	락산극장, 율타리소극장, 인켈아트홀2, 파워소극장1
1993	이화소극장, 혜화동1번지, 연단소극장(1,2), 강강술래, 하늘땅소극장1, 까망소극장(홍익소극장), 정보소극장
1994	오늘날소극장, 인간소극장, 은행나무소극장, 라이브1, 파워소극장2, 하늘땅2
1995	서울두레극장, 정보소극장(정식개관), 왕과사이전
1996	라이브2, 학전그린, 씨알오극장, 불재소극장, 곤이랑아트홀(J아트홀), 미르아트홀(코메디아트홀), 아리랑소극장(세미예술극장), 단막극장
1997	일출소극장, 한누리소극장, 창조극장, 꿈뻘홀, 태양소극장(불재소극장), 광개토소극장(파워2), 마당세실극장, 대학로극장
1998	유민소극장(씨알오), 무인소극장(한누리소극장, 마당세실(열음무대), 바로크하우스(서울두레), 알파벳소극장, 아리랑소극장
1999	다르게 놀자소극장(구. 손가락놀이극장)
2000	이랑씨어터, 김동수플레이하우스
2001	
2002	세우아트센터,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대극장, 우석레퍼토리극장, 설치극장 정미소
2003	한양레퍼토리씨어터, 낙산씨어터, 베스트소극장(구. 청아소극장), 물빛극장
2004	더구씨어터, 상명아트홀1관, 상명아트홀2관, 상상아트홀 화이트관, AN아트홀(구. 질러홀), 호은아트홀(구. 키득키득)(구. 투나틱전용관)(구. JH홀), 청운예술극장
2005	아트센터K네모극장, 아트센터K동그라미극장, 아트센터K세모극장, 신연아트홀, PMC대학로자유극장, 대학로우리극장, 두레홀1관(구. 올레홀), SM턴턴홀, 올레홀(구. 두레홀2관), 미아클씨어터1관, 대학로예술마당 1관, 대학로예술마당 2관, 대학로예술마당 3관, 대학로예술마당 4관
2006	뮤디스홀(구. 악어극장/구. 허밍스아트홀), 켈투홀(구. 발렌타인극장1관), 스튜디오76, 두레홀3관, 미아클씨어터2관, 르메이에르씨어터, 연진아트홀(구. 봉산민속극장)
2007	창조아트홀1관, 창조아트홀2관, 아티스탄홀, 1m클래식아트홀, 두레홀4관(구. 아롱구지), 레몬아트홀(구. 아츠플레이씨어터), 대학로문화공간필링홀1관, 대학로문화공간필링홀2관, SM스타홀, 샘터파랑새극장2관, 문화공간 엘림홀(동숭교회)
2008	익스트림씨어터(구. 껌아트홀), 해피씨어터, 예스24아트홀(구.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 SM아트홀, 세익스피어소극장
2009	소울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극장 가자1관, 오사시소극장, 풀빛극장(구. 대학로 드라마하우스 1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1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2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3관, 미아트홀(구. 메모리 아트홀), (구. 박승대홀), 대학로 예술극장 3관(구. 상상나눔씨어터), 삼형제극장
2010	대학로소리아트홀1관, 대학로소리아트홀2관, 대학로소리아트홀3관, 공간아울, 샘아트홀, 스카이어터, 켈처스페이스nu, 서울문화예술대학교대학로극장, 마로니에극장
2011	노을소극장, 비너스홀
2012	드림씨어터, 아시조, 대학로뮤지컬센터 대극장, 대학로뮤지컬센터 중극장, 대학로뮤지컬센터 피콜로
미상	미방진소극장, 소극장 시월(구. 배우세상소극장), 이영란 감성놀이터, 가든씨어터, 하모니아트홀, 켈트홀, 갈갈이홀, 이데일리대학로홀 옷찾사전용관, SH아트홀, 하늘땅소극장, 훈아트홀, 형씨어터(구. 박승대홀), 탑아트홀, 키득키득아트홀, 배고파씨어터, 환상극장,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원 스튜디오씨어터.
자료: 강재훈(1998), 허운주(1999)의 연구자료와 연구자의 자료로 재구성	

2.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형성 요인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이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공연예술인들의 공간에 대한 선호 및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강재훈(199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극장들이 대학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장소의 상징성(39%), 수요자 접근성(27%) 그리고 적당한 지가 및 임대료(14%)로 조사되었다.⁵¹⁾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형성은 초기 선점요소로서 문예회관(1981년 개관)이 대학로 지역에 입지 한 후 신촌 등지에서 공연장이 이전해온 것이 가장 초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⁵²⁾ 하지만,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입지상 제약점에도 임대료(39%)로 조사되었다.

[도표 3-3]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학로 지역 주요 공연장들이 입지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변화 추이이다.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파랑새극장은 대학로 변에 위치하고, 대학로예술극장과 켈쳐스페이스nu는 동숭지구 이면부, 그리고 한성아트홀은 명륜2가동 창경궁로 변에 위치한 토지이다.



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

[도표 3-3] 1990-2012년 동숭지구 주요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의 공시지가(원/m²) 추이

1980년대의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예전에는 대학로 지역이 현재

51) 강재훈, 앞에 든 논문, p. 77.

52) 같은 논문, p. 77.

와 같이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대학로 지역 공연장들의 성장 특성

(1) 입지 변화 특성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은 양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숭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었던, 공연장들은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하였고, 대학로 서쪽 지역과 창경궁로 이북지역에 공연장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그림 3-1 참고) 그 원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데, 동숭지구의 상업화로 인해 임대료가 치솟자, 기존의 공연장들이 주변지역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⁵³⁾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해 소극장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면 대학로 지역은 서울의 다른 소비공간과의 차별성을 지니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문화의 거리로 생각하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⁵⁴⁾



자료: 이코노미스트(2012년 3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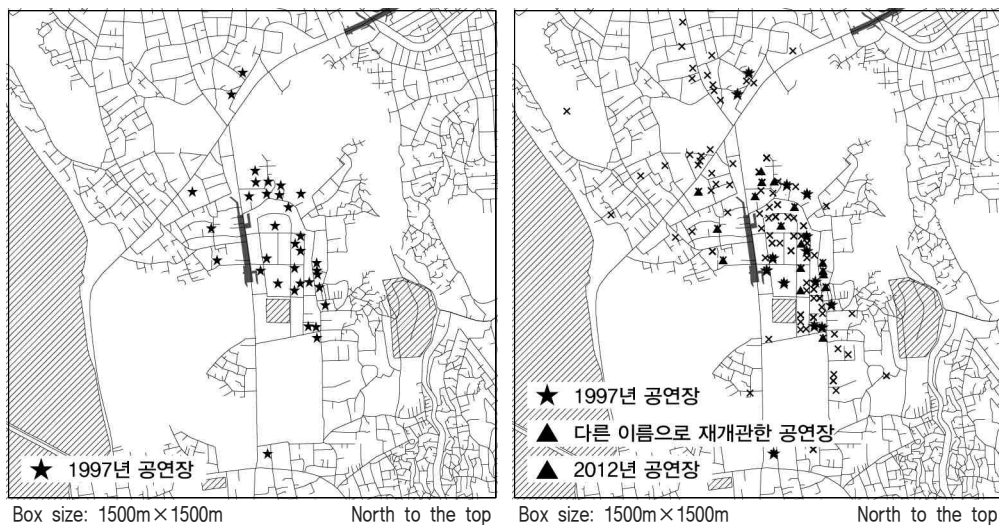
[그림 3-1] 창경궁로 북쪽의 공연장들

[그림 3-2]은 15년 전 1997년 대학로 지역 일대 공연장의 분포와 2012년 현재 같은 지역 일대 공연장의 분포이다. 공연장의 숫자는 45개에서 155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동숭지구 내의 공연장들의 분포 변화는 동숭지구 외곽에 주로 분

53) 박성민, “대학로 옆 혜화로 소극장 물리면서 골목상권 꿈틀,” 『이코노미스트』 (2012년 3월 12일).

54) 김재관, 앞에 든 논문, p. 107

포하던 공연장들이 현재는 대학로 변으로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동
 승지구 남쪽, 방송통신대학교 동쪽 이화동(법정동) 일대에도 공연장이 가로변으로
 형성되었다. 대학로 서측과 북측인 명륜2,4가동 그리고 혜화로터리 북측의 경우에
 는 1997년도에도 각각 세 개, 두 개의 공연장이 이미 입지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각각의 지역에도 제법 많은 수의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다. 대학로의 공연장들은
 지난 10년간 내부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면서도(동승지구 기준) 모든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분포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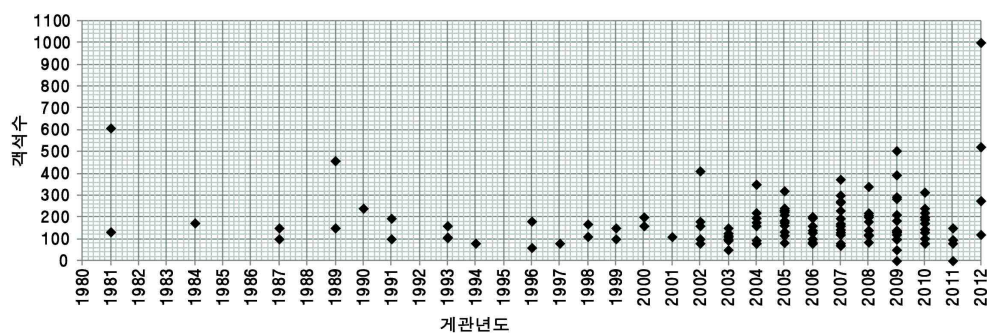


자료: 선행 연구 자료와 현장 조사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2] 대학로 공연장의 공간적 확산(1997년과 2012년 비교)

(2) 규모 변화 및 공연장 규모 별 입지 현황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의 변화 과정 상에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대학로의 공연장이 규모면에서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규모는 흔히 객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초기에 개관한 문예회관(형. 아르코예술극장, 1981년 개관)과 동숭아트센터(1989년 개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연장이 300석 이하 소공연장이었지만⁵⁵⁾, 2002년 동덕여대공연예술센터를 필두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예술캠퍼스 및 부속기관이 신축되면서 지하 공간에 비교적 규모가 큰 공연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존의 소공연장과 중공연장이 섞여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동숭동 25-5 일대에 개관한 대학로 뮤지컬센터는 1000석의 객석수를 가진 공연장을 갖고 있어, 이제 대학로 지역 에도 대극장이 마련되었다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공연장의 규모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공연예술의 장르가 다양해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연장의 규모는 공연예술의 행태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도표 3-4]는 현재 대학로 지역 공연장들의 개관 년도와 공연장 규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이다. y축 분포의 상하 영역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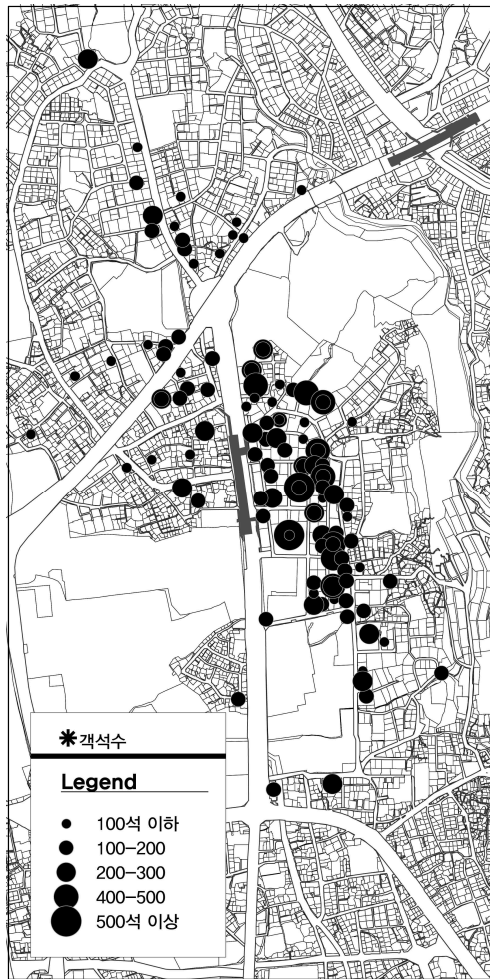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의 대학로 지역 공연장 속성 자료

[도표 3-4]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개관년도 별 객석수 산점도

[그림 3-3]과 [그림 3-4]는 대학로 공연장의 객석수별 입지 현황과 건물 내 공연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포 특성 이외에 공연장 속성에 따른 입지 특성

55) 1988년 조사된 34개의 소극장들은 대부분 총면적 300m²미만이며 200-250m²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극장은 대학로에 위치한 샘터파랑새, 바탕골, 대학로 소극장을 포함하여 총9개(25%)이다. (김영석, 소극장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89, pp. 56-59.)

을 살펴볼 수 있다. 동송지구일대에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이 밀집하여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공연장들은 대부분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들이 입지해 있다.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그림 3-3] 객석수 별 공연장 입지



Box size: 500m×1000m

North to the top

[그림 3-4] 공연장 규모 및 보유 공연장 수

(3) 시대별 공연장 입지 특성

현재 존재하는 공연장들의 개관년도를 기준으로 개관 년도 별 입지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의 구분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이다.

1) 1981년 ~ 1990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

[그림 3-5]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개관한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분포이다. 1980년대 초반에는 문예회관(1981)과 샘터파랑새극장(1984)이 현재 마로니에공원 북쪽 대학로 변에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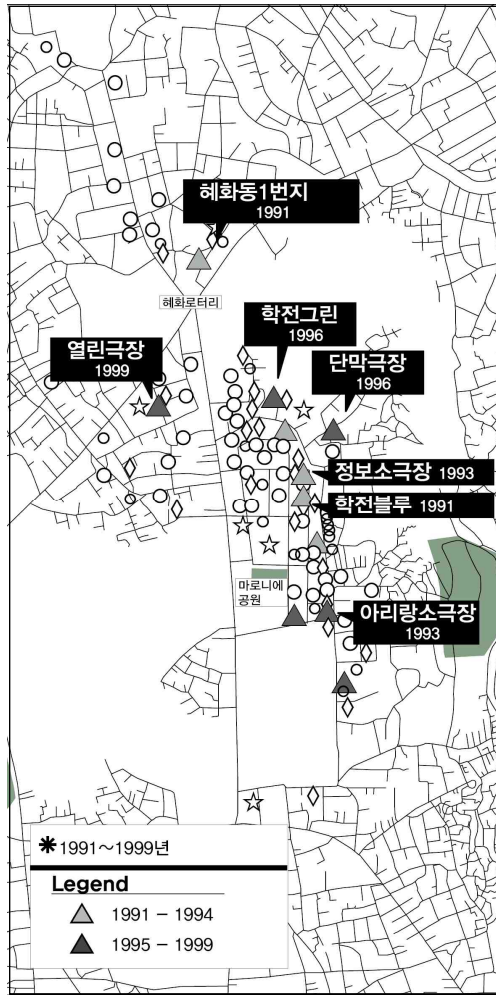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개관한 공연장들은 동숭지구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공연장이 입지한 영역에 띄엄띄엄 입지하게 된다. 창경궁로 북쪽에는 연우무대소극장(1987)이 입지하고 있고, 이화사거리 주변에는 대학로극장(1987)이 입지하였다. 초기에 영세한 소극장들은 오히려 대학로 지역 내보다는 지가가싼 주변 지역에 입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소극장뿐만 아니라, 중대형 극장도 몇 개가 개관하는데, 명륜4가에는 인켈아트홀(현 한성아트홀, 1990)이 입지하였고, 동숭아트센터가 동숭지구 외곽에 위치하게 된다.

2) 1981년 ~ 1990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

[그림 3-6]은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동숭지구에 민간소극장이 집중적으로 개관하게 된다. 대학로를 기준으로 가장 먼 이면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로와 인접한 위치에는 소극장이 입지가 전무하다.



[그림 3-5] 1981 - 1990년 공연장 입지



[그림 3-6] 1991 - 1999년 공연장 입지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은 소극장이 절대적인 강세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현재 공연장의 입지와 유사한 영역성을 띄고 있었으며, 1990년대에는 동숭지구 이면도로에 집중적으로 입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2000년 ~ 2005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

[그림 3-7]은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들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학로 지역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잇따라 개관했다는 것이다. 2004년 상명대학교 부속 예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상명아트홀 공연장이 개관하였고, 동덕여자대학교의 예술센터에도 공연장이 함께 만들어져 개관하였다.

특히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 이 공연장들의 입지는 지난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대학로 변에 가까이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문화지구지정 이후 공연장을 갖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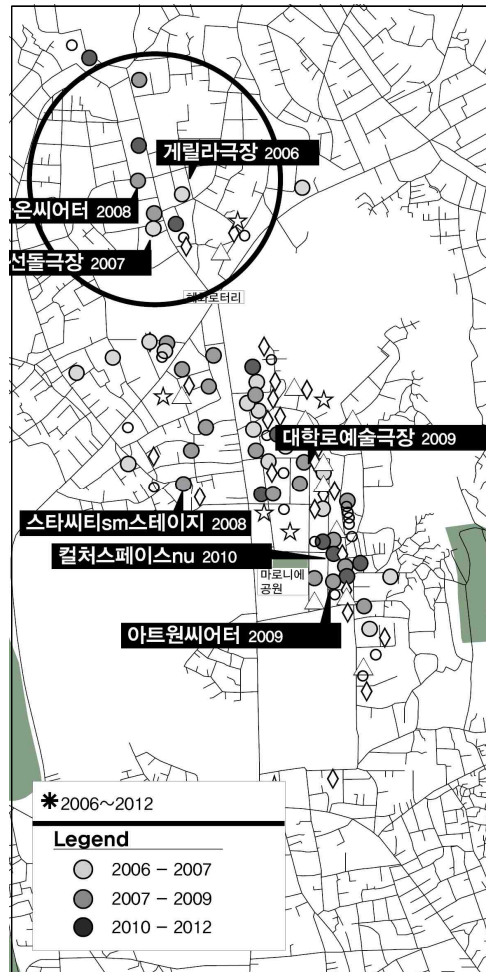
4) 2006년 ~ 2012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의 입지

[그림 3-8]는 2006년 이후 2012년 사이 개관한 공연장들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창경궁로 북쪽, 특히 혜화로 주변에 다수의 공연장이 개관하여 하나의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3-8 동그라미 부분 참고)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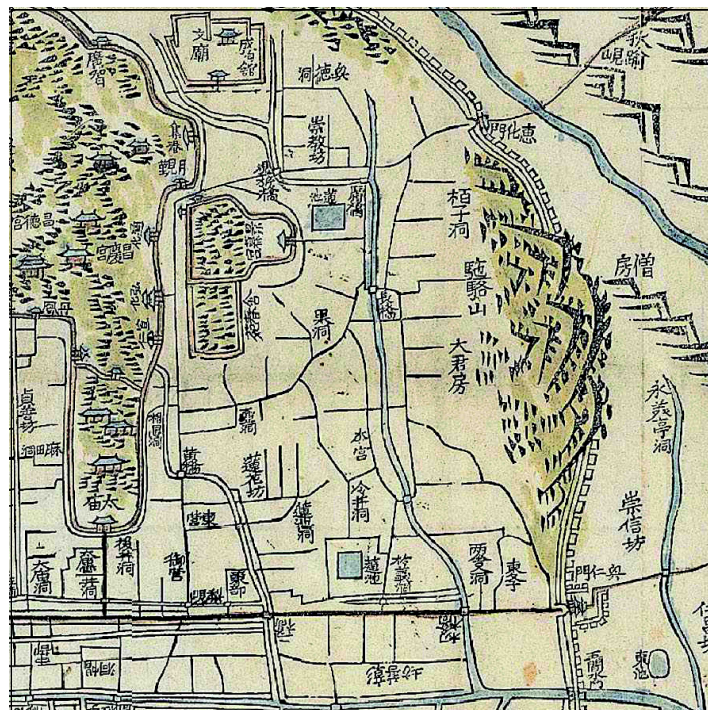
[그림 3-7] 2000 - 2005년 공연장 입지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그림 3-8] 2006 - 2012년 공연장 입지

로의 전신으로 추정되는 길이 혜화문으로부터 대각선으로 나있고, 창덕궁 앞에서 남쪽으로 꺾여서 종로로 합류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위치에는 당시에 성균관의 학당이 있었으며, 성균관 주변으로 하천이 Y자 모양으로 흘러내려간다. 하천은 현재 대학로가 위치한 곳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청계천과 만나는 형상이다. 가로는 주로 하천과 인접하여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동숭동 일대에 가로패턴은 하천과 평행한 축에서 수직으로 낙산 방향으로 여러 개의 길이 뻗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가로패턴은 주로 자연 지형과 자연적인 요소에 대응하여, 유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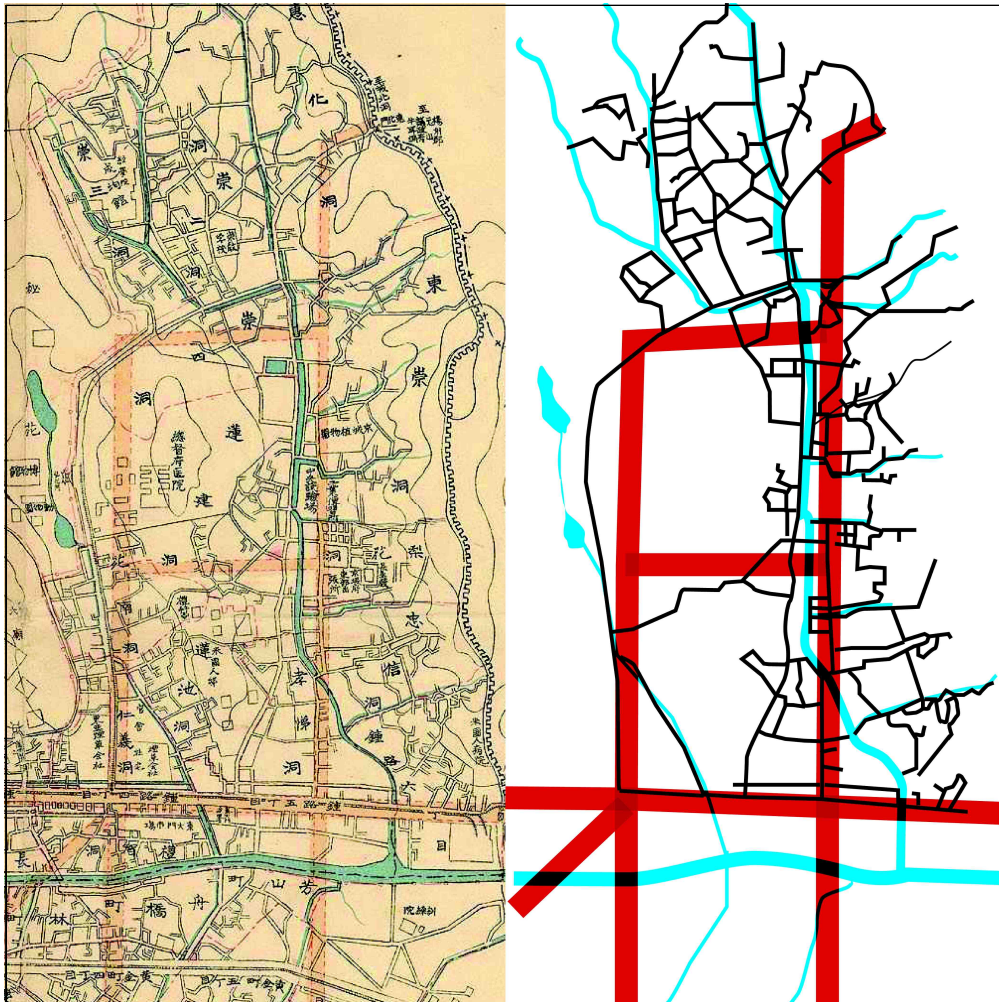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GIS포털서비스 지도전시관(gis.seoul.go.kr)

[그림 3-11] 수선전도(首善全圖)의 일부분, 1861

56) ‘수선(首善)’이란 『시경(詩經)』에 ‘건수선자경사시(建首善自京師始)’, 즉 으뜸가는 선(善)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따라서 ‘수선전도(首善全圖)’는 곧 ‘서울전도’를 의미한다. (출처: 서울시 GIS포털 시스템 지도전시관)

(1) 간선도로망의 형성

대학로 지역의 명칭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도시형태 요소는 대학로라 할 수 있다. [그림 3-12]는 현재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형태의 요소인 대학로가 생기기 이전 가로패턴을 잘 보여주는 도면이다. 해당 도면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과 경성부청에서 교열하고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에서 1914년에 편찬한 1:10,000 지도이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은 조선을 강점한 일본이 수탈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910년에 설치한 조선총독부 산하기관으로 한반도의 측지와 지도제작 사업에 주력했던 기관이다. 좌측 도면에 점선과 함께 주황색으로 투명하게 그려진 것이 바로 1912년 경성지구사업의 지구개수예정도로계획선(市區改修豫定道路計劃線)이다. 계획은 현재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 현재 창경궁로와 대학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아, 기능적으로는 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남쪽의 율곡로 역시 이때 계획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학로 지역에 곧게 뻗어 있는 대학로와 창경궁로 그리고 율곡로는 일제가 식민지 근대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도시구조 개편의 결과물로서 남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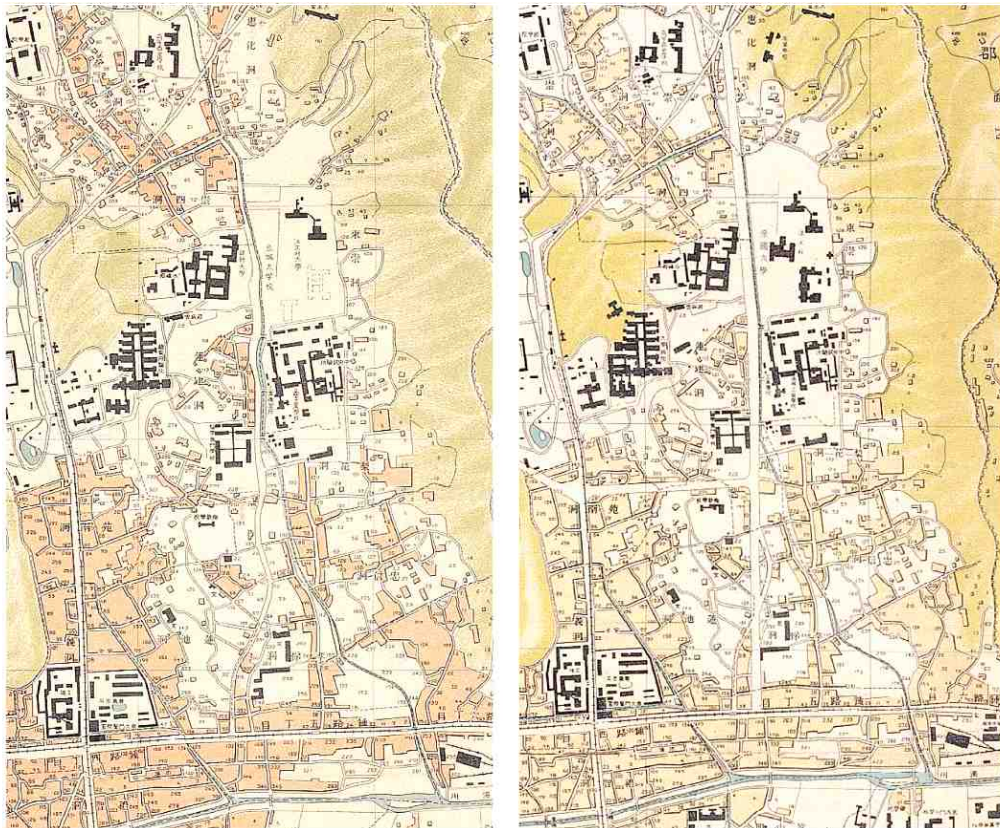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GIS포털서비스 지도전시관(gis.seoul.go.kr), 연구자가 재가공

[그림 3-12] 좌. 경성부명세신지도(京城府明細新地圖) 일부분, 1914 / 우. 가로망, 하천, 시구개수예정도로계획선 재구성

시구개정사업(市區改修事業)은 도시공간의 상징성을 해체하고 식민통치에 용이한 공간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일제의 식민지도시계획(colonial urban planning)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그림 3-14 참고) 시구개정이 단순한 가로의 확장과 신성, 블록의 정비에 불과했다는 의견⁵⁷⁾도 있지만, 대학로 지역에 한하여, 시구개정은 해당지역에 가장 큰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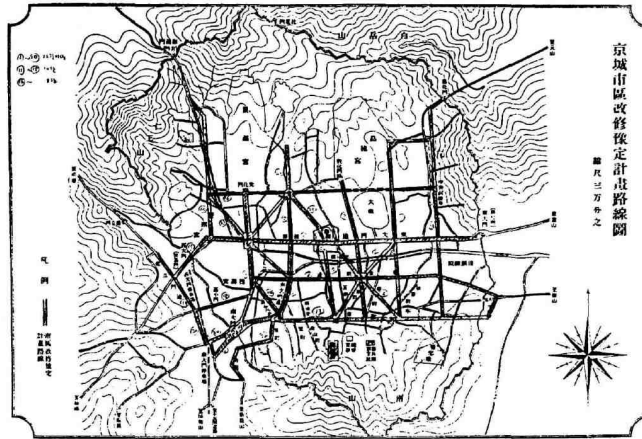
57) 박세훈,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15), 2000, p.168.

[그림 3-13]은 1927년과 1933년 작성된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의 일부분이다. 5년 사이 간선도로망의 획기적인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27년과 1933년 사이에 현재의 대학로라 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곧게 조성되었고, 현재의 을곡로 역시 동서로 조성되었다. 한편 대학로 일대 1927년 경성대학교(京城大學校)가 1933년에는 제국대학(帝國大學)으로 표기되어 있다.



자료: 서울시 GIS포털서비스 지도전시관(gis.seoul.go.kr)

[그림 3-13] 좌.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일부분, 1927 / 우.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일부분, 1933



자료: 김기호,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6, 1995, p.55.

[그림 3-14]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로선도(1912. 11. 6.)

(2) 동숭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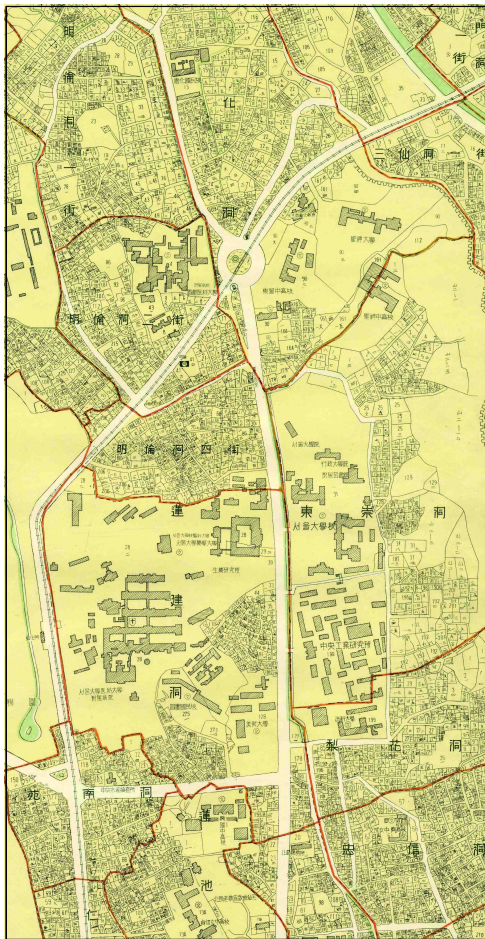
1950년 해방 이후 대학로 지역은 도시형태적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로서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1975년 이 지역에 도시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서울대학교 동숭동 캠퍼스가 관악산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그림 3-15 참고)



자료: 저자 미상, “서울대 캠퍼스 이삿길에,” 『경향신문』 (1975년 1월 20일, p.7).

[그림 3-15] 도서관의 집이 옮겨지면서 반세기의 긴격량의 막을 내린 동숭동 서울대 캠퍼스

[그림 3-16]는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이고, [그림 3-17]는 2010년 지적편집도이다. 서울대학교 동승캠퍼스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주변과 이질적인 가로패턴이 형성된다. (그림 3-14의 빗금친 부분 참고) 게다가 이 지역은 현재 가장 많은 공연장이 밀집한 지역이며, 대학로 상권의 핵심 영역으로 변모하였다.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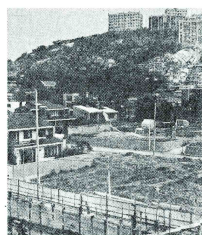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16]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

[그림 3-17]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

본래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말이 나왔었으나 당시 세찬 여론 때문에 당초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대신 단독주택지로 구획조성된다. 단, 몇몇 필

지에는 문화와 관련한 시설이 들어서기도 한다. 서울대 문리대의 교정이었던 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문화예술진흥원이 연극회관, 미술회관을 새로 건립하게 된다.⁵⁸⁾ (그림 3-18 참고)



舊서울大자리가 藝術의 거리로

畫廊·골동품商늘고 文藝회관공사도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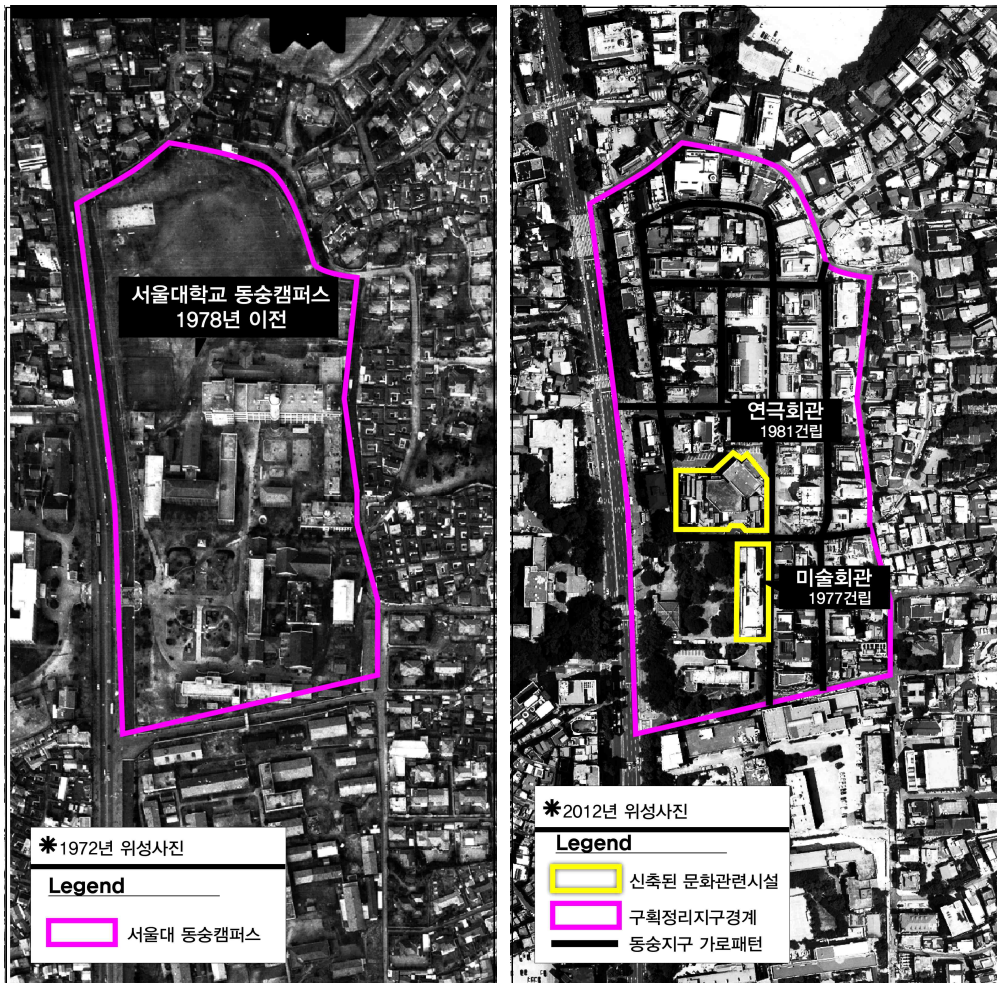
자료: 김담구, “구 서울대 자리가 예술의 거리로,” 『동아일보』 (1978년 9월 20일, p. 5).

[그림 3-18 구 서울대자리의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현장

[그림 3-19]은 서울대학교 동승캠퍼스가 이전하기 이전 1972년 위성사진과 2012년 현재 위성사진을 비교한 것이다. 주변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던 대학 캠퍼스가 없어지고, 격자와 루프가 혼합된 가로패턴이 만들어졌다. 현재 대학로의 이면도로 주변은 일반적인 방식인 ‘등을 서로 맞댄(back to back)’ 필지 분할 방식을 취했고, 대학로 변과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동쪽과 북쪽 경계부에 조성된 필지는 앞뒤로 도로와 접하는 분할방식을 취했다.

서울대 동승동 캠퍼스와 현재 대학로 동승지구에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도시 형태 요소는 단 두가지만 남아 있는데, 첫째는 문리대 정원으로 쓰이던 곳이 현재는 마로니에공원으로 쓰이고 있고, 두 번째로 마로니에공원 남쪽에 있는 서울대본부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문예진흥원의 예술가의 집으로 쓰이고 있으며,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과 함께 마로니에 공원을 마주보며 문화와 관련한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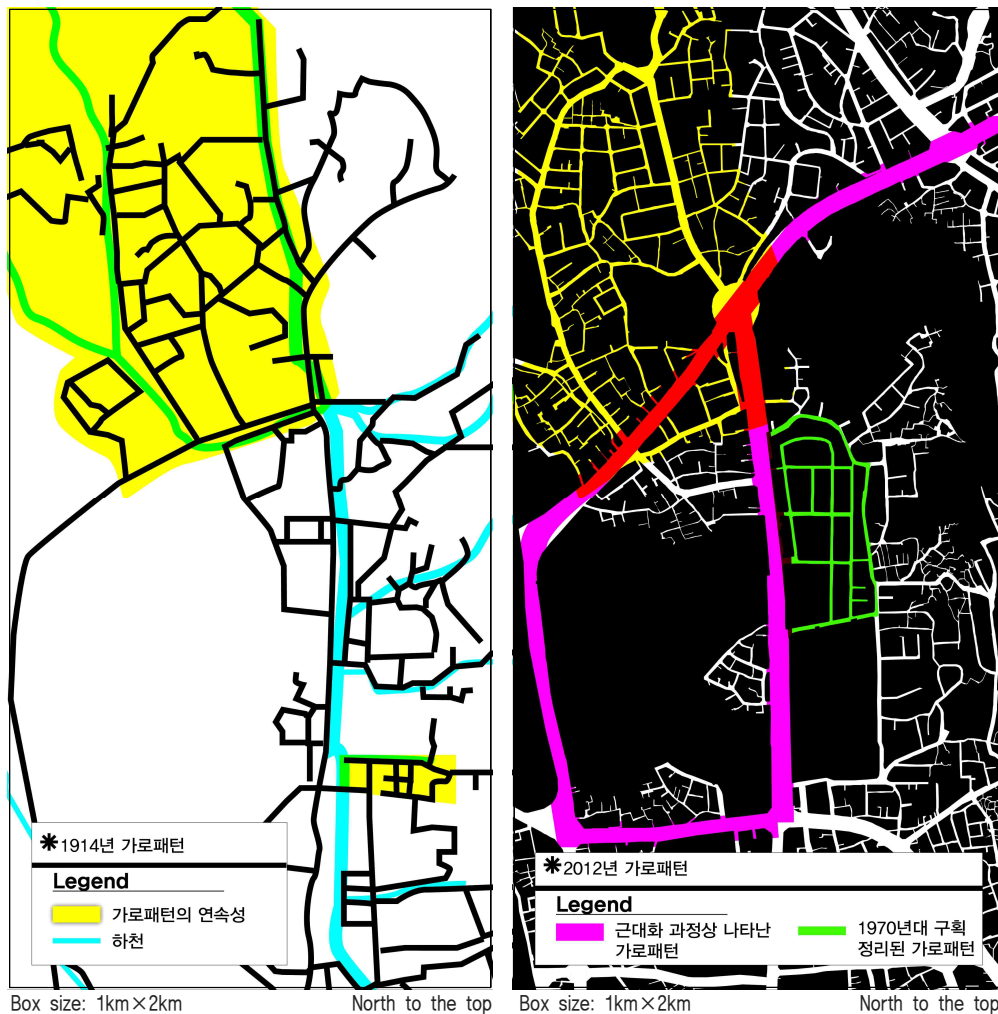
58) 김담구, “구 서울대 자리가 예술의 거리로,” 『동아일보』 (1978년 9월 20일, p. 5).



자료: gis.seoul.go.kr(좌), vworld.map.kr(우)

[그림 3-19] 대학로 지역 동송동 일대 동송지구 1972년, 2012년 위성 사진 비교

[그림 3-20]은 대학로 지역의 가로패턴의 변화 중 주요한 사항들을 표현 한 것이다. 대학로 지역 전체를 가로패턴의 변화에 입각하여 분류 하였다. 북쪽 지역은 전통적인 도시조직을 비교적 영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예전에 하천이었던 곳이 가로패턴의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대학로 지역의 간선도로망은 일제에 의해 서울이 근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성된 것이고, 대학로 서쪽의 동송지구는 1970년대 대학교 캠퍼스의 이전으로 조성된 것이다.



자료: 연구자 재구성

[그림 3-20] 1914년 2012년 대학로 지역 가로패턴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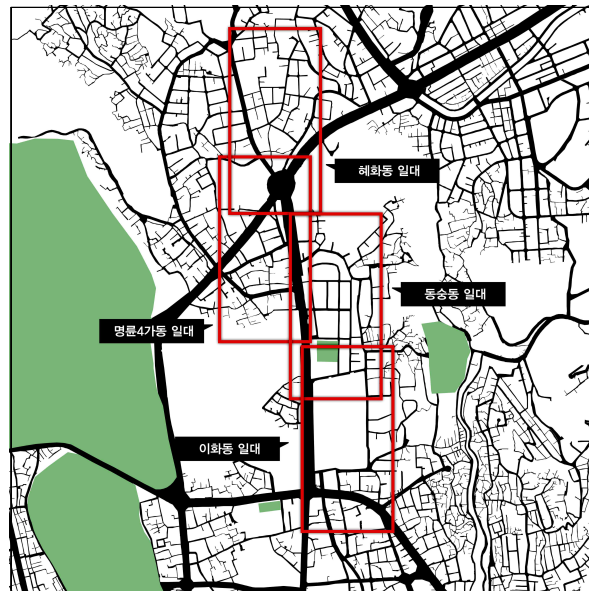
대학로 지역의 가로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그리고 현대(1970)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시대의 가로패턴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대별로 조성된 도로의 규모나 의도한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세 가지의 가로패턴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대학로 지역 필지 유형의 변화 과정

앞서 살펴본 가로패턴의 변화는 도시영역 내 공공공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기간시설망(capital web)이라 할 수 있다. 사적 영역에서 도시형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필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필지의 유형 변화는 가로패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대학로 지역을 크게 네 개의 구역을 나누어 법정동⁵⁹⁾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필지는 분필보다 합필이 주로 이루어진다. 필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법은 1966년 작성된 지적도와 2010년 지적편집도를 가시적으로 비교하면서, 필지의 합필을 표기하는 것이다. 단 1978년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동숭동 일대의 경우는 1987년 작성된 지적도와 2010년 지적편집도를 비교하도록 한다.

필지 유형의 변화를 비교 할 권역 현황은 [그림 3-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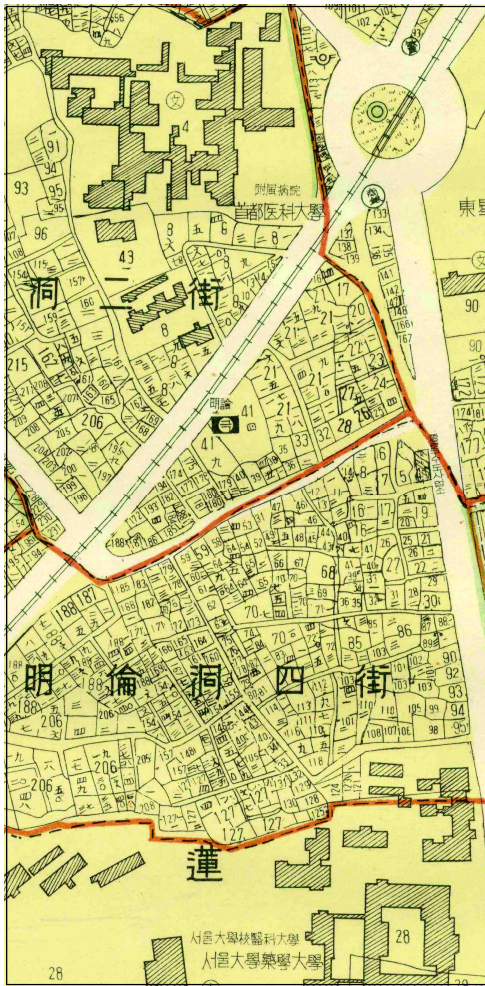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21] 필지 유형의 변화 권역별 구역도

59) 대학로 지역에 해당하는 법정동은 명륜1,2,3,4가동,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명륜4가동 일대의 필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22, 그림 3-23 참고) 이 지역은 1966년 과거 가로패턴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1966년의 필지 유형에서 변화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지역 일대는 과거 한옥이 밀집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동숭지구와 연결된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주택보다는 상업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한 곳이다.



자료: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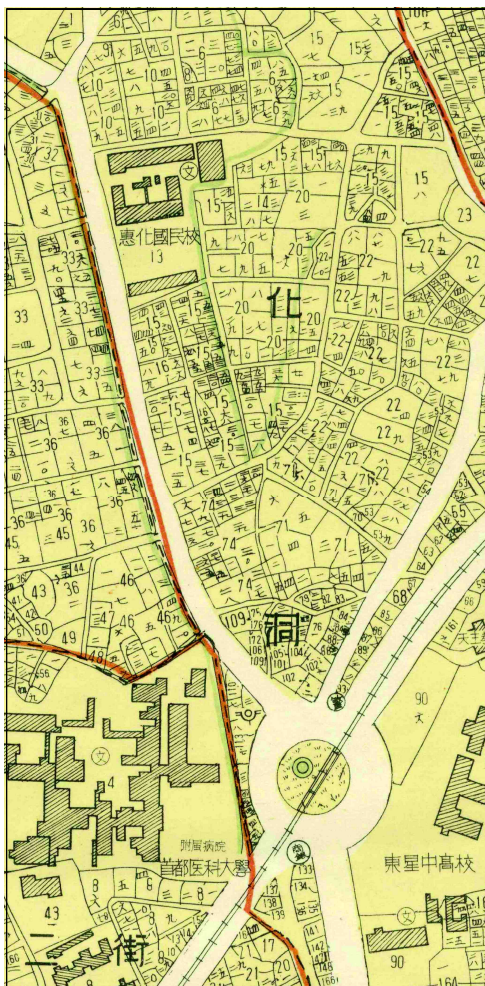
[그림 3-22]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명륜4가동 일대)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23]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명륜4가동 일대)

[그림 3-24]와 [그림 3-25]는 혜화 로터리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혜화로 일대의 필지 유형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다. 혜화로터리 주변과 창경궁로 주변의 일부 필지가 합필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명륜교회가 위치한 필지(명륜1가 46-7)이다. 해당 필지는 과거 11개의 필지가 1개 필지로 합필이 이루졌다. 이 구역의 필지들은 대부분 장방형을 띄고 있으며, 가로패턴이 격자인 곳에서는 합필의 흔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자료: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그림 3-24]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혜화로 주변 일대)



자료: 서울시 GI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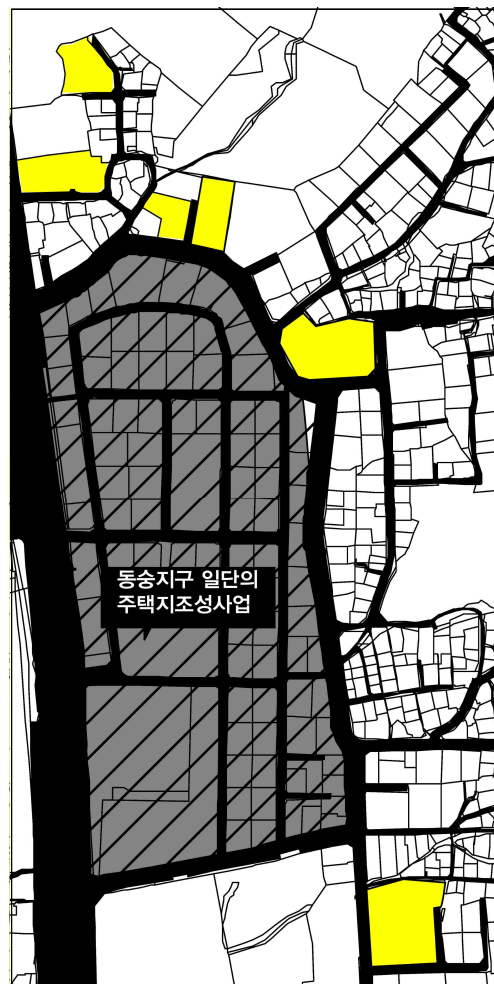
[그림 3-25]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혜화로 주변 일대)

동송지구는 앞서 밝혔듯이 일련의주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림 3-26]과 [그림 3-27]은 동송지구 주변 필지 유형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동송지구 북쪽 경계 영역의 필지들의 합필이 다수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일대는 1985년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이 개통되면서, 개발압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합필된 필지에는 모두 공연장을 보유한 복합시설이 입지했다는 사실이다.



자료: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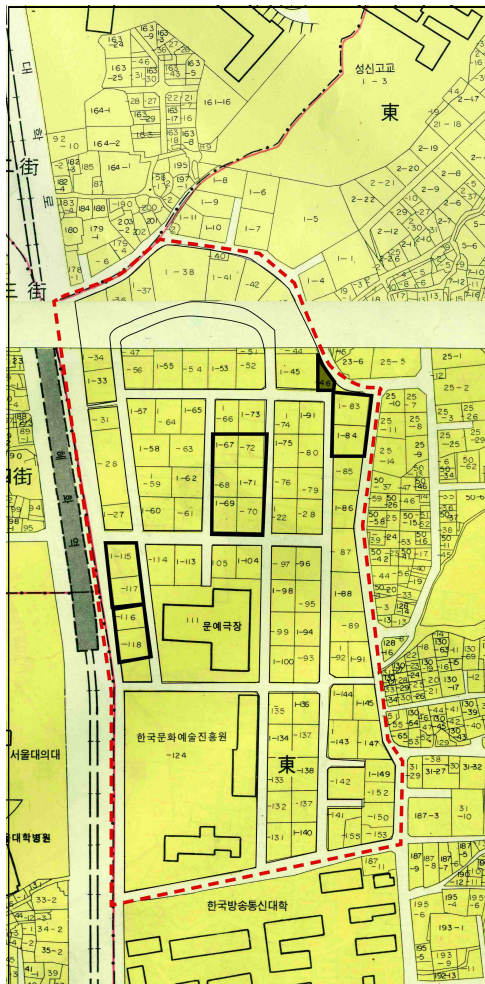
[그림 3-26]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송지구 일대)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27]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송지구 일대)

[그림 3-28]과 [그림 3-29]는 동숭지구 내부의 필지 유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필지가 구획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숭지구 한 가운데, 주차장으로 쓰이던 동숭동 1-67등 5개의 필지가 2009년 공공에 의해 대학로예술극장으로 개발되어 주변의 필지 보다 약 5배의 규모로 합필되었다. 최근 들어, 동숭지구 내에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 시설의 재건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자료: 저자 미상(1987). 『서울특별시 지번 안내도』. 서울: 한국지도.

[그림 3-28] 1987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29]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숭지구 일대)

이화동 일대 역시 방송통신대학교의 경계 부 일대에 크고 작은 규모의 합필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개관한 대학로예술마당의 경우 6개의 필지가 1개로 합필되어, 개발된 것이 이 지역 일대의 가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30] 1966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이화동 일대) [그림 3-31] 2010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이화동 일대)

대학로 지역의 필지 유형의 변화를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급속한 상업화에도 불구하고 합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심부와 달리 대학로 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용

적률이 낮으므로 전체적으로 합필에 의한 개발이 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합필된 필지에 공연장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로 지역은 2004년 이후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공연시설의 입지를 장려하는 정책을 받고 있다. 특히 공연시설을 갖는 건물은 층수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합필개발이 이루어진 필지에는 거의 대부분 공연장이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종교시설에도 공연장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3-32 참고)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32] 구역별 합필된 필지의 유형 비교

3. 대학로 지역 건축물의 변화과정

(1)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분석

건축물의 변화는 도시형태 요소 중 가로패턴이나 필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용도의 변화가 가장 쉽게 일어나지만, 이는 빗물리적인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변화는 물리적인 요소 중 가장 변화양상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변화를 파악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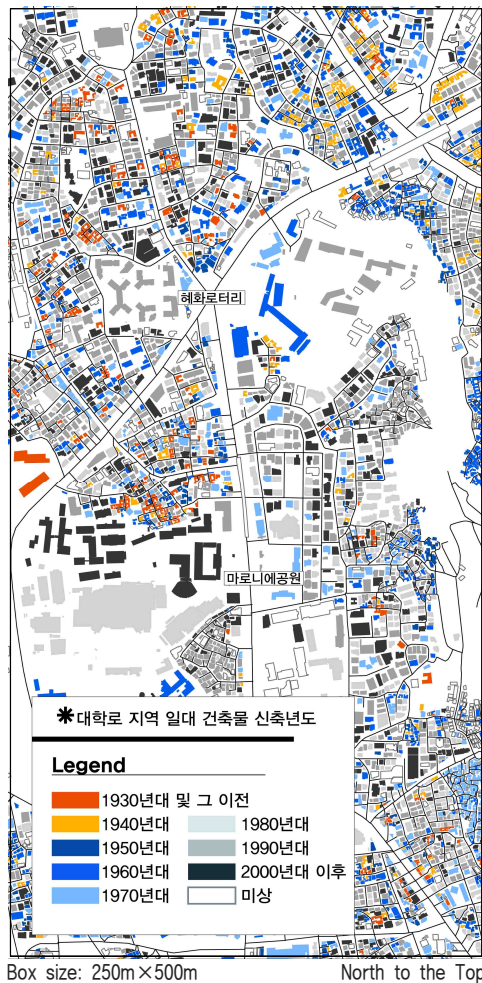
건축물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현재 시점의 건축물 신축년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림 3-33]은 대학로 지역 일대 건축물 신축년도 현황이고, [그림 3-34]는 동숭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1978년 즈음을 기준으로 1970년대 이전 건축물과 1980년대 이후 건축물을 두 가지 범례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그림 3-33]을 자세히 보면, 대학로 지역에는 근대이전의 건축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로패턴이 남아 있는 명륜4가동과 혜화동(행정동) 일대에는 1940년대 이전의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대학로 상권이나 공연장이 밀집한 지역과는 분리되어 분포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대부분의 예전 건축물들은 대학로의 지역의 상권이나 공연장이 요구하는 용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3-34]는 1980년 이후 대학로 지역의 개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서울대학교 동숭캠퍼스가 이전 한 후 주변 지역은 다수의 건축물이 1980년대 이후 재건축되었으며, 낙산공원 가까운 곳에는 아직 1970년대 이전 건축물이 남아 있다. 대학로 건너 명륜4가 상권의 경우 대명길과 창경궁가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의 1980년대 이후 재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 일대가 상업화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오히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북쪽 경계에 인접한 구역에는 1980년대 이후 재건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대학로 상권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최근들어 공연장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인 창경궁로 북쪽 혜화로 주변에는 이 면도로를 중심으로 옛 건축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한옥이다. 추후에 이 지역에 공연장과 그와 관련한 상업용도의 기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의 건축형태도 동숭동 일대와 마찬가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33]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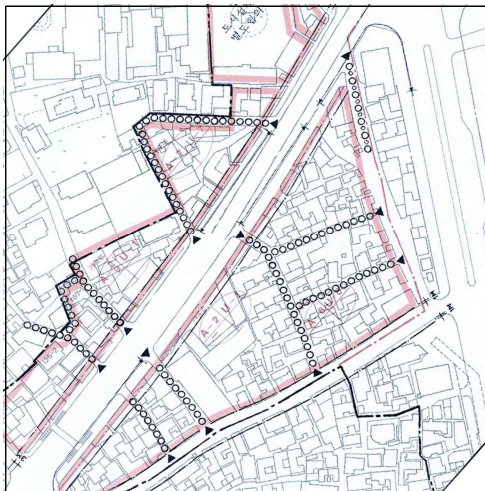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34] 대학로 지역 건축물 신축년도
(이분할)

(2) 1985년과 2010년 건축물 형태 비교

[그림 3-35]는 1985년에 작성된 지구단위계획도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그림 3-26]은 현재 건축물 현황과 신축년도를 표기한 것이다. 현황도 위에 도시설계 선을 그려냈지만, 1985년 당시 건축물의 형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명륜4가동 대명거리 일대 1985년과 2010년의 건축물 배치를 비교해보면, 1970년대 이전의 건축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도시설계구역 경계 밖에 대명길 남쪽 일대에는 여전히 1970년대 이전 건축물이 다수 남아 있다. 대명길 주변에는 양 옆으로 작고 낮은 건축물들이 파사드(facade)를 이루며 가로 활력을 더하고 있다. 공연장의 경우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축된 건축물에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ox size: 250m×25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특별시(1985). 『대학로·율곡로 도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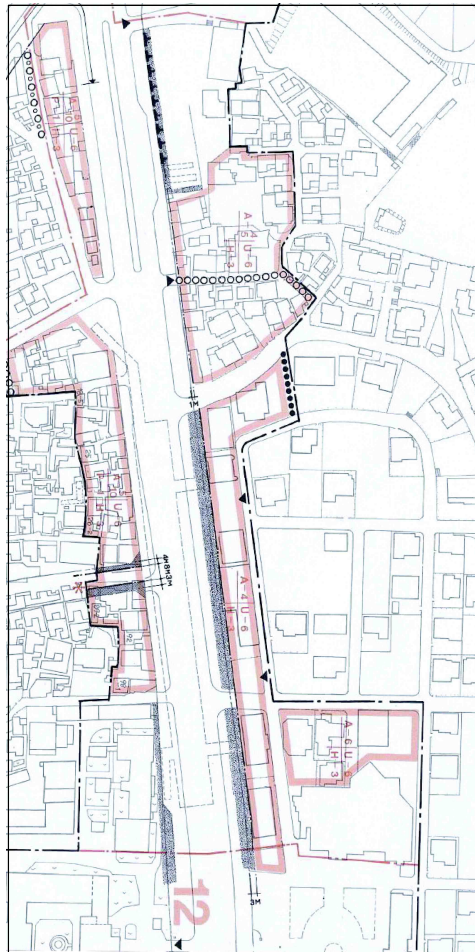
Box size: 250m×25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35] 1985년 명륜4가동 건축물 배치

[그림 3-36] 2010년 명륜4가동 건축물 배치

[그림 3-37]과 [그림 3-38]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로 주변의 건축물 배치를 비교한 것이다. 대학로를 기준으로 서쪽은 1985년과 2010년 사이 건축물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학로 동쪽 동숭동 일대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 건축물로 조사되었는데, 동숭지구 일대가 상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의 압력을 받아 왔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Box size: 250m×50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특별시(1985). 『대학로·율곡로 도시 설계』

[그림 3-37] 1985년 대학로 주변 건축물 배치



Box size: 250m×50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시 GIS DATA

[그림 3-38] 2010년 대학로 주변 건축물 배치

(3) 대학로 지역 멸실 건축물: 낙산시민아파트

대학로 지역의 건축물 변화 과정 중 특별 한 것은 낙산 위에 존재하던 29동의 낙산시민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건축물이 아닌 공원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림 3-39]는 1987년 지적도인데, 낙산시민아파트의 배치가 눈에 띈다. 그리고

[그림 3-40]은 같은 위치의 2010년 건축물의 배치 및 공원을 나타낸 도면이다.

낙산은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사산(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의 하나로 풍수지리상 주산인 북악산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산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환경

과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낙산은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부분 파괴·소실되었고 특히 60년대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도시 계획으로 인해 아파트와 주택이 낙산을 잠식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역사적 유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낙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녹지축과의 연결을 도모하면서 낙산의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낙산은 산 모양이 낙타의 등처럼 생겼다.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은 내사산의 하나다. 또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아 동촌(東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20m의 나지막 한 야산이지만 서울도심 한복판을 굽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다. 2002년 낙산을 뒤덮고 있던 낡은 아파트 30동과 주택 176채를 철거하고 4만6000평의 낙산공원을 조성한다. 낙산공원은 전 조순시장에게 정홍진 구청장이 건의하여 서울시 녹화사업 제1호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붕괴 직전에 있는 낙산, 동숭아파트를 철거하여 성곽을 복원하고 공원을 만든 사례이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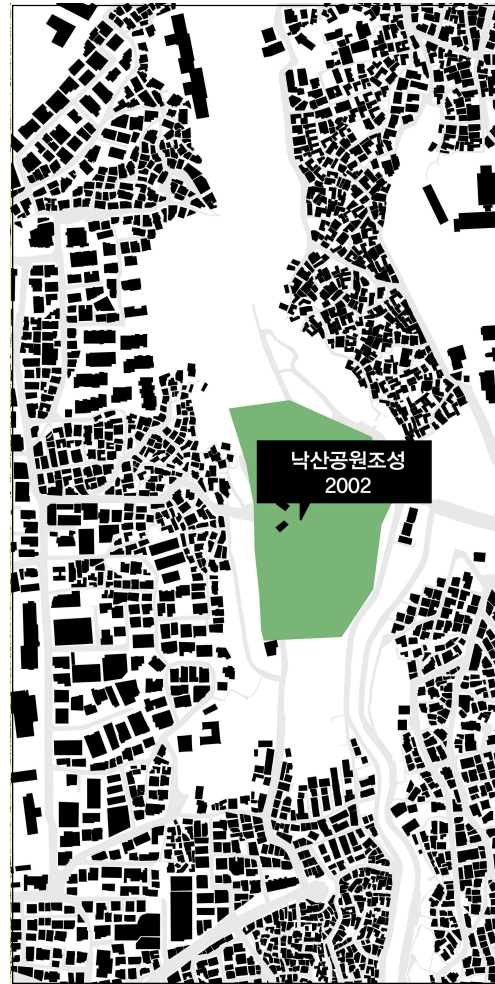
60) 제4대 제126회 제3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오필근 의원 구정질문 중. (2002년 10월 19일)



Box size: 500m×1000m North to the top

자료: 저자 미상(1987). 『서울특별시 지번 안내도』. 서울: 한국지도.

[그림 3-39] 1987년 대학로 지역
지적도(동송지구 일대)



Box size: 500m×100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시 GIS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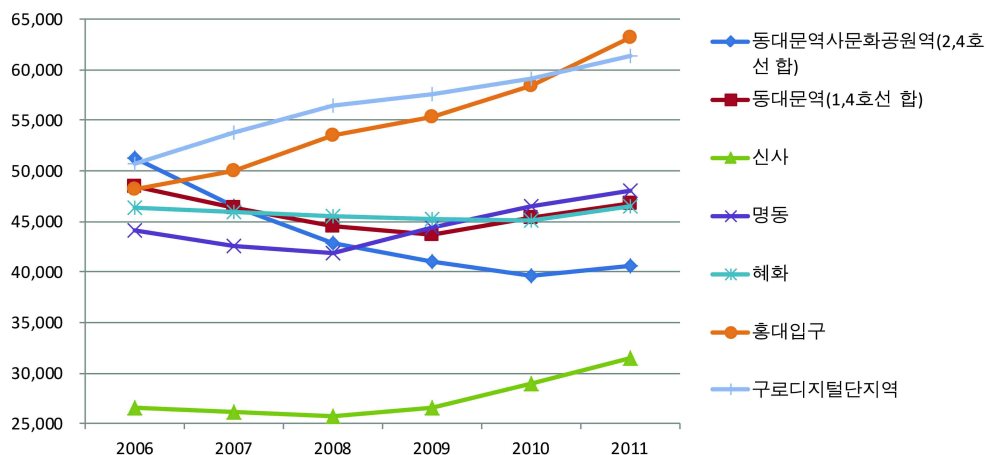
[그림 3-40] 2010년 대학로 지역 건축물 및
가로망(동송지구 일대)

4. 토지이용의 변화과정

(1) 대학로 지역 용도지역/지구 현황

대학로 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은 대학로 지역의 토지이용을 가장 크게 제어하는 요인이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성격 뿐만 아니라, 개발의 밀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학로 지역의 용도지역은 창경궁로 도로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주요 상권과 비슷한 수준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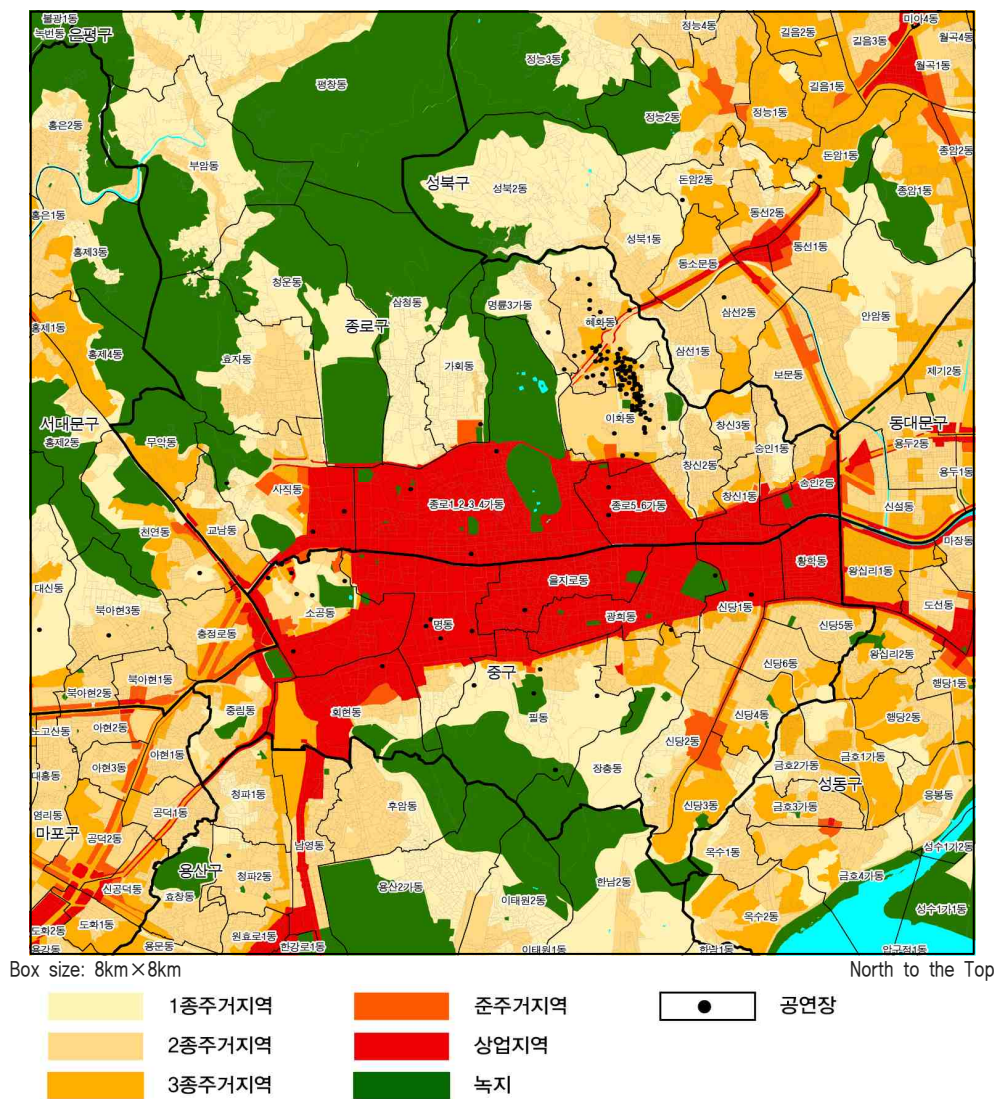
[도표 3-5]은 서울시내 대학로와 주요 상권 및 오피스타운의 지하철 하차인원 추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혜화역과 비슷한 수준의 하차인원을 가진 지하철역이 명동 그리고 동대문이다. 이 두 지역은 서울시내에서 손꼽히는 상권이기도 하지만, 용도지역제 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대학로와 비교했을 때, 개발의 밀도의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오히려 대학로와 비슷한 토지이용패턴을 갖고 있는 곳은 신사역 일대 이다. 이 지역은 최근 도산대로13길(가로수길)주변으로 급격히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로(도산대로)변을 제외하고는 고밀 개발이 불가능 하다. 하지만 신사역의 하차인원은 혜화역의 절반 수준이다.



자료: 서울메트로 지하철 하차인원

[도표 3-5] 서울시내 주요상권 지하철역 하차인원 추이(2006-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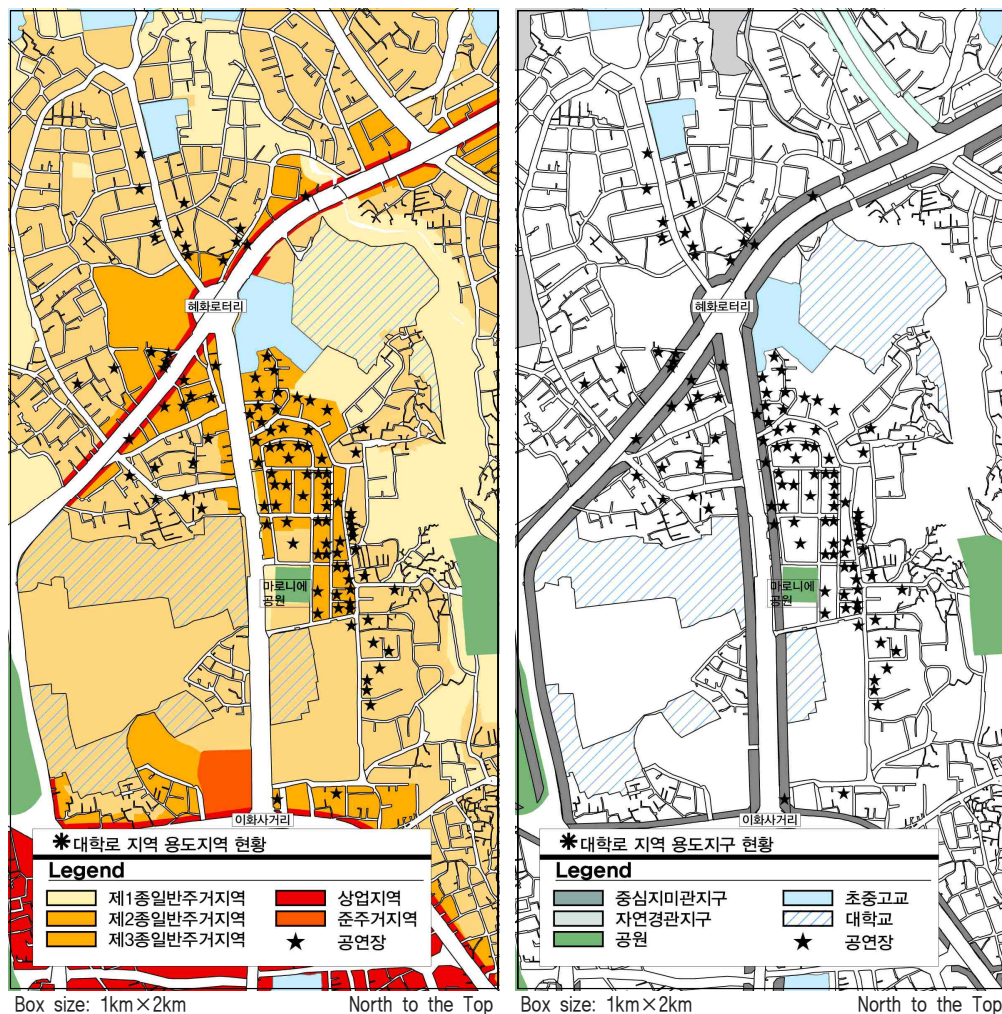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대학로 지역에는 사람들을 수용 할 수 있는 넓은 연면적의 건축물이 아닌,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강력한 집객기능을 가진 어떤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로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3-41]는 서울시 도심부 일대 용도지역지정 현황과 공연장의 입지를 나타낸 도면이다.



자료: 서울시GIS(용도지역), 문화체육관광부(공연장 분포)

[그림 3-41] 종로구와 중구 일대 토지이용계획 및 공연장 분포도

공연장의 집중적으로 밀집하여 분포된 것으로 보아, 공연장의 집객기능이 용도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2]은 대학로 지역 일대 도시계획상황(용도지역, 용도지구)이다. 혜화동 로터리를 동서로 과통하는 창경궁로 주변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연장이 밀집한 동숭지구나, 대학로 서쪽편 명륜동 그리고 혜화로터리 북쪽은 제3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지구 지정상황을 보면, 창경궁로와 대학로 주변에 중심지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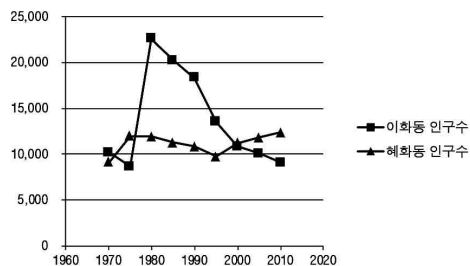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GIS(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림 3-42]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대학로 지역의 상업화

1) 인구 변화

대학로 지역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구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겠다. 동숭동 일대에 1978년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주택용지가 대거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1975년과 1980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동숭동의 주민등록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도표 3-6 및 표 3-4 참고) 이는 이 지역의 주택들이 상업용도로 전환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혜화동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을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혜화로터리 서쪽에 고려대학병원 부지에 아남1차아파트(436세대, 1995년 입주), 아남2차아파트(65세대, 1996년 입주) 그리고 아남3차아파트(136세대, 1999년 입주)가 건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도표 3-6, 표 3-5, 6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도표 3-6] 대학로 지역 행정동 인구 추이

[표 3-4] 대학로지역 일대 행정동 및 자치구

	면적 (km2)	구성비 (%)	법정동 (개수)
종로구	23.91	100	18
이화동	0.78	3.26	3
혜화동	0.7	2.93	4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3-5] 아남아파트 건축년 도 및 세대수

	입주년도	세대수
아남1차아파트	1995	436
아남2차아파트	1996	65
아남3차아파트	1999	136

자료: 네이버 부동산

[표 3-6] 이화동과 동숭동의 주민등록 인구 및 증감율 추이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이화동(명)	10,149	8,613	22,579	20,240	18,335	13,506	10,804	10,064	9,082
증감율(%)	N/A	-15.1	162.1	-10.3	-9.41	-26.3	-20.0	-6.85	-9.76
혜화동(명)	9,127	11,990	11,922	11,279	10,829	9,734	11,207	11,829	12,347
증감율(%)	N/A	54.2	-12.3	-9.1	-8.46	-21.7	-11.1	-8.7	-1.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2) 상권 임대료 변화

상업화에 관한 가장 실질적인 지표는 상권의 임대료와 관련한 자료들이다. 대학로 지역 상권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급격히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상가의 평당 임대료가 300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3 참고) 행정동 별 상가 매매가격을 보면, 동숭동 상권이 지난 6년간 급속도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4 참고)



서울 소재 행정구역별 상가 평균 매매가격				
순위	2006년		2012년	
1	신천동	8024만 원	용산동3가	1억600만 원
2	용산동3가	7683만 원	동숭동	8000만 원
3	잠실동	7591만 원	명동	7696만 원
4	명동	7463만 원	한강로3가	7338만 원
5	이촌동	6198만 원	한강로1가	7265만 원
6	동숭동	5333만 원	반포동	7026만 원
평균	서울 평균	2364만 원	서울 평균	2886만 원

※ 기준: 1층 3.3㎡ 자료: 부동산114

자료: 점포라인

자료: 부동산114

[그림 3-43] 대학로 상권거래 가격 변화

[그림 3-44] 서울 소재 행정구역별 상가 평균 매매가격

대학로 지역 상권은 혜화역 역세권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로를 기준으로 동쪽의 동숭동(행정동으로는 이화동의 일부분) 일대보다, 대학로 서쪽의 혜화동(명륜2가, 4가) 일대의 점포임대시세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혜화동 일대는 성균관대학교 앞 대학가 상권과 인접해 있어서 정기적인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 상대적으로 이화동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8, 표 3-9, 표 3-10 참고)

[표 3-7] 혜화역 점포평균 임대시세

급지	층수	면적	보증금(만원)	월임대료(만원)
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6,200	150
	1층	33.058m ²	8,500	200
	지하	33.058m ²	5,000	120
비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3,700	90
	1층	33.058m ²	5,100	120
	지하	33.058m ²	3,900	70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DB 2011.09.27.기준

[표 3-8] 이화동 점포평균 임대시세

급지	층수	면적	보증금(만원)	월임대료(만원)
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5,900	140
	1층	33.058m ²	7,700	180
	지하	33.058m ²	4,800	110
비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3,500	80
	1층	33.058m ²	4,500	110
	지하	33.058m ²	2,800	70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DB 2011.09.27.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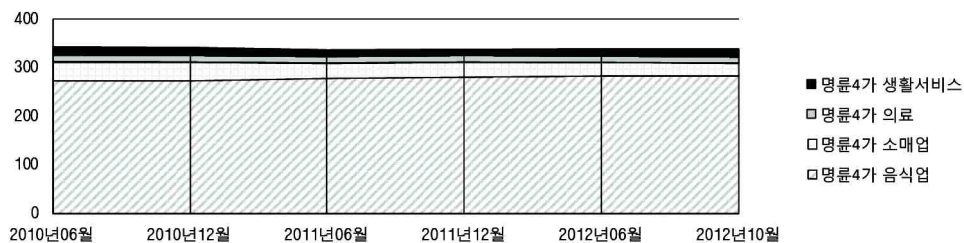
[표 3-9] 해화동 점포평균 임대시세

급지	층수	도로유형	규모	월임대료(만원)
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6,100	140
	1층	33.058m ²	7,900	180
	지하	33.058m ²	4,900	110
비활성화지역	2층	33.058m ²	3,500	80
	1층	33.058m ²	4,600	110
	지하	33.058m ²	2,800	70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조사 DB 2011.09.27.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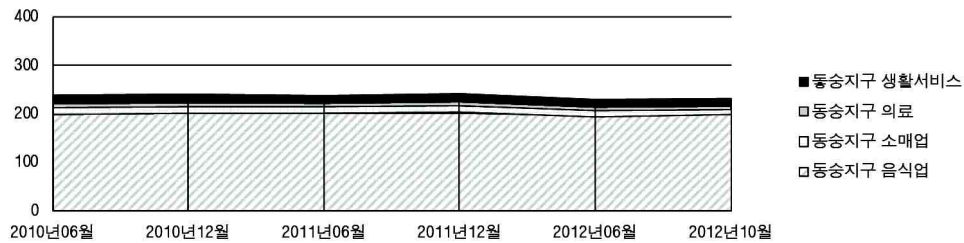
(3) 상업화의 성격

대학로 지역의 상업시설들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로를 기준으로 서쪽의 명륜4가 상권과 동숭지구로 나누어서 업종 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명륜4가와 동숭지구 모두 음식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명륜4가의 경우 음식업에 이어 소매업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숭지구의 경우에는 생활서비스가 음식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표 3-3 및 도표 3-4 참고)



자료: 한국소상공인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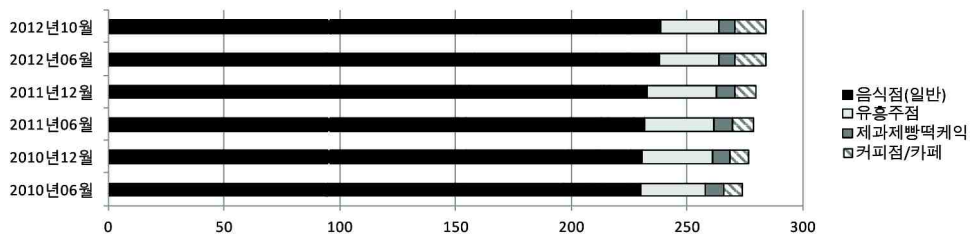
[도표 3-7] 명륜4가 연구대상지 업종 별 추이



자료: 한국소상공인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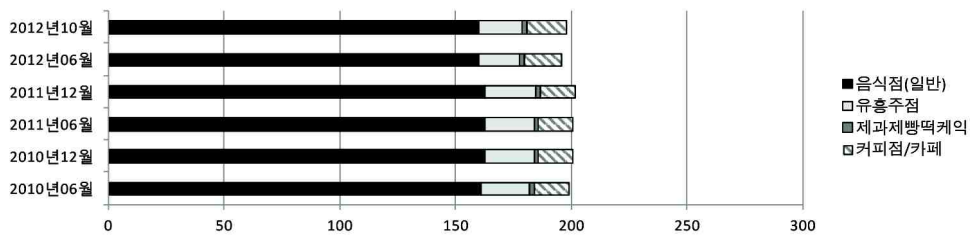
[도표 3-8] 동송지구 연구대상지 업종 별 추이

명륜4가와 동송지구의 음식업 세분류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곳 모두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유흥주점이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차이점은 동송지구 일대에 카페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3-5 및 도표 3-6 참고)



자료: 한국소상공인진흥원

[도표 3-9] 명륜4가 음식업 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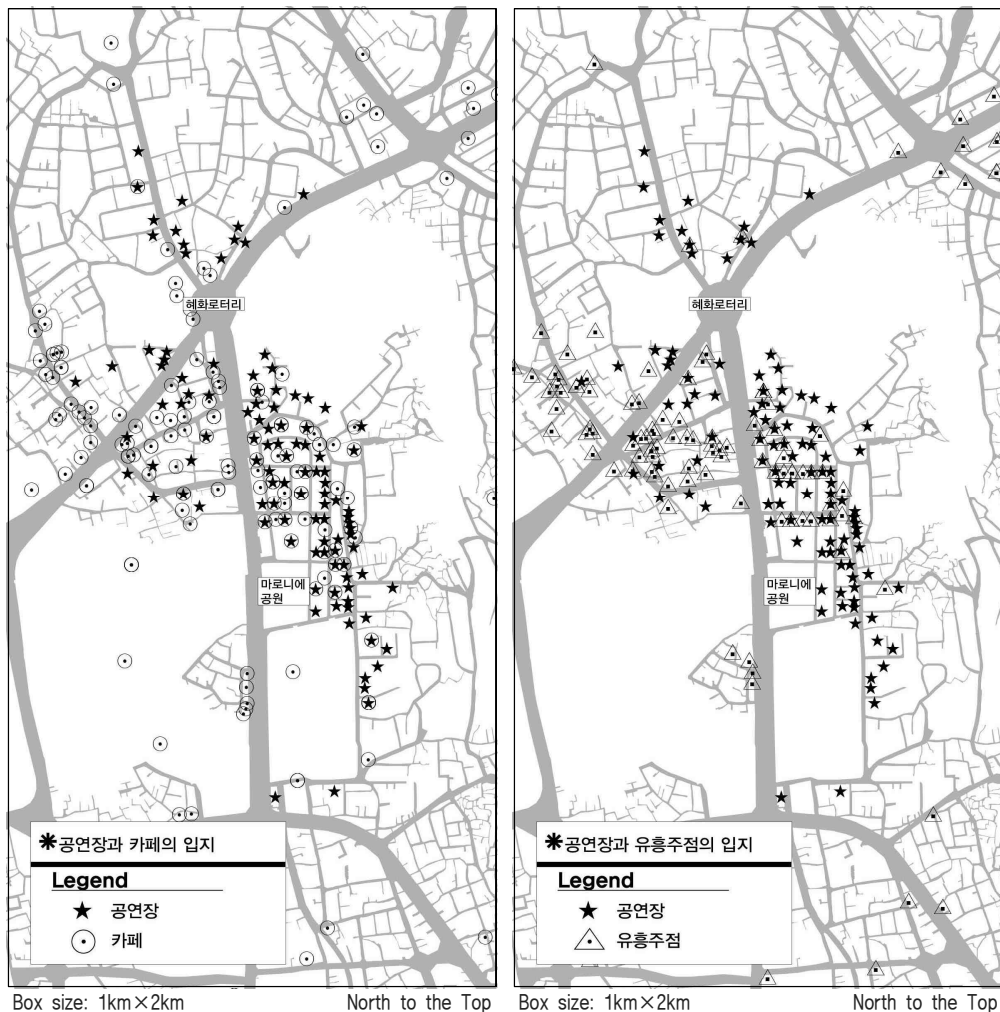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상공인진흥원

[도표 3-10] 동송지구 음식업 세분류

공연장에서 공연은 대부분 저녁시간에 상연된다.(평일: 오후 8시, 주말: 낮 공연과 저녁 공연 2회) 따라서, 공연관람 전 후에 필연적으로 식사, 카페, 음주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이와 관련하여 [그림 3-45]는 명륜4가 상권과 동숭지구 상권의 주요 업종 현황과 공연장의 입지를 도면에 표기 한 것이다. 공연장의 분포와 카페의 분포를 살펴보면 비교적 서로 인접하여 입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45 좌측 도면 참고) 유흥주점과 공연장의 분포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유흥주점의 경우 주로 명륜4가 상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숭지구의 경우 중심부에만 입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혜화로터리 북쪽 혜화로 주변에는 유흥주점이 전무하다.



자료: 서울시 소상공인진흥원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45] 공연장과 관련한 소비업종과 공연장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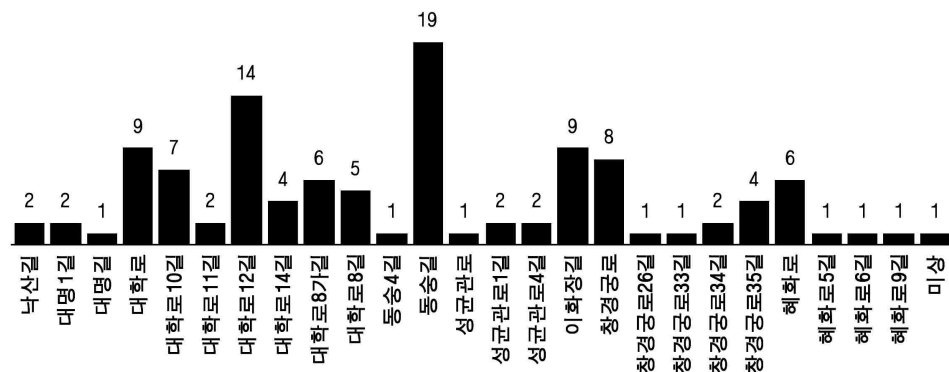
제3절 대학로 지역 공연장과 도시형태와의 관계

1. 공연장의 입지와 도시형태와의 관계

(1) 공연장의 입지와 가로의 특성과의 관계

1) 공연장의 입지와 도로의 종류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은 어떤 길 주변에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가? 공연장들이 입지해 있는 필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접한 길은 ‘동송길’이다. 동송길은 혜화역 1번 출구에서부터, 동송지구를 ‘ㄱ’자로 관통하는 도로인데, 무려 19개의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가 이 도로에 접해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대학로 12길로서 대학로에서 세 블록 안쪽에 위치한 도로이다. 14개의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가 대학로 12길에 접해 있다. 반면에 이 지역의 중심인 대학로에 면한 필지 중 공연장이 입지한 곳은 9개에 불과하다. (도표 3-11 참고)



자료: 연구자

[도표 3-11] 도로별로 접해 있는 공연장(필지 기준) 개수

2) 공연장의 입지와 접도 유형

대학로 지역의 가로패턴은 이른바 골목길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가로패턴과 2켜의 장방형 블록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가로패턴을 갖고 있다.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중 하나의 면만 접한 곳이 전체의 44%이며, 두

개의 면이 접한 곳은 37%이다. 대학로 이면 가로에 위치한 규모가 큰 몇몇 공연장은 3면이 도로로 둘러 쌓인 경우도 확인된다. (도표 3-12 참고)



자료: 연구자

[도표 3-12 대학로 공연장의 접도 유형

3) 공연장의 입지와 도로 폭

다양한 가로패턴이 존재하는 대학로 지역에는 폭원이 5m이하의 골목길에서부터 왕복 6차선의 35m이상의 간선도로까지 다양한 규모의 도로가 존재한다.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는 5m이상 10m이하의 도로에 가장 많이 접해 있다. 전체의 59%이다. 5m이하의 도로에도 18%의 필지가 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표 3-13 참고)



자료: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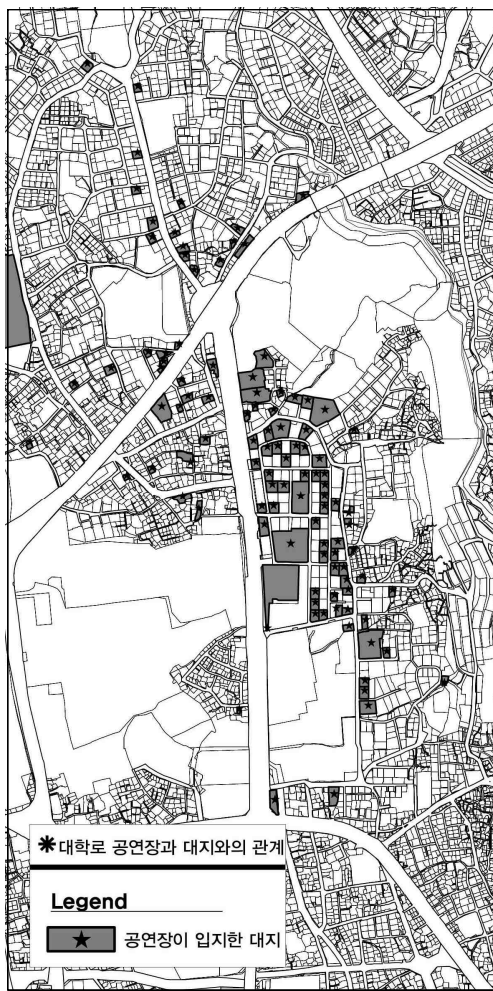
[도표 3-13] 대학로 공연장들이 접하고 있는 도로의 규모

공연장의 입지와 가로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공연장이 대학로로부터 3~4블럭 떨어진 10m이하 이면도로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극장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대학로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가나 임대료가 낮은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연장의 입지와 필지 유형과의 관계

1) 공연장의 입지와 필지의 규모

[그림 3-46]은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를 매핑한 것이다. 동송지구 일대의 거의 대부분의 필지에 공연장이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7] 필지의 규모를 분류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200제곱미터 이상 8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필지에 입지해 있다.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자료: 연구자

[그림 3-46]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Box size: 500m×10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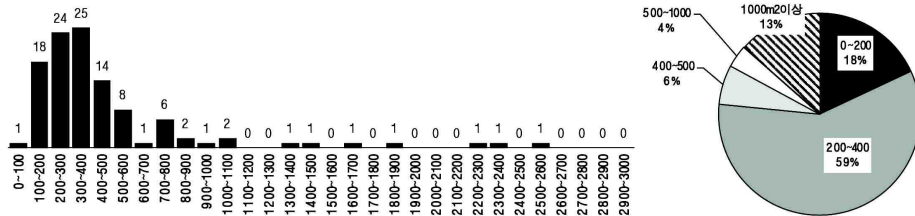
North to the Top

자료: 연구자

[그림 3-47]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규모별)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제곱미터이상 400제

곱미터 이하의 필지가 전체 49개로 전체의 59%를 차지 하고 있다. (도표 3-14 참고)



자료: 연구자

[도표 3-14]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규모별 빈도수

2. 공연장 특성과 도시형태와의 관계

(1) 공연장의 유형과 건축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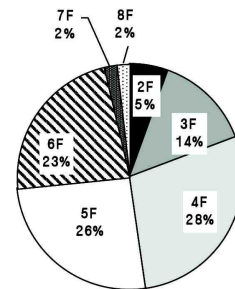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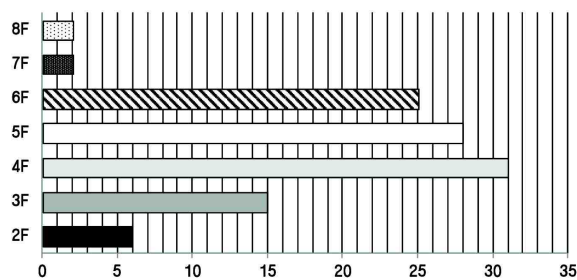
공연장의 특성과 건축물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타 용도와 함께 하나의 건축물에 위치한 것과 건축물 자체가 공연장인 경우이다. 건축물 자체가 공연장 역할을 하는 경우는, 아르코예술극장과 동숭아트센터가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들은 모두 198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각각이 대극장과 소극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들은 대부분 타 용도와 혼합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들은 적개는 1개에서 많게는 4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3-11]은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을 보유한 건축물의 층수와 공연장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공연장과 건축물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유형은 4층 건물에 1개층을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전체의 25.2%)이다. (표 3-10, 도표 3-15 참고)

[표 3-10] 건축물 내에 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율

공연장 개수 \ 층수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1개(백분율%)	6(5.41)	13(11.71)	28(25.2)	18(16)	16(14.4)	1(0.9)	1(0.9)
2개(백분율%)	.	2(1.8)	2(1.8)	6(5.4)	5(4.5)	.	1(0.9)
3개(백분율%)	.	.	1(0.9)	5(4.5)	2(1.8)	1(0.9)	.
4개(백분율%)	3(2.7)	.	.

자료: 저자의 현장 조사



자료: 연구자의 현장 조사

[도표 3-15] 공연장이 입주한 건축물의 층수

제4절 소결

대학로 지역의 공연장의 성장 변화와 도시형태 변화를 고찰하고,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도시형태 요소 별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로패턴

대학로 지역의 도시형태 요소 중 가로패턴은 공연장이 입지하기 이전에 조성되었고,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필지유형

가로패턴은 공연장이 들어서기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졌지만, 필지의 유형같은 경우 과거와 비교 했을 때 부분적으로 합필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개발에 의해 합필된 필지엔 대부분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연장의 규모가 다양해지면서, 규모가 큰 공연장의 등장은 대학로 지역의 필지의 규모를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공연장의 규모와 필지 규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추후 대학로 지역의 공연예술의 성격이 대학로 지역의 필지의 유형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3-16 참고) 이를 테면, 최근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는 대규모 공연장들은 도시형태적으로 대학로 지역의 필지의 규모에 변화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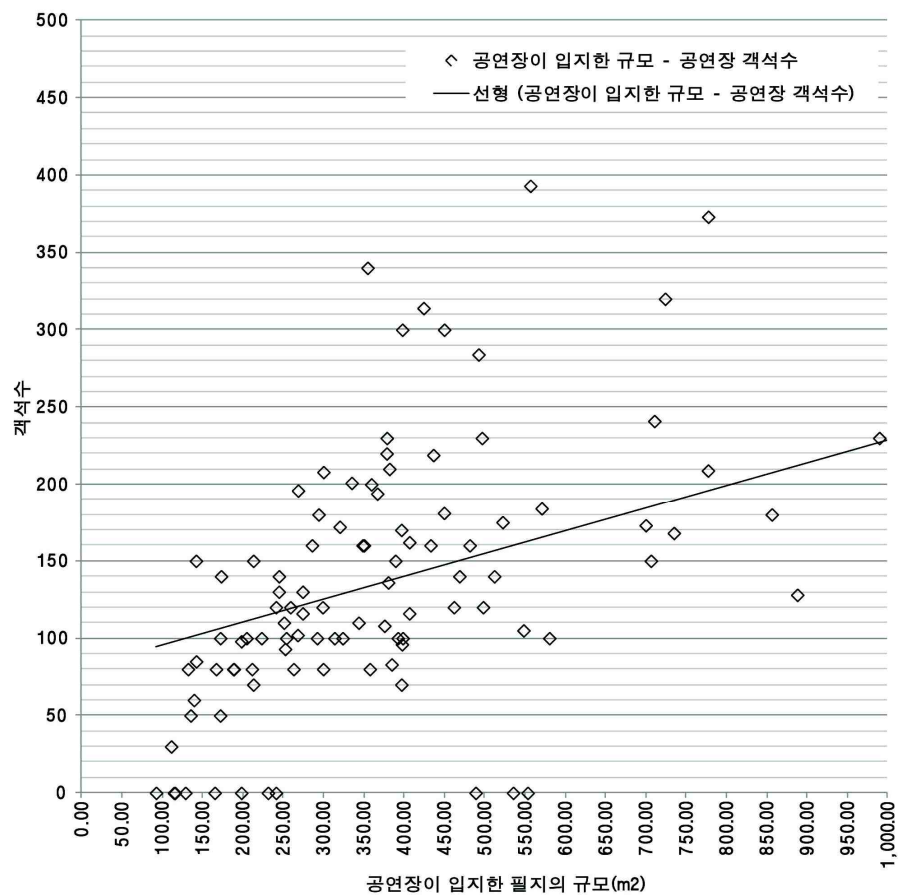
대학로 지역 전체에는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남아 있지만, 공연장의 경우 규모가 작고, 오래된 건축물에 입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옥들이 명륜동과 혜화동 일대에 남아 있지만, 이들은 공연장의 용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4층 이상의 상가건물인 경우가 가장 많다. 명륜동과 혜화동 일대에는 한옥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공연장의 용도와 한옥의 구조는 상충하는 관계이다. 공연장 자체가 서구의 문물이다 보니 한옥을 유연하게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의 확장과 대학로 상권의 확산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 일대의 건축물들이 용도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토지이용

대학로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는 공연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연문화기능의 밀집과 상업시설의 증가로 인한 상업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주요 상권과 비슷한 유동인구를 갖고 있다. 대학로 변의 경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의 개발 압력이 낮다. 앞으로의 용도의 변화는, 개발행위에 의한 용도 변화 보다는 임차인의 변화에 따라 물적 환경의 변화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표 3-16]은 공연장의 특성과 도시형태의 특성 중 가장 관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필지규모와 객석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산점도이다.



자료: 연구자

[도표 3-16] 공연장이 입지한 필지 규모와 객석수 사이의 산점도

제4장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의 공간적 특성

제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형태의 특성과 공연장의 입지가 실제 도시공간의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제1절 공간적 특성 분석의 관점 및 대상

1. 관객의 행태

(1) 관객의 규모

공연장 주변 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점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 중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객의 입장과 행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로를 방문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연극을 관람하기 위함으로 조사되었다.⁶¹⁾ 대학로 지역 공연장들은 공연의 공급도 활발하다. 백선휘(2011)에 따르면, 대학로의 공연장은 평균 공연 일수, 공연 횟수가 각각 250.5일, 324회로 타 지역의 공연장 특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연장을 이용하는 주체들의 구성비를 감안해도, 관객의 수는 압도적이다. (표 4-1 참고)

[표 4-1] 공연장 이용자의 분류 및 인원수(소공연장 기준)

공연장 이용자	합계 공연 관련 종사자	배우	4-10
		연출	1
		무대감독(공연 진행)	1
		기타(조명/음향 오퍼레이터, 티켓판매, 홍보 등)	3이상
	관객	공연이 있는 공연장 객석수×객석 점유율(56.7%) ⁶²⁾	

자료: 현장 인터뷰와 문헌조사로 연구자가 재구성

61) 이보희(2007)의 연구에서 대학로 지역을 방문 한 목적이 공연관람 38%, 약속/만남 36% 등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지구지정이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p. 66), 진은혜(2010)의 연구에서 대학로 지역을 방문 한 목적이 공연관람 50.5%, 약속/만남 34.5% 등으로 조사되었다.

62) 서울문화재단, 『2011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 보고서』(서울: 서울문화재단, 2011), p. 8.

(2) 관객의 동선

관객의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공연장과 도시 공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사전 인터뷰를 바탕으로 관객의 대략적인 행태를 조사하였다. 대학로 지역에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 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학로 지역에서 관객의 행태는 이른바 보행거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온라인을 통해 미리 예매를 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공연을 예매하는 사람들이다.⁶³⁾ 대학로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입장권 구매 장소가 있다. 하나는 대학로 지역에 상연되는 모든 공연에 대한 입장권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본 공연의 공연장 입구 티켓박스가 있다. 201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326명을 표본으로 조사 한 결과,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50.7%를 제외하고 30.5%가 본 공연의 공연장 입구 티켓박스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거점과 티켓박스를 기점과 종점으로 관객들의 필연적인 이용 행태가 나타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관객의 기본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의 대략적인 분석 요소는 [표 4-2]와 같다.

[표 4-2] 대학로 지역을 방문한 관객들의 필연적 이용행태 및 행태 별 분석 요소

연구 대상	도시 공간		도시 공간 - 공연장		공연장
이용 행태	지하철, 버스, 자가용 이동	도보 이동 및 기타 소비	티켓박스에서 공연 입장권 구입, 공연 대기		공연 관람
분석 요소	보행거점(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주차장)	가로, 상업시설	필지	건축물	공연장
자료: 현장 인터뷰와 문헌조사로 연구자가 구성					

63) 대학로 방문 시 이용한 교통수단 중 ‘지하철’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 15.4%, ‘자가용’ 8.3% 순으로 조사 되었다. (출처: 서울문화재단, 『2011 대학로 연극 실태 조사 보고서』(서울: 서울문화재단, 2011), p. 20.

(3) 유동인구 집중 지점

소상공인진흥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학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지점은 혜화역 1번 출구와 혜화역 3,4번 출구 사이로 확인되었다. 유동인구가 가장 집중되는 시각은 평일 18시에서 19시 사이이다. 이는 대학로의 공연장들이 공연을 시작하기 바로 전 시간인 것으로 보아, 공연을 관람하러 대학로로 유입된 사람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및 표 4-4 참고)

[표 4-3] 혜화역 1번 출구 유동인구(종로구 동승동 1-34: 맥도날드 앞)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주말	12시~13시까지	42	137	115	48	12	354	54	234	138	37	19	482
	18시~19시까지	210	685	575	240	75	1785	271	1170	638	184	94	2357
주중	12시~13시까지	61	119	55	54	29	318	132	239	72	780	48	1271
	18시~19시까지	180	353	165	162	87	947	396	717	216	234	144	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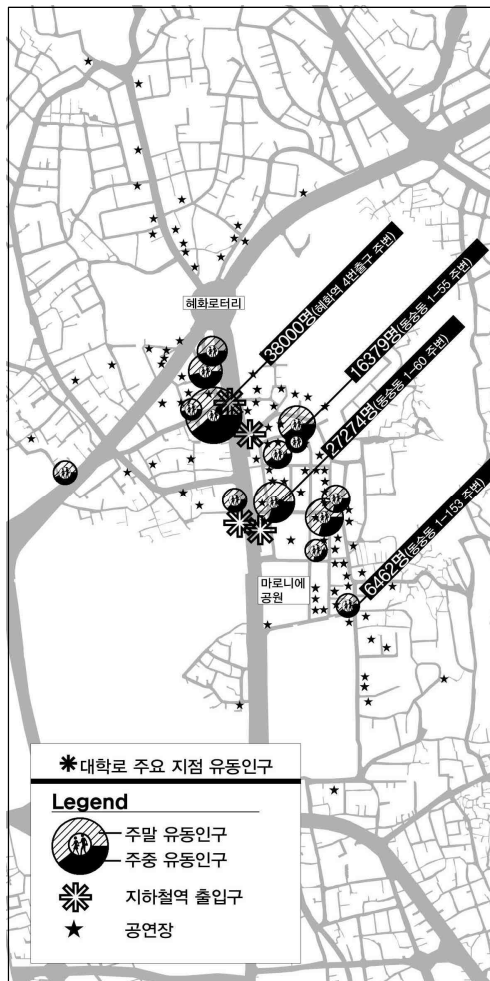
자료: 2010년 10월, 소상공인진흥원 자체조사 기준, 단위: 명

[표4-4] 혜화역 3,4번 출구 사이 대학로11길 유동인구(종로구 명륜4가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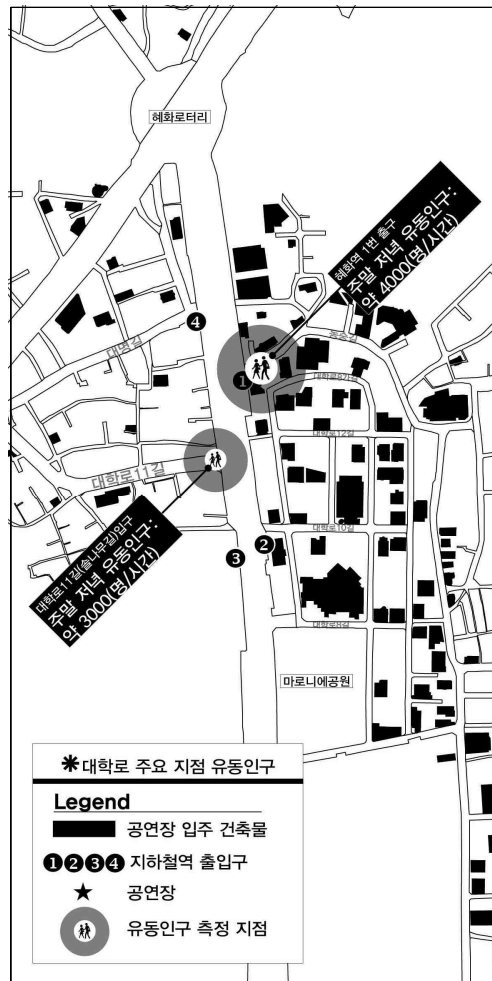
	조사시간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
주말	12시~13시까지	60	203	91	65	66	485	114	204	95	54	48	515
	18시~19시까지	179	612	273	195	198	1457	342	611	285	162	144	1544
주중	12시~13시까지	48	138	108	84	71	449	47	174	132	101	121	575
	18시~19시까지	96	277	215	168	143	899	93	348	264	201	243	1149

자료: 2010년 10월, 소상공인진흥원 자체조사 기준, 단위: 명

[그림 4-1]은 앞서 설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에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점을 표기한 것이다. 좌측 도면은 일일 평균 유동인구(주말기준)를 표기 한 것인데, 일일 평균 약 3만8천명의 사람들이 혜화역 1번 출구 일대로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승지구에도 혜화역 2번 출구 일대에 약 2만7천명의 사람들이 유입된다. 혜화역 1번 출구 일대 단일 지점으로는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지만, 동승지구 일대에는 단일 지점으로는 혜화역 1번출구 만큼의 유동인구는 아니지만, 유동인구 일일평균 5000명 이상인 지점이 다수 분포한다.



Box size: 1km×2km North to the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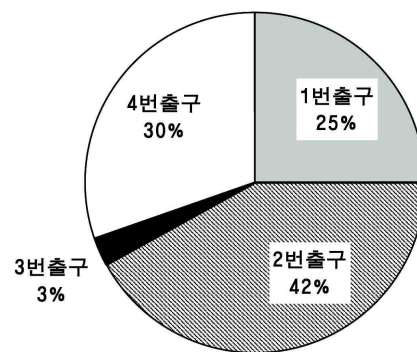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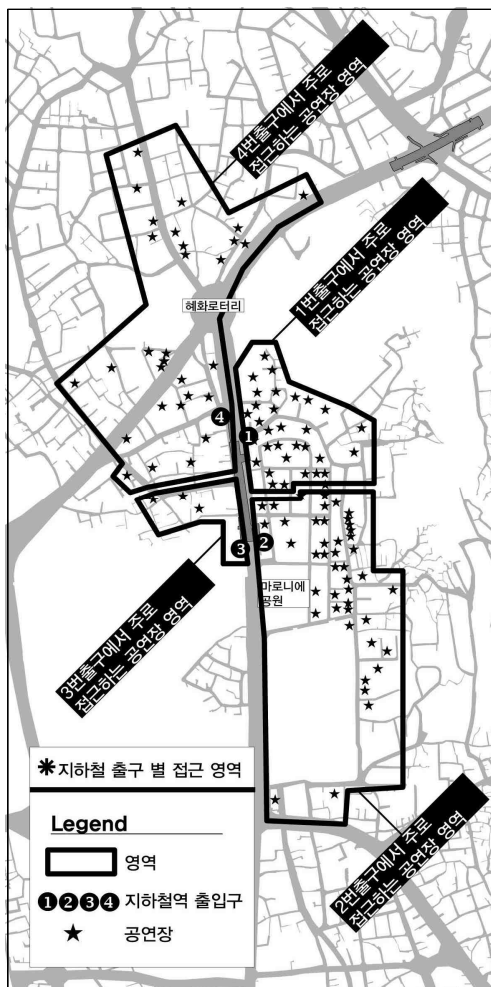
Box size: 500m×1000m North to the Top

자료: 서울시(좌), 소상공인진흥원(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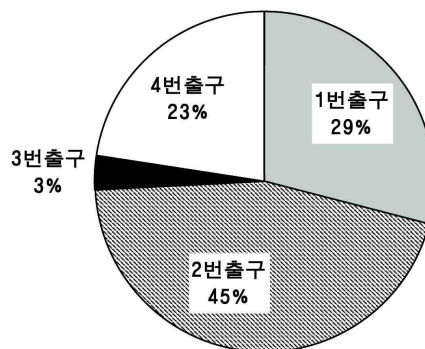
[그림 4-1] 대학로 지역 주요 지점 별 유동인구

2. 보행거점과 공연장의 입지와 관계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대학로 지역을 찾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하철을 이용한다. 따라서 혜화역의 네 개의 출구는 대학로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보행거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림 4-2]는 지하철역 각각의 출구를 기준으로 가까운 공연장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영역을 표기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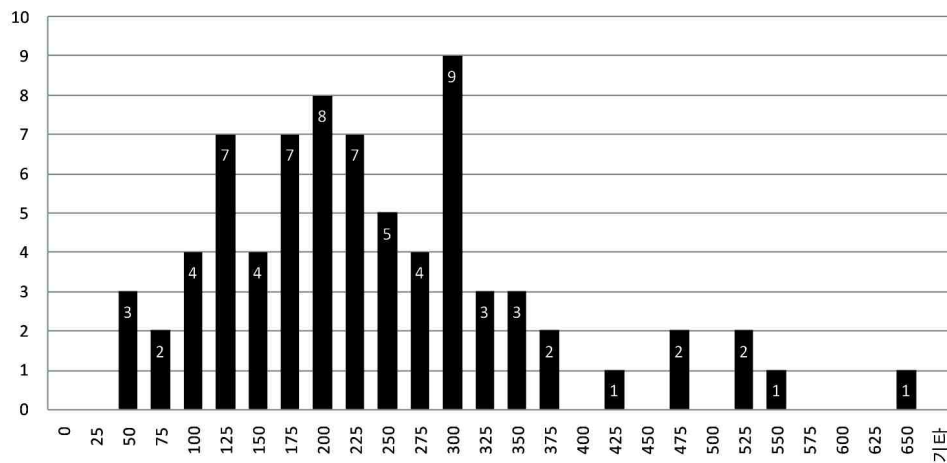


[도표 4-1] 공연장 입지 건물 수 기준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비율



[도표 4-2] 공연장 수 기준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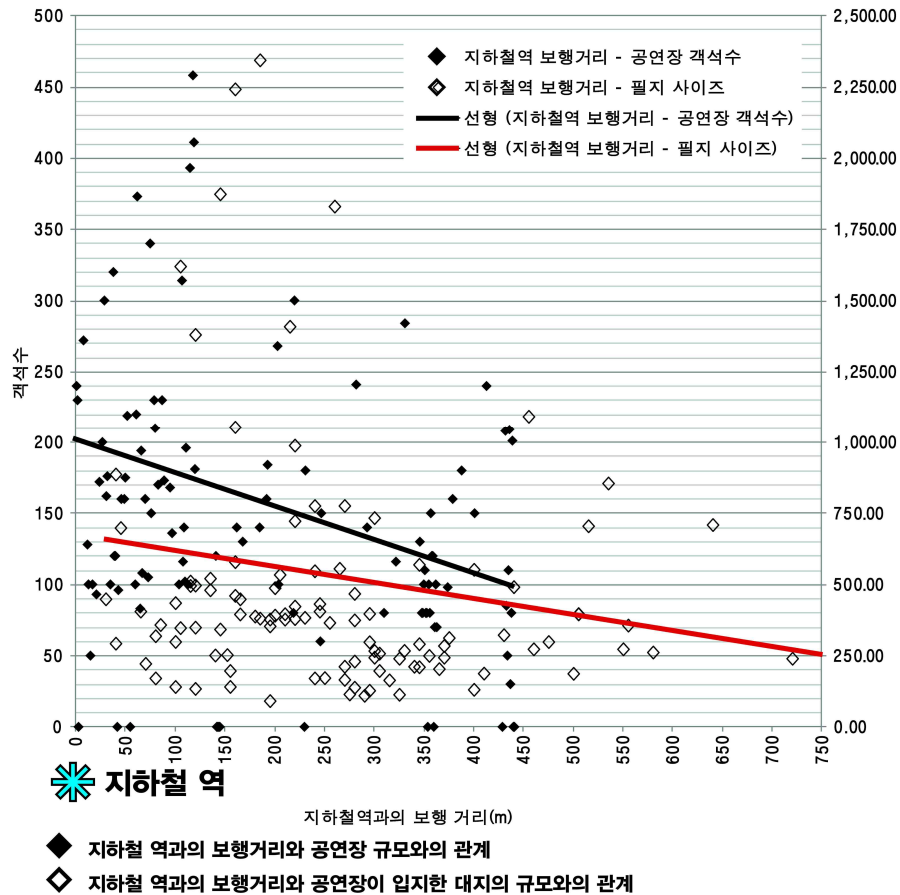
동승동 방향으로 나 있는 1,2번 출구에서 접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대학로 지역 전체 공연장의 약 3/4이다. (도표 4-1 및 도표 4-2 참고) 지하철역부터 각각의 공연장이 위치한 건축물과의 거리는 대부분 300m 이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거리는 300m와 200m 이다. 대부분의 공연장이 보행거점인 지하철역과 보행가능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표 4-3 참고)



자료: 연구자

[도표 4-3] 지하철 역부터 보행거리에 있는 공연장 빈도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주요 동선의 결절점인 지하철역(해화역)에서 공연장의 입지와의 보행거리 및 공연장 특성을 종합하면 [도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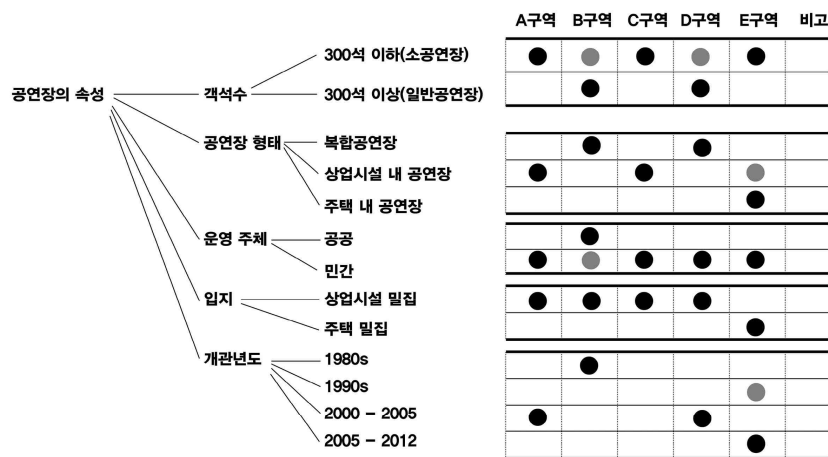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도표 4-4] 보행거점과 공연장 특성(객석수) 및 도시형태(필지 규모)와의 관계

3. 분석을 위한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 권역 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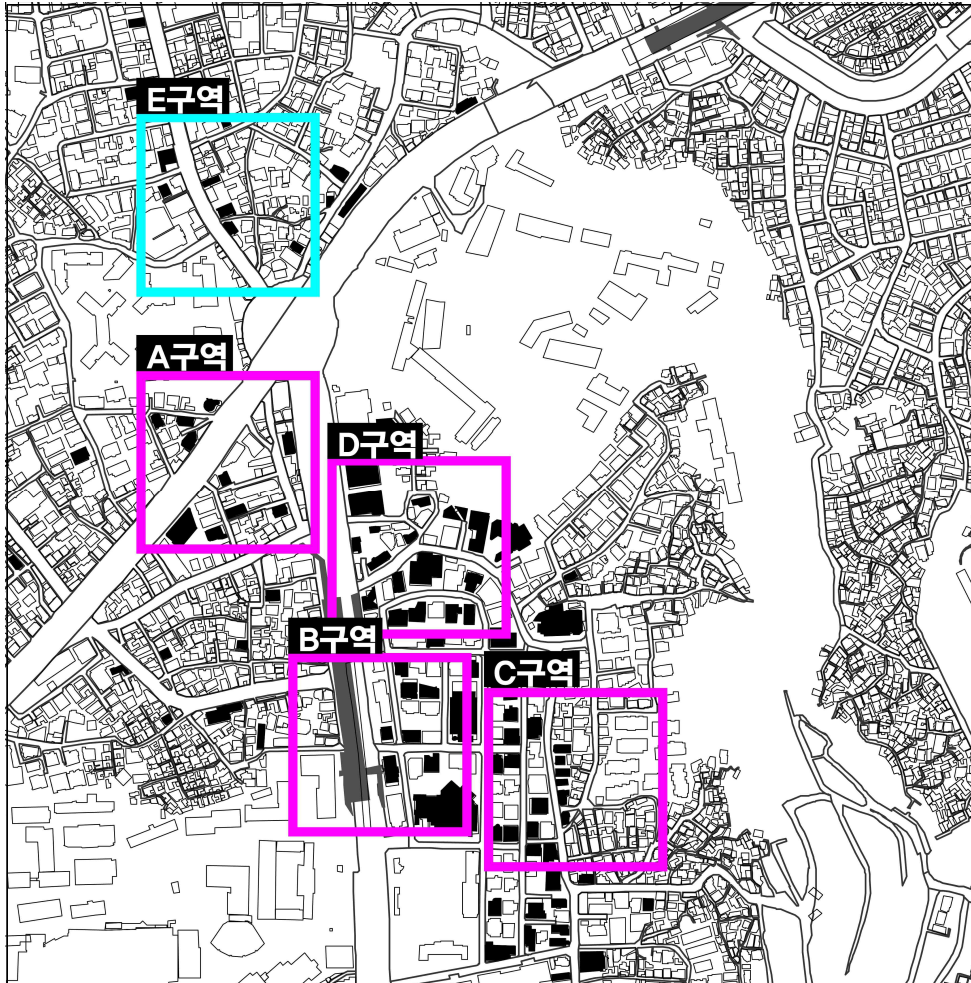
본 항에서는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관객의 행태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5개의 구역을 분류하였다. A구역은 전통적인 가로패턴을 띄고 있는 지역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필지에 공연장이 입지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연장의 규모도 매우 작다. B구역은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필지에 위치한 공연장(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이 입지한 구역이다. 따라서 공연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 C구역은 공연장이 가장 많이 면한 도로인 동숭길의 일부분이다. 공연장의 규모는 대부분 작고, 전용공연장이 아닌, 타 용도와 함께 일반 건축물에 공연장이 함께 뒤섞여 있는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다. D구역은 2000년대 초중반 건립된 대학교 부설기관 공연장이 입지한 곳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이다. 공연장의 규모는 크고 작은 공연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는 구역이다. E구역은 2000년대 중 후반 대학로로부터 이전한 공연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주변에 상업시설 보다는 주택이 더 많으며, 공연장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림 4-3]은 권역 별 구분을 위한 기준이 된 특징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검정색 동그라미는 대표적 특징, 회색 동그라미는 대표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특징을 의미함.)



자료: 연구자

[그림 4-3] 구역별 공연장 및 입지 특성

[그림 4-4]는 앞서 나눈 구역의 위치도이다.



자료: 연구자

[그림 4-4] 공연장 특성과 도시형태에 따른 권역 분류

제2절 공연장 밀집구역 유형 별 공간적 특성 및 관객 행태

1. 구역A: 명륜2가 상권 이면도로 일대

(1) 도시형태의 변화와 공연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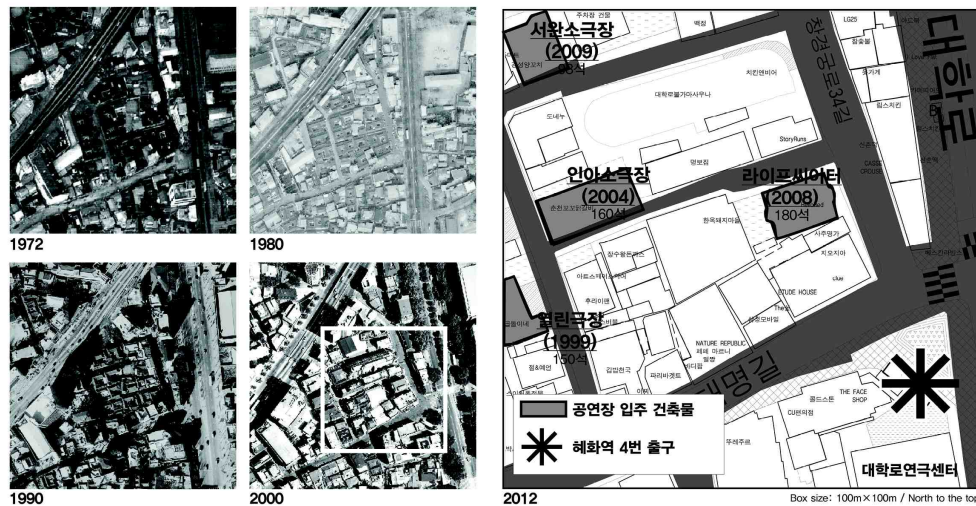
1) 도시형태 변화

[그림 4-5]는 구역A(명륜2가 상권 대명길 북쪽 일대)의 도시형태 변화 양상을 1972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로 보여주고 있다.⁶⁴⁾ 명륜2가 상권 이면도로는 구역의 북쪽의 창경궁로와 동쪽의 대학로 보다 먼저 조성된 가로패턴이며, 현재 도 어느 정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항공사진에는 ‘ㄷ’ 자 ‘ㄱ’ 자 한옥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도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관이 많이 변했다. 이들 한옥들은 일반음식점이나, 판매업 등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2) 공연장 현황

구역A에는 열린극장(1999년 개관, 150석), 인아소극장(2004, 160석, 라이프씨어터(2008, 180석) 그리고 서완소극장(2009, 98석)이 입지하고 있다. 이들 공연장들은 한옥이 헐린 자리에 들어선 일반 상가 건물의 지하층에 위치한다. (그림 4-5의 우측 도면 참고)

64)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는 1972년부터 항공사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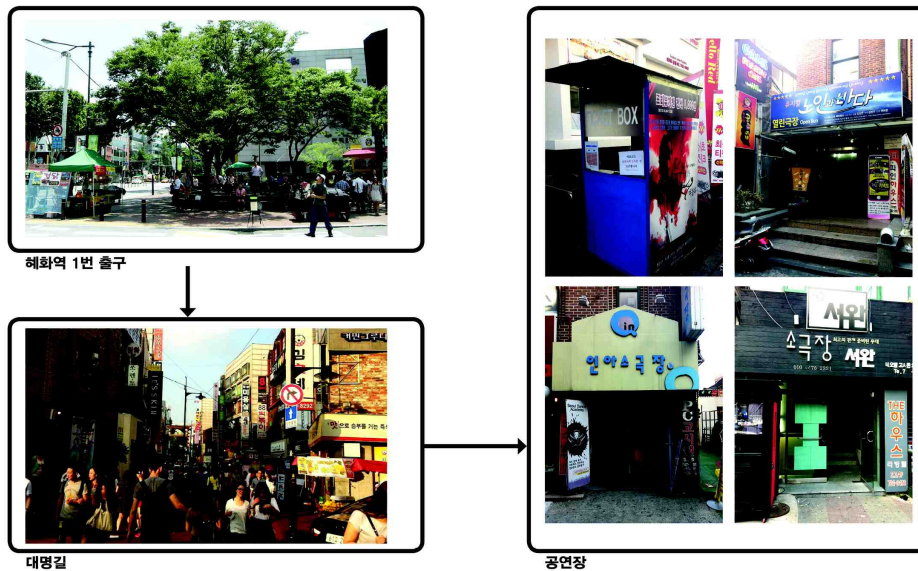


자료: 좌,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o.kr) / 우,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5] 구역A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2) 관객들의 행태

구역A는 공연장 주변이 협소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의 용도도 대부분 음식점이라, 공연 전후로 사람들의 특별한 행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명길의 활성화 정도가 이면도로와의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공연장 주변에서 사람들은 별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고, 대명길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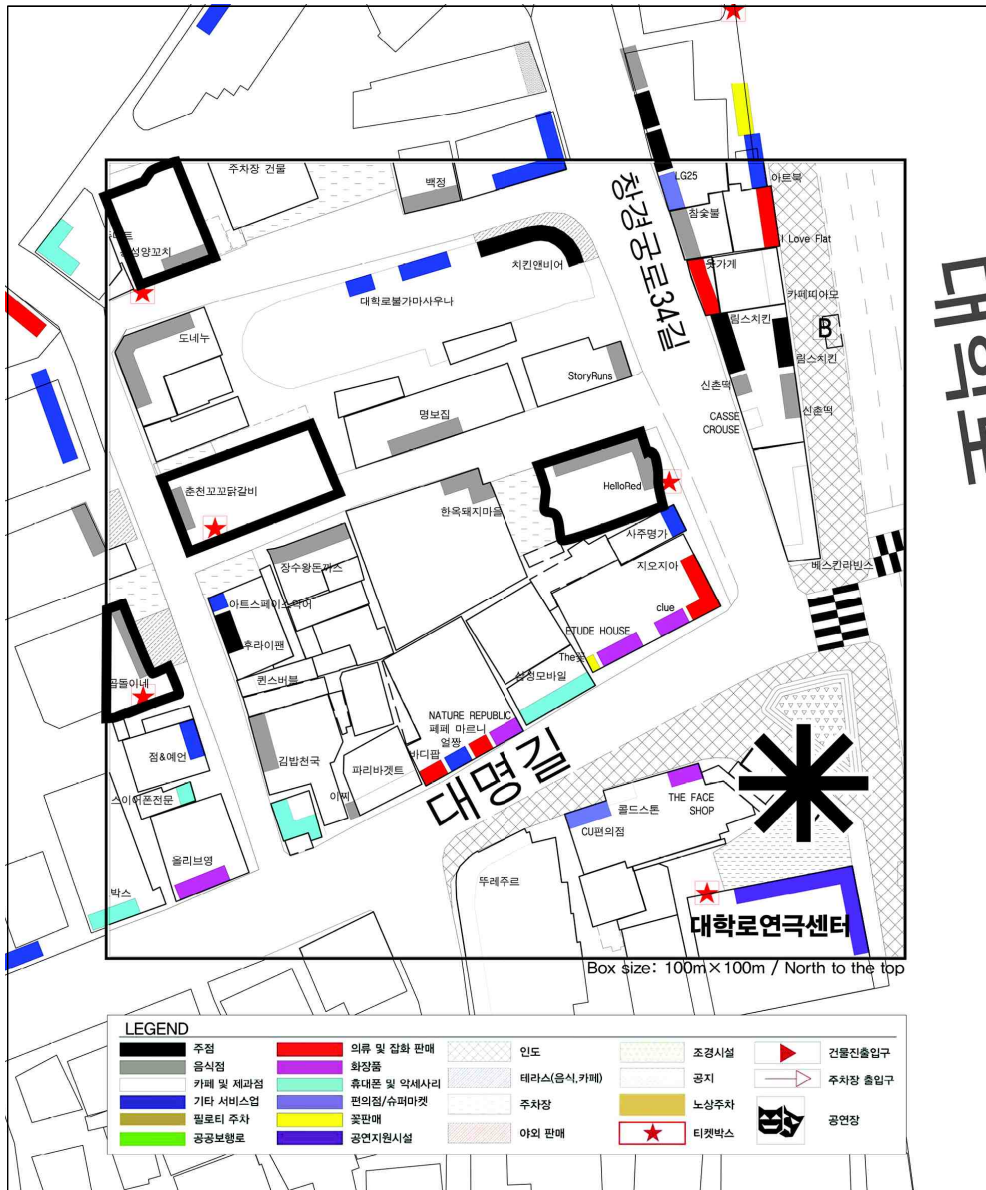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가 2012년 가을 촬영

[그림 4-6] 구역A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3) 공연장 주변 환경

구역A는 혜화역 1번 출구와 가장 가까우며, 이 일대의 공연장은 필연적으로 대명길을 지나 접근하게 된다. 대명길은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하는 곳이라 가로변의 상점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노점상도 쉽사리 발견 할 수 있다. 대명길 주변 용도는 판매업이 주로 있고(저충부 기준), 공연장들이 밀집해 있는 대명길 이면도로 일대에는 일반 음식점이 눈에 띈다. (그림 4-7 참고)

공연장이 위치한 건축물 전면부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티켓박스가 건축물 전면부에 있지 않고 공연장의 입구로 쓰이는 건물의 현관이나 계단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에서 붉은 색 별 표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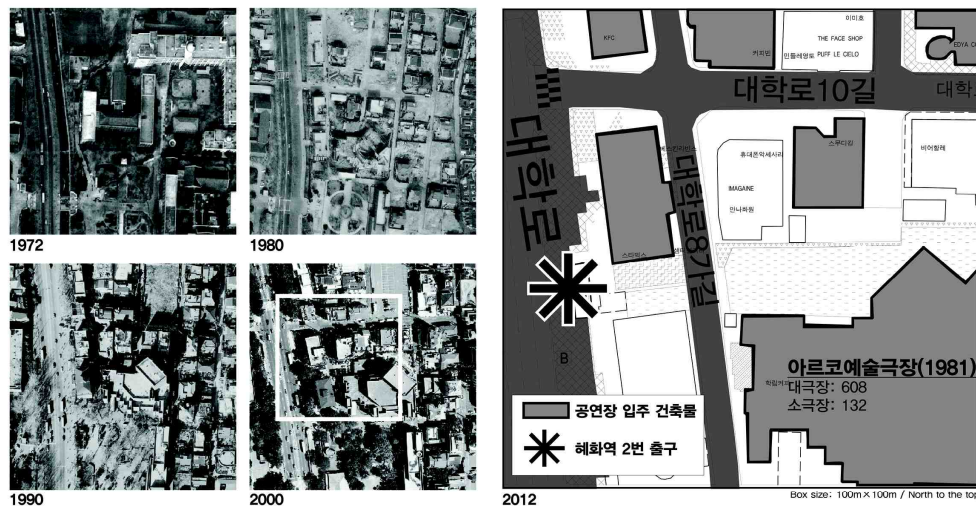
자료: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7] 구역A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2. 구역B: 혜화역 2번 출구 일대

(1) 도시형태의 변화와 공연장 특성

[그림 4-8]은 현재 혜화역 2번 출구 일대의 도시형태의 변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문리대 정원이었던 공간이 현재는 마로니에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변에는 아르코예술극장(1981년 개관, 대극장: 608석, 소극장: 132석)과 아르코미술관 그리고 서울대학교 본부였던 건물이 현재는 예술가의집(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이 마로니에 공원을 전면부로 하여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1978년 새로이 구획되어 새로운 가로패턴이 형성되었다. 1980년 사진을 보면, 이 일대의 건축물의 양식은 대부분 지붕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는 당시에 지어졌던 단독주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상가 건물들이 새로이 들어선 상태이다.



자료: 좌,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o.kr) / 우,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8] 구역B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2) 관객 행태

[그림 4-9]는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이전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객들의 행태를 보여준다. 아르코예술극장(동숭동 1-11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혜화역 지하철 2번 출구와의 접근이 가장 용이하다. 아르코예술극장 외부 공간에 마로니에공원과 인접한 건축물 전면부의 활동도 다양하게 일어난다.⁶⁵⁾ 그리고 아르코예술극장 내에는 로비공간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공연 시작 전 관객들이 건물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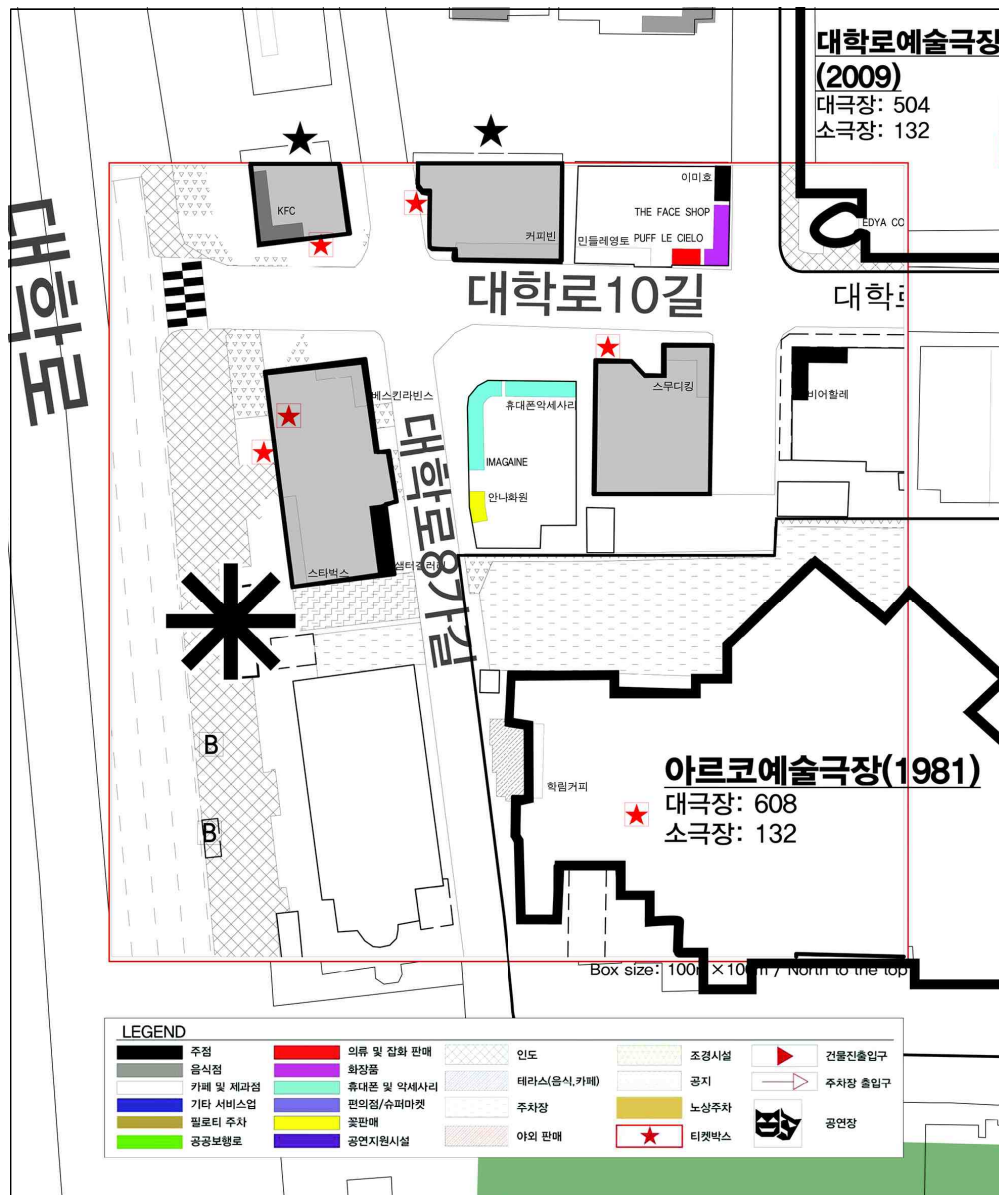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가 2012년 가을 촬영

[그림 4-9] 구역B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3) 공연장 주변 환경

구역B 일대의 저층부 용도는 카페가 가장 주를 이룬다. 규모가 큰 아르코예술극장은 티켓판매가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규모가 작은 소공연장은 건축물 외부에 티켓박스에서 티켓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0 참고)

65) 아르코예술극장 앞 전면부와 인접한 마로니에공원은 다양한 형태의 거리공연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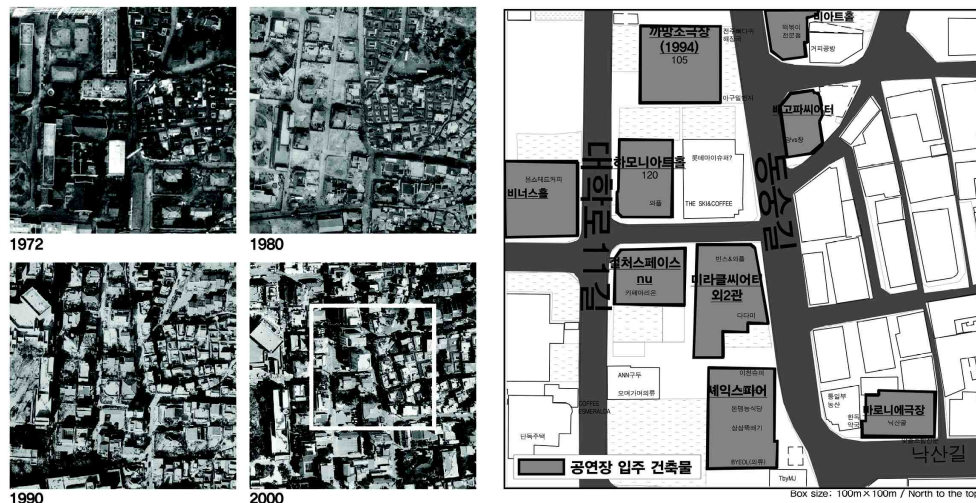
자료: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0] 구역B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3. 구역C: 동송길 소극장 밀집지역 일대

(1) 도시형태의 변화와 공연장 특성

동송길 소극장 밀집지역의 경우 과거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경계부(edge)가 구획정리사업 이후 길(path)의 역할을 하게 된 경우이다. 1972년 위성사진을 보면,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동쪽 주택지의 도시형태의 이질성이 눈에 띈다. 1980년 위성사진의 경우, 캠퍼스가 단독주택지로 변화하였지만, 가로패턴에서 필지 유형, 건축물 형태 등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이 일대 가장 많은 공연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 일대의 대부분의 건물 내에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4-11 참고)



자료: 좌,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o.kr) / 우,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1] 구역C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2) 관객 행태

공연장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만큼, 공연장들이 가로환경에 다수 노출되어 있다. 공연장 간판, 출입구, 티켓박스 등 공연장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특성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이 일대의 관객 행태 중에 특별한 것이 가로변에서 공연관람을 기다리는 행태이다. 이 일대의 공연장들이 200석 이하의 소극장인 경우가 많지만, 점유율이 50%만 넘어도 100명의 관객들이 한꺼번에 공연장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공연 시작 시각에 임박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 앞에서 줄을 서거나, 서성거리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4-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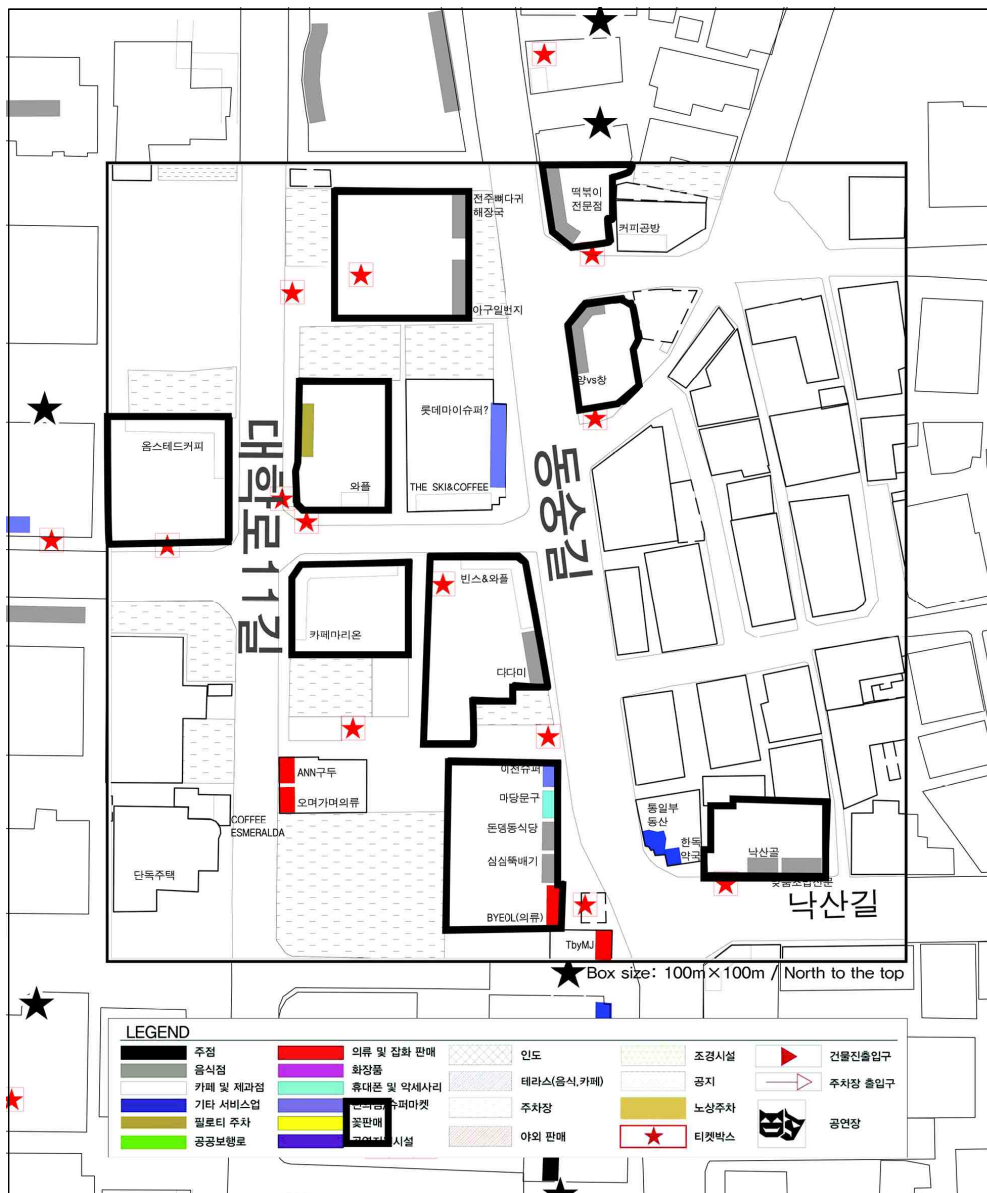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가 2012년 가을 촬영

[그림 4-12] 구역C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3) 공연장 주변 환경

구역C 일대의 저층부 용도를 보면, 대부분 일반 음식점이 눈에 띈다. 동승길을 기준으로 동쪽면은 대학로 상권이라기보다는, 동승동 주택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이나, 약국, 부동산 등도 입지해 있다. (그림 4-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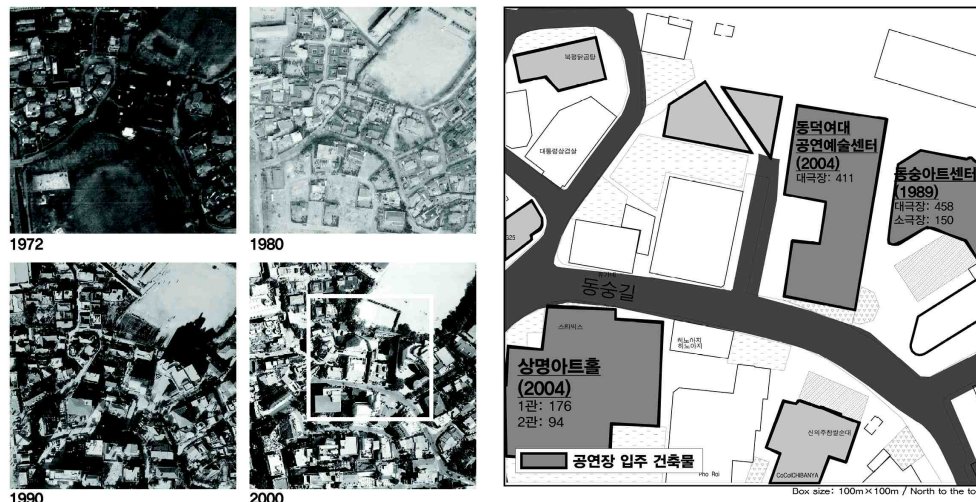
자료: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3] 구역C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4. 구역D: 대학부속기관 및 복합공연장 밀집지역 일대

(1) 도시형태의 변화와 공연장 특성

[그림 4-14]는 혜화역 1번 출구에서 동숭동으로 진입되는 동숭길 일대에 대학교 부속기관 및 복합공연장이 밀집한 지역 일대의 도시형태 변화 과정 및 공연장 입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일대 역시 과거 동숭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였으며, 현재는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 역시 구역C와 같이 경계(edge)가 길(path)이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자료: 좌,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o.kr) / 우,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4] 구역D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2) 관객 행태

구역D의 대학교 부설기관과 공연장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특별한 행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구역과 가장 가까운 혜화역1번 출구 일대에는 노점상이 즐비하고, 사람들의 만남이 빈번이 일어난다. 하지만, 대학교 부설기관 및 공연장들 주변에는 특별한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4-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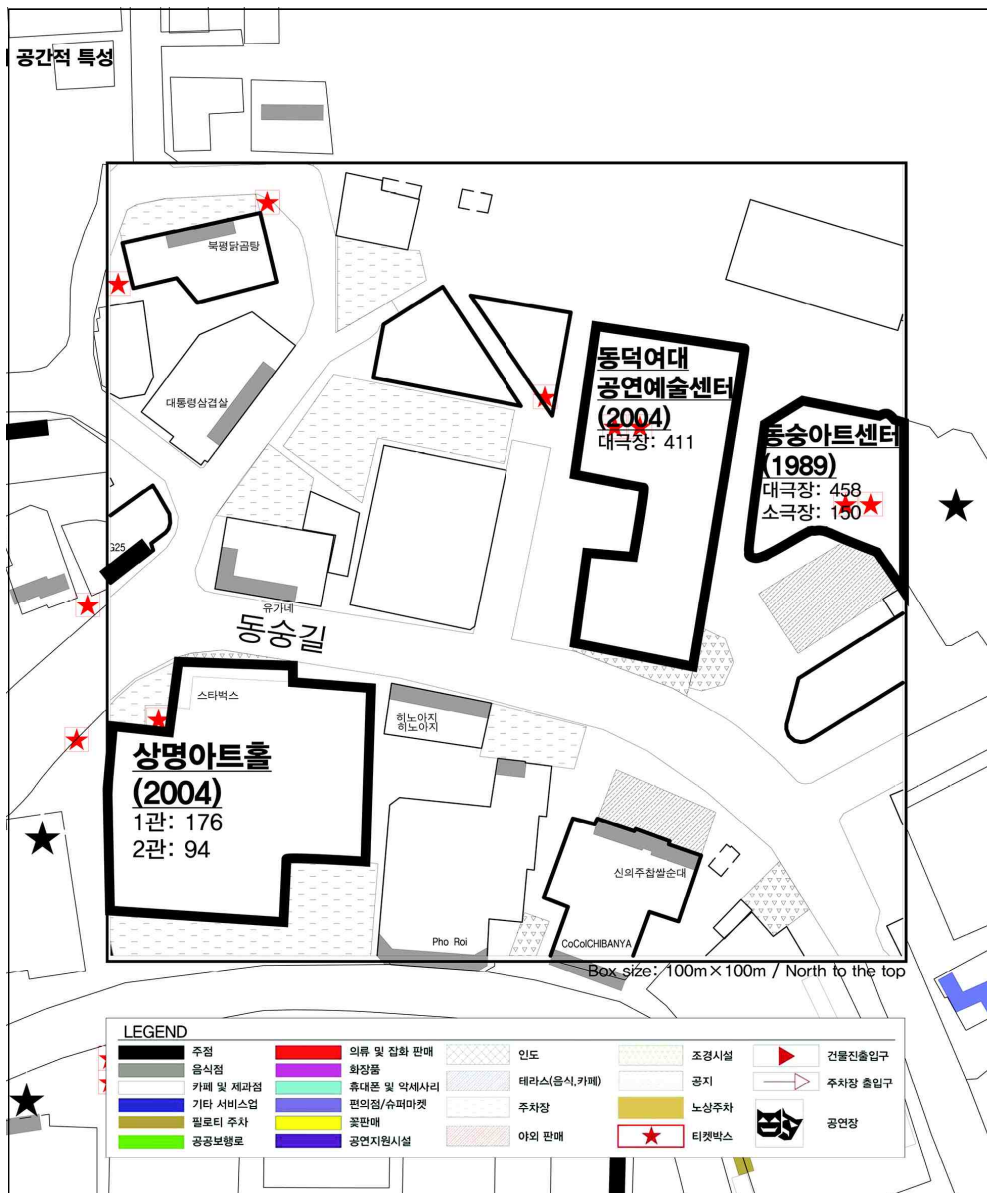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가 2012년 가을 촬영

[그림 4-15] 구역D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3) 공연장 주변 환경

[그림 4-16]은 구역D 일대의 저층부 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큰 공연장들은 일반 상업건축물에 비해 저층부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지역 일대의 주요 저층부 용도는 일반 음식점이다. 혜화역 4번 출구에서 명륜2가 일대로 진입하는 대명길 일대의 다양성을 띄는 저층부 용도와 대조적이다.⁶⁶⁾ 티켓판매소의 경우 구역B의 아르코예술극장과 같이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66) 대명길 일대의 저층부 용도는 [그림 4-7]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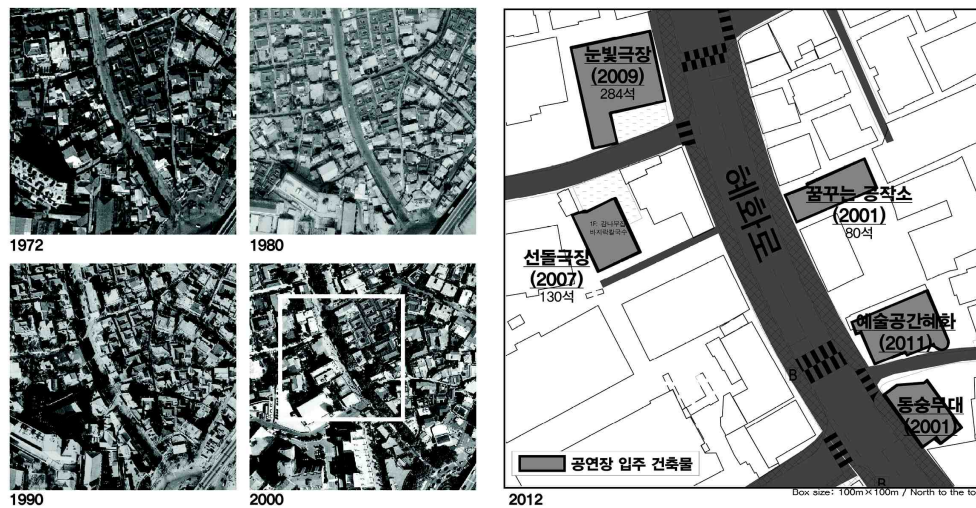
자료: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6] 구역D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5. 구역E: 혜화로 주변 일대

(1) 도시형태의 변화와 공연장 특성

[그림 4-17]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공연장이 입지하기 시작한 혜화로 일대 주택가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2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가로패턴의 변화는 없고 건축물의 변화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일대 공연장들은 혜화로에 인접해 있는 경향을 띄고 있고, 대부분 300석 이하의 소공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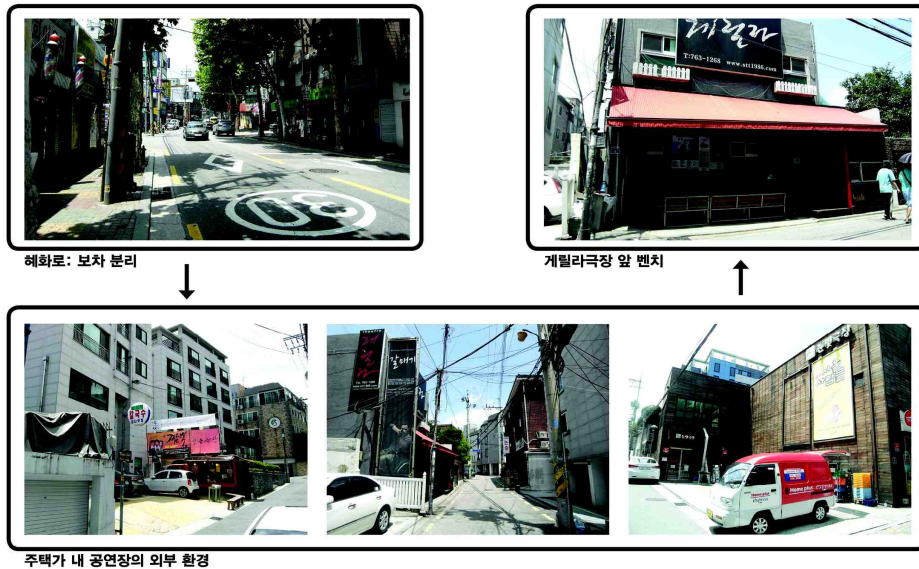


자료: 좌,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aerogis.go.kr) / 우,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7] 구역E의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입지 현황

(2) 관객 행태

구역E는 대학로 상권과 대로(창경궁로)로 단절되어 있고, 본래 주택가이기 때문에, 가로환경은 대학로 상권부에 비하여 보행량이 적은 편이다. 극장 전면부도 다른 구역에 비해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눈에 띈다. (그림 4-1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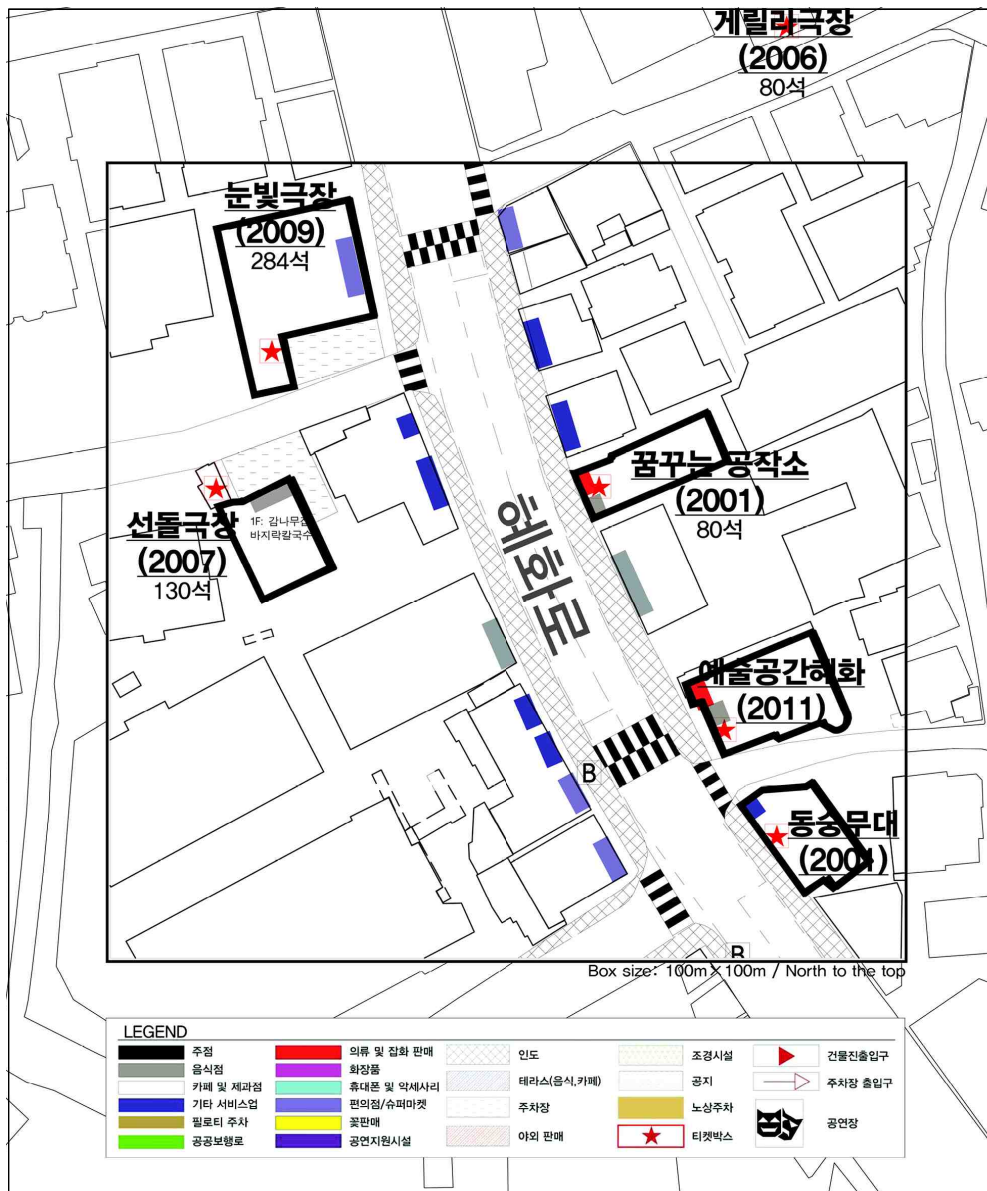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가 2012년 가을 촬영

[그림 4-18] 구역E 일대 공간별 관객 행태

(3) 공연장 주변 환경

[그림 4-19]은 구역E 일대의 저층부 용도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주택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연장을 이용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태 관찰 결과 관객들은 공연관람 후 다시 대학로 상권 일대로 이동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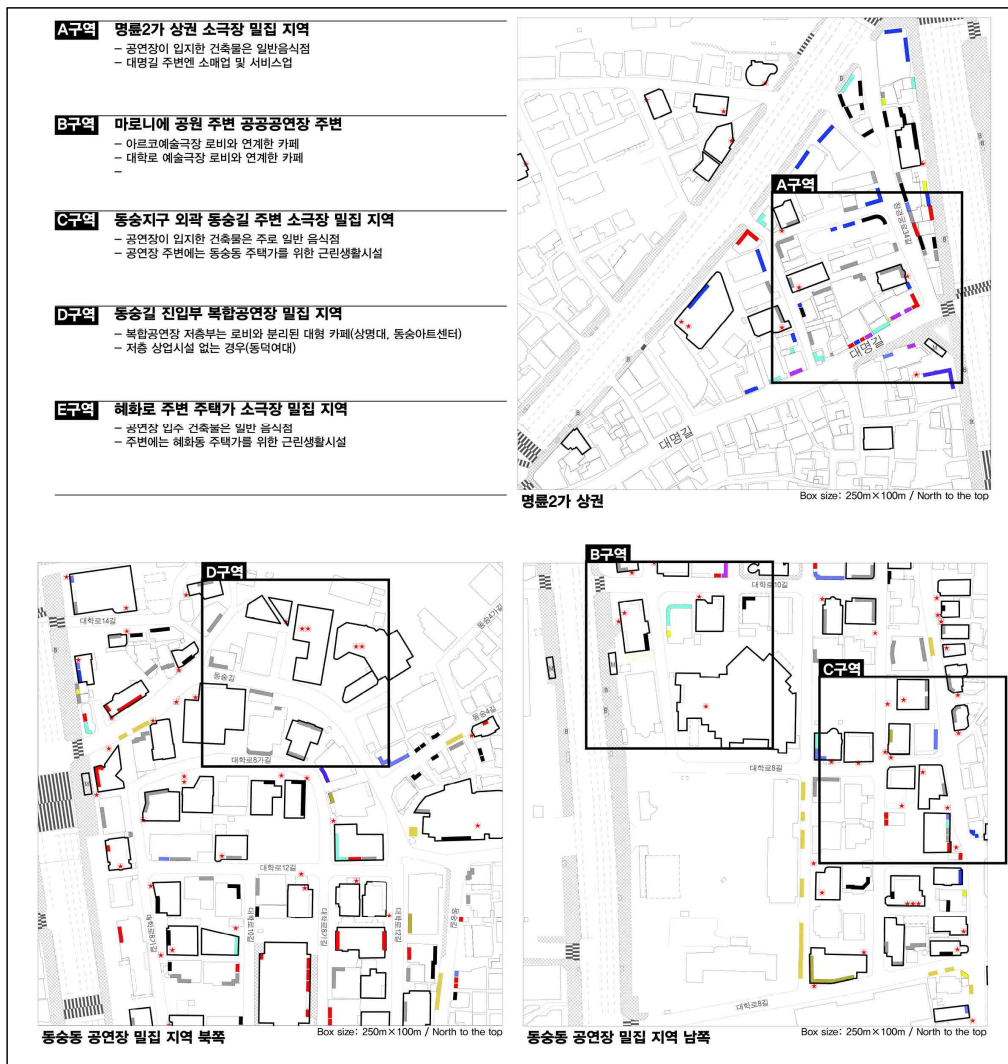


자료: 수치지도(2012)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4-19] 구역E 주변 지역 저층부 용도 현황

제3절 소결

도시형태의 특성과 공연장의 특성을 기준으로 대학로 지역 내에 공연장 밀집 지역의 구역 별로 세부적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역별로 세부적인 공간적 특성이나, 저층부의 용도 그리고 관객들의 행태가 각각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20 참고)



자료: 연구자

[그림 4-20] 분석 구역별 공간적 특성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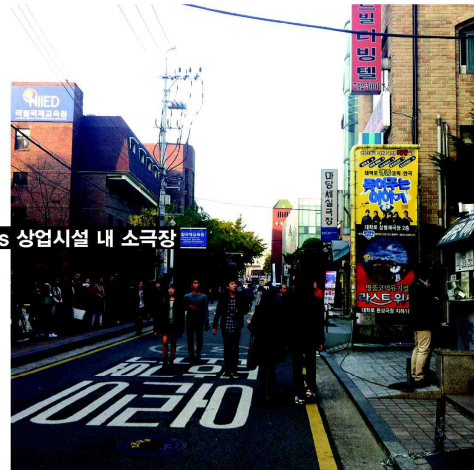
관객들의 행태는 구역별로 공간적 특성의 차이 및 주변 용도의 차이로 인하여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띤다. [그림 4-21]은 공연관람 전에 관객들의 행태를 담은 것이다. 좌측 사진은 구역B에 위치한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서 공연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우측 사진은 혜화역 1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켈트홀 공연장 앞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거리에 줄을 서 있는 관객들의 모습이다.



자료: 연구자

[그림 4-21] 관객 행태 비교1(좌. 아르코예술극장, 우. 켈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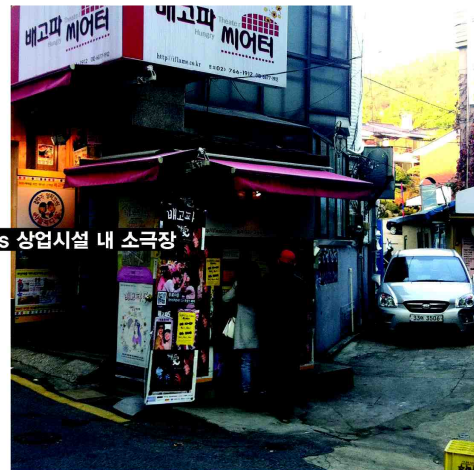
[그림 4-22]는 공연장 전면부의 조성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연장(동숭아트홀, 동숭홀 458석)의 건축물 전면부의 모습이다. 공연장이 위치한 건축물 저층부에 노천카페를 조성하여, 공연관람 이전에 이곳에서 공연을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측 사진은 삼형제극장(130석)이 위치한 건축물 전면부의 모습이다. 동숭아트홀에 비해서 좁은 전면부에 티켓박스가 위치해 있으며, 관객들은 도로 건너편 인도에 줄을 서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 연구자

[그림 4-22] 관객 행태 비교2(좌. 동송아트센터, 우. 삼형제소극장)

[그림 4-23]은 서로 다른 유형의 공연장의 대표소의 모습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동송아트센터는 로비공간에 대표소가 있으며(좌), 배고파씨어터는 외부에 따로 티켓박스를 두고 대표를 하는 모습이다.



자료: 연구자

[그림 4-23] 관객 행태 비교3 (좌. 동송아트센터, 우. 배고파씨어터)

도시형태적 특성이 서로 다른 구역별로 공연장의 주변 환경 공간적 특성 및 관객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들의 행태는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이었지만, 물리적인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가시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띄

고 있었다.

이러한 관객들의 행태가 관객편의에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규모가 큰 공연장은 필지 내 혹은 건축물 내부에서 관객들의 행태를 수용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공연장들은 자체적으로 관객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서 외부공간에서 그들의 행태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로 지역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의 도시형태를 기반으로 공연장의 특성 및 사람들의 행태 등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추후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구역 별로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계획에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1. 연구의 종합

(1) 연구의 요약

대학로 지역은 공공의 문화정책이 도시공간에 지속적으로 투영되어 온 장소이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이 지역의 공연장의 개수는 150개가 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로 지역의 공연예술 인프라는 비교적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의 입장에서 대학로는 단순히 공연관람 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된 활동들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연 시작 전에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거나, 공연 후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공연장이 입지한 주변 도시공간에서 행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공연장과 그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로 지역의 기초적인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도시 공간 변천사를 도시형태적 관점

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도시형태적 관점이란 도시에 누적된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재 도시공간에 독특한 형태로 취해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형태 변화와 공연장 성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2) 연구의 결론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공연예술 활동의 매개체인 공연장이 군데군데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도시 공간의 모습은 도시형태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 도시형태의 가장 기초적인 여건인 가로패턴의 경우 대학로 지역에 공연장이 입지하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필지의 변화는 상업화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필지는 합필이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합필된 필지에는 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등장 이 이 지역의 도시형태 변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건축물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동숭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더 활발히 변해온 양상의 띄고 있는데, 그 원인은 상업화에 따른 개발 수요 그리고 공연장의 입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용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대학로지역이 상업화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공연장의 밀집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공연장들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규모의 다양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입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형태요소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체감할 수 있는 공연장과 그 주변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도시형태와 공연장 유형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분석의 대상을 분류하고, 세밀하게 공간, 용도,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역별로 물리적인 환경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객들의 행동패턴도 이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 특히 관객편의시설 제공의 관점에서는, 작은 필지에 입지하고 좁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

장이 큰 필지에 넓은 공지를 가진 대규모 공연장에 비해 관객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연관람과 연관된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의 용도는 구역별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학로 상권이 반경 500m 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약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대학로 지역은 내부적으로 서로 다양한 도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구역 별로 그 특성에 적합한 계획에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대학로 공연장 밀집지역은 도시형태의 물리적 요소들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공연장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가 유입되어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조성된 도시형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도시공간의 비물리적 요소들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연장이라는 대학로 지역의 특수한 용도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추후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 및 의견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대학로 지역 공연장의 성장 및 변화 과정과 공간의 변화과정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공간의 변화나, 공연장의 변화를 따로 다루는 방법과 차별화된 관점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학로 지역의 공간적인 특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공연장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공간의 변화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요인에 대한 해석이 미흡한 점이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장이 산재된 대학로 지역 일대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의 공간적인 경계가 구체적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계량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학로 지역의 특수한 용도에 따른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추후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 및 의견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문헌

(1) 단행본

- 김연진(2001). 『문화지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원모(1959). 『지번구획입 서울대정도(地番區劃入大 서울精圖)』. 서울: 삼릉지도공업사(三能地圖工業社).
- 김진애(2003). 『(김진애의)우리도시 예찬: 그 동네 그 도시의 매력을 찾아서』. 서울: 안그라픽스.
- 김철수(2009). 『도시공간계획사』. 서울: 기문당.
- 도시재생네트워크(2009).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 서울: 안그라픽스.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서울: 보성각.
- 라도삼(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2002). 『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것인가』. 서울: 시지락.
- 문화체육광부(2012).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주소록』. 서울: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백선희(2011).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2010). 『소극장 클러스터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특별시(1966). 『신편 서울특별시 전도일람(新編 서울特別市 全圖一覽圖)』. 서울: 중앙지도문화사(中央地圖文化社).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1985). 『대학로·율곡로 도시설계』. 서울: 서울특별시.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10). 『시티컬처노믹스』. 서울: 새미.
- 이연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의 공연예술산업,”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신동호 외 8인(공편)(2009).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이주형(2001). 『도시형태론』. 서울: 보성각.
- 이희정·김광중(200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및 개선방향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저자 미상(1987). 『서울특별시 지번 안내도』. 서울: 한국지도.

전창진·전인수·이귀택·김유호(2011). 『상권분석론』. 서울: 부연사.
 정호순(2002). 『한국의 소극장과 연극운동』. 서울: 연극과 인간.
 종로구(2006). 『대학로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행지침』
 차범석(2004). 『한국 소극장 연극사』. 서울: 연극과 인간.
 한국도시설계학회(2008). 『지구단위계획의 실제』. 서울: 기문당.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의 도시설계』. 서울: 도서출판 보성각.
 한국도시설계학회(2012). 『한국의 도시설계사』. 서울: 도서출판 보성각.
 한국도시연구소 편(1998). 『한국도시론』. 서울: 박영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2010). 『대학로 공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서울연극센터.
 한준상(1997). 『동숭동의 아이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 논문

정기간행 한술지 수록 논문

김기호(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서울학연구』, (6): 41-66.
 김도년, 배웅규, 성진욱(2010). “서울시 관수동 도심블록의 10년간 도시형태 변화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1(2): 99-117.
 김봉렬. (1998). 동숭동 대학로의 도시와 건축: 대학로의 건축사-미술회관, JS빌딩, 문화공간. 건축, 42 (10), 14-18.
 김성철(1998). “공연장 짓기,” 『한국연극학』, 10: 341-369.
 김성철(1998). “공연장 짓기,” 『한국연극학』, 11: 333-374.
 김성홍. (1998). 동숭동 대학로의 도시와 건축: 동숭동 도시조직과 문화읽기. 건축, 42 (10), 10-13.
 김종혁, 김홍길. (2011). “서울시의 고가차도 철거전·후,” 『도로교통』, 125: 38-49.
 김재관. (2000). “대학로에서 평등 찾기,” 『국토』, 220: 102-107.
 박세훈(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서울학연구』, (15): 167-198.
 심재현. (2008). 대학로 상권분석의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8 (4), 203-227.
 양승우(2000). “독일의 도시형태학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5(3): 7-19.
 이석환(1997). “장소 만들기의 구성 요체로 본 마로니에 공원의 장소 만들기,” 『국토계획』, 32(5): 215-229.

- 이승지, 이상호(2010). “뉴욕 극장지구(Theater District)의 역사문화특성 보전을 위한 계획수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1): 269-277.
- 이원현, 김. 최. 나. 김. 이. (2010). “세계 문화예술도시의 연극타운 비교연구,” 『연극교육연구』, 17: 175-225.
- 이원현, 김. 최. (2011). 세계문화예술타운의 형성과 운영과정을 통해 본 대학로의 개선방향 연구. 연극교육연구, 19 (0), 69-119.
- 이재익. (1998). 동숭동 대학로의 도시와 건축: 동숭동의 상업건축과 소비문화. 건축, 42 (10), 19-21.
- 임상오. (2008). 창조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국토, 322 (0), 16-23.
- 임진욱. (2009). 대학로지역 공연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 (1), 139-170.
- 임학순. (1997, 7). 문화예술공간의 확충방향. 국토, 30-36.
- 전종한. (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44 (6), 779-796.
- 정기용(1998). 대학로의 도시와 건축: 동숭동과 무에빌딩. 건축, 42 (10), 27-31.
- 진영효, 안건혁, 박소현(2007). “도시계획 규제가 도시형태 변화에 끼친 영향 분석,” 『국토계획』, 42(1): 19-33.
- 진영효, 안건혁(2009).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유형과 특성,” 『도시설계』, 10(1): 103-120.
- 최막중, 김미옥(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153-162.
- 최막중, 신선미(2001). “보행량이 소매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75-83.
- 한규용(1997). “공연공간에 나타난 행위자와 관객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기본 원칙,” 『디자인연구』, 5: 169-184.
- 한기정, 손세관(1995). “도시조직에 대한 형태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15(1): 221-441.
- 홍경구, 안건혁(2001). “지역활성화정책으로 인한 대학로지구 토지이용 변화과정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1307-1318.
- 홍경구, 김도년(2005). “대학로지역특화정책이 건축물 용도변화에 미친 영향,” 『국토계획』, 40(7), 87-99.

미간행 학위논문

- 강재훈(1998). 공연시설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연극 소극장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경애(2008). 서울시 문화지구정책의 효과성 연구: 인사동과 대학로 문화지구의 비교.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미영(2007).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영석(1989). 소극장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지환(2008). 공연문화시설의 속성에 따른 관람객의 이용행태연구: 수도권 공연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권수연(1999). 대학로 지역 단독주택의 변화 연구: 용도와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명지선(2005). 서울시 귀금속 산업의 도시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심은정(1999). 대학로지구 공간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문화전략의 공간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보희(2008). 문화지구지정의 문화 및 장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로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석환(1998). 도시 가로와 장소성 연구: 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진영호(2008). 서울 도심부의 역사적 도시형태 변화 유형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허윤주(1999). 대학로내 문화시설 특화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허정(2010).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이 공연예술시장에 미친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3) 정기간행물

일반주간지/월간지

서울연극센터(2011). “대학로문화지도,” (2012년 6월~11월).

김주연(2003). “다시 대학로를 가리며,” 『기억과 전망』 (2003년 봄).

박성민(2013). “대학로 옆 혜화로-소극장 물리면서 골목상권 꿈틀,” 『이코노미스트』 (2012년 3월 12일).

일간지

김담구, “구 서울대 자리가 예술의 거리로,” 『동아일보』 (1978년 9월 20일, p. 5).

- 저자 미상, “대학로 주변 땅값 상승,” 『매일경제』 (1985년 4월 27일, p. 10).
- 김소연, “한류순풍타고 공연관광 시장 파이 커진다,” 『한국일보』 (2012년 6월 5일).
- 권영숙, “근대연극 발상지 원각사 옛모습 복원공사 추진,” 『한겨레』 (1991년 7월 10일).
- 이정훈, “비싸진 대학로 소극장 떠나간다,” 『한겨레』 (2007년 9월 14일).
- 정육규 “연극 ‘밧줄’, 사형수 통해 본 신앙 반추,” 『연세중앙교회 교회신문 218호』 (2010년 11월 20일).
- 저자 미상, “서울대 캠퍼스 이삿길에,” 『경향신문』 (1975년 1월 20일, p.7).

(4) 기타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부동산,” land.naver.com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문화통계포털,” culturestat.mcst.go.kr
- “서울메트로,” www.seoulmetro.co.kr
- “서울시,” www.seoul.go.kr
-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
- “서울특별시 시정소식 보도자료,” <http://spp.seoul.go.kr/>
- “서울시 온라인 뉴스,” inews.seoul.go.kr
- “서울연극센터,” <http://www.e-stc.or.kr>
- “소상공인진흥원,” www.seda.or.kr
-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sg.seda.or.kr
- “위키피디아 한국,” <http://ko.wikipedia.org>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c.kr

도면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http://ngii.go.kr>
- “서울시 GIS포털,” gis.seoul.go.kr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aerogis.seoul.go.kr

◎ 서양문헌

(1) 단행본

Carmona, Matthew · Heath, Tim · Oc, Taner · Tiesedell, Steve. *Public Places - Urban Spaces*, 강홍빈 · 김광중 · 김기호 · 김도년 · 양승우 · 이석정 · 정재용 (공역)(2009). 『도시설계: 장소만들기의 여섯 차원』. 서울: 도서출판 대가.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London: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Glaeser, Edward. *Triumph of the City*, 이진원 (역)(2011), 『도시의 승리』 서울: 해냄.

Jacobs, Jane(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유강은 (역)(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Knox, Paul · Pinch, Steven(1982, 2010).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6th Edition, 박경환 · 류연택 · 정현주 · 이용균 (공역)(2012).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2) 논문

Heilbrun, James(1992), “Art and Culture as Central Place Functions” , *Urban Studies*, 29(2): pp. 205-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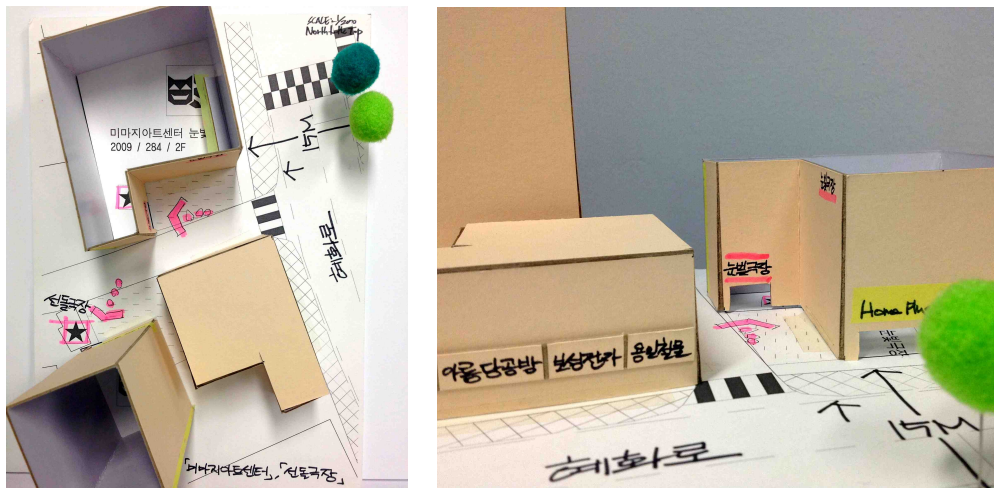
Kim, Kwang-Joong(2012). “The study of urban form in South Korea,” , *Urban Morphology*, 16(2): pp. 149-164.

Moudon, Anne(1997). “Urban morphology as an emerging interdisciplinary field” , *Urban Morphology*, 1: pp.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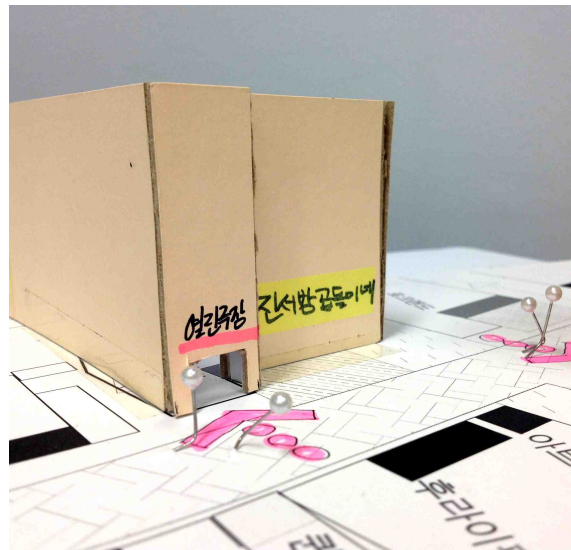
■ 부록: 대학로 도시공간 Study Model

	A	혜화로 일대
	B	명륜2가 일대
	C	혜화역 1번 출구 일대
	D	동송길 일대
	E	혜화역 2번 출구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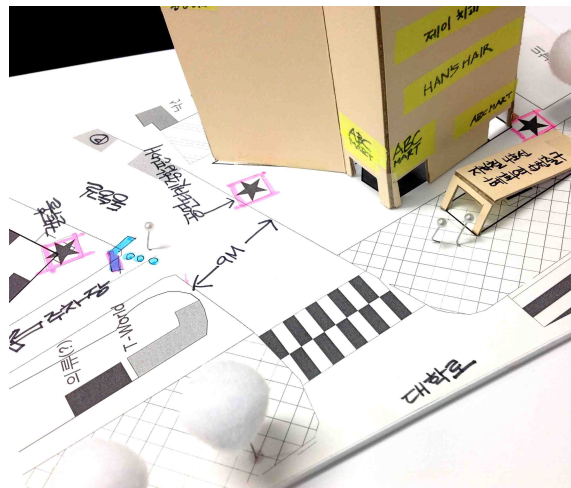
A: 혜화로 일대



B: 명륜2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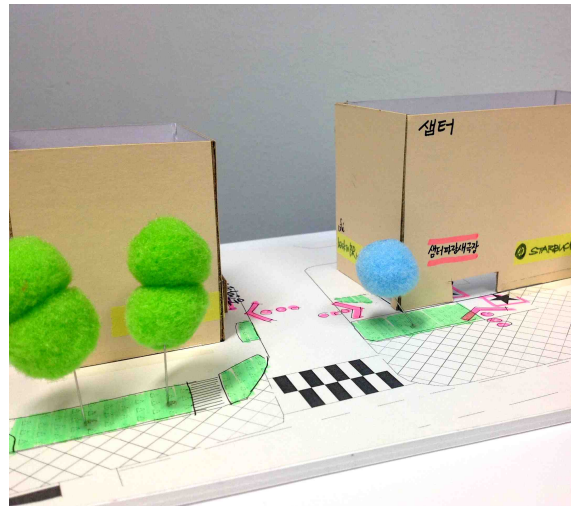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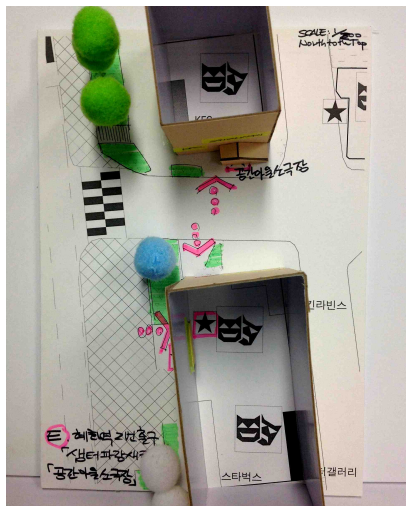
C: 혜화역 1번 출구 일대



D: 동송길 일대



E: 혜화역 2번 출구 일대



Abstract

A Study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ater-concentrated Daehakro District, Seoul : Focusing on Theaters and Their Environment

Advised by Prof. Zoh, Kyung-Jin

Han, Koo-You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ocating in Seoul, Daehakro District is a place whe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ontinuously projected cultural policy from 1980s. As a result, in 2012, there are more than 150 theaters located in this area. About a half of the people visiting Daehakro District supposed to watch plays or musicals. That means these people essentially experience the urban spaces of Daehakro District. On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theaters as a local identity.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which support the audiences' activities are the important issue for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quality of surroundings of theaters, especially the urban space. Formerly, as a basic step,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is district must be understo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transitions of the urban forms in Daehakro historically, and how they affect to people's behaviour today.

Urban morphological approach means that assuming historical event affected on the urban space. By describing the transitions in urban space especially land use, architecture, plot type, street pattern, the relationships of theses elements in urban space would be understood. Additionally, the changes of the theaters in this area also described with the elements of urban

morphology. Key findings are as follows.

In 1980s there were a few theaters in Daehakro District, but aft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arted to plan several policies including urban design(1985, 2006), cultural street(1990), cultural district(2004), the number of the theaters has been rapidly raised and the location expanded and each size of the theaters became various. While Daehakro District is a place with many theaters, inside of the district has different areas with different urban form and different theater types. The type of Street patterns are remained from different ages and different shapes. The size of the plot and blocks are also various. Some relationship between urban form and the theaters were analysed. for instance, the size of the theaters are related to the size of the plots. Small theaters locates in small sized plots. Transition of the plots occurred not so many, but in some merged plots, there were theaters located.

On the basis of morphological approach, Daehakro District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urban form and theaters. type A to E. Each sectors has been described by the location of the theaters, historical transitions and the ground floor use regarding the behaviors of the audiences. Not only the spatial features in each area, but also the audiences' behaviour were observed quite disparate. For instance, before the scene starts, the audiences waited on the street in front of the theaters in small sized theater concentrated area while the same behaviour occurred in the lobby in large scaled theater.

The affections of urban morphology in Daehakro District would continue because this area has limited FAR according to national land-use policy, residential area. Therefore, while planning and managing Daehakro District, understanding the spaces and uses by the historical approach is inevitable. Urban policy should intera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Keywords: Daehakro, theater, urban form, theater location, little theater,

Student Number: 2011-22357